

교육목표에 따른 교육내용(2)



교회교육연구위원회



교육목표에 따른 교육내용(2)



교회교육연구위원회

국립 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교육 목표에 따른 교육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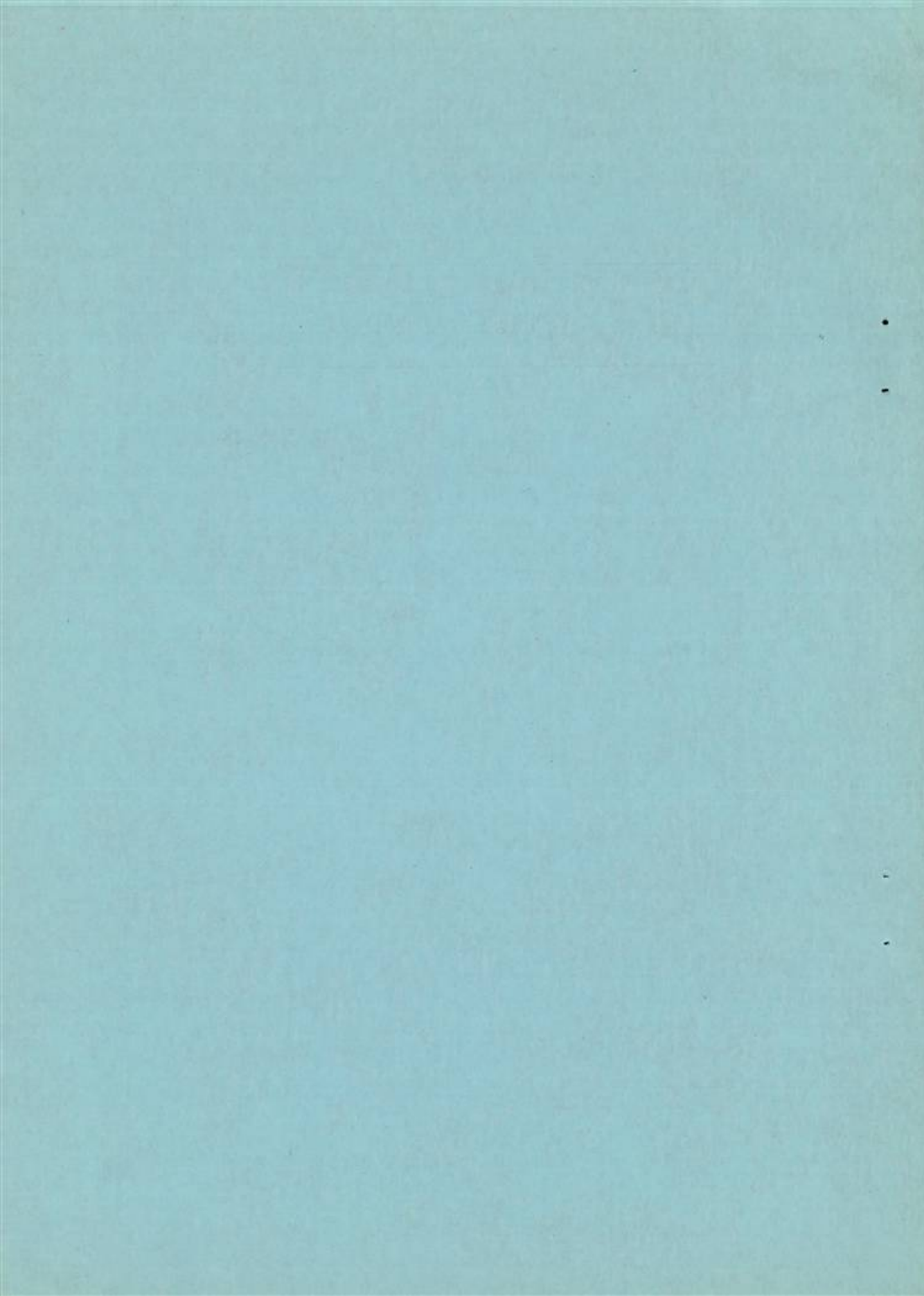
1. 삼위 일체 하나님	-----	1-1
2. 예수 그리스도	-----	2-1
3. 성 경	-----	3-1
4. 교 회	-----	4-1
5. 인 간	-----	5-1
6. 가 정	-----	6-1
7. 이 웃	-----	7-1
8. 역사와 우주	-----	8-1
9. 사회와 국 가	-----	9-1
10. 직 업	-----	10-1
11. 재 물	-----	11-1
12. 삶	-----	12-1
13. 전도와 선교	-----	13-1

교회교육 연구 위원회

주 제: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윤 영탁 교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삼위일체 하나님)

온 영 탁 목사

교육목표 :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의 계시로 깨달아 인격전 관계를 갖고 항상 의지하고 섬기도록 한다.

1. 하나님에 관한 지식 -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인간은 창조의 면류관으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을뿐만 아니라 에덴동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사랑을 받는 특권까지 누리게 되었다.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받은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여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특권을 상실하는 동시에 타락하게 되었다. 따라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여전히 남아 있고(롬1:19) 또 창조주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도 분명히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하거나 그의 존재를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다.(롬 1:20)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 보려는 논증들 곧 우주론적 논증 (The cosmological argument), 목적론적 논증 (The Teleological argument) 존재론적 논증 (The ontological argument), 도덕론적 논증 (The moral argument), 조화론적 논증 (The argument from congruity)도 시도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스스로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고전 1:21)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지식은 하나님께서 친히 영감으로 무오하게 자신을 계시해주신 성경에서 터득하는 것이正道(正道)이다. 따라서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게 된다. 우리가 그분과 인격적 관계를 맺고 항상 의지하고 섬길 때 비로써 우리는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소유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2.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칭들은 고대 근동지역의 이방 국가들이나 희랍의 타락한 이방종교의 신화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은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려지 형상의 우상" (롬 1:23)의 명칭들과는 달리 실제적 역사속에서, 하나님과 선민과의 특수적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부여된 명칭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 주요 명칭들은 아태와 같다.

여호와(아도나이) - "스스로 있는 자" 곧 자존자(출3:14) 라는 뜻이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이방 신들과 구별되는 유일신으로서 선민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 독점적으로 사용되는 특수한 이름인 고유명사이다. 여호와는 선민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며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다. 따라서 여호와라는 주로 선민이 사용한 이름이다.

하나님(엘로힘) - 선민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이방이들도 사용하는 보통명사이다. 이칭호는 신적존재의 제측면과 그의 통치적 제측면을 일반적으로 나타낼때 사용된다. 전세계, 자연, 모든 인간사를 다스리시는 창조주와 우주적 주재자로서의 신적 존재를 나타낸다.

그러나 때때로 "여호와"와 "하나님"이 동일한 분이심을 나타내는 용례로서 "여호와 하나님" (창 2:4등등), "하나님의 집" (대상 23:28)과 "여호와와 그의 집" (왕상 6:37), "하나님의 궤" (삼상 3:3) 와 "여호와와 그의 궤" (왕상 8:4)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

"전능한 하나님" (엘 샤다이) 창 17:1, 출6:3,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 엘온) 창 14:18 이하,

"지극히 높으신 자" (엘온) 민 24:16, 신 32:8, 시 9:2,

"만군의 여호와" (아도나이 궤바오트) 삼상 1:3, 11, 4:44 ...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아도나이 엘로헤 하궤바오트) 호 12:6,

암 6:14 - 천군천사와 모든 피조물을 통치하시며 그들로 부터 영광을 받으시는 왕으로서의 하나님을 뜻한다.

(루이스 벨콕저, 신복운역, 기독교신학개론, pp55-58:W.H그린, 오경에 나타난
 '엘로힘'과 '여호와'의 용법' 운영탁역편, 구약신학 논문집(2)pp 43-70:
 J.A.모티어, '하나님의 성호의 계시', 운영탁 역편, 구약신학 논문집(3)
 특히 pp. 78-97 참조)

3. 하나님의 속성

성경은 하나님을 하나의 개념이나 또는 그 개념의 인격화에서 이루어진 신이 아닌,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인격적인 분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준다. 선민 이스라엘이 섬긴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분이셨다. 이 하나님의 속성들이 성경에 나타나는데, 그의 내재적 속성으로는 무소부재하심(시 139:7-10, 사 66:1), 전지하심(시 139:1-10, 사 46:10, 히 4:13), 전능하심(창 17:1, 계 4:8, 욥 42:2, 마 19:26, 렘 32:17), 불변하심(시 102:26 이하, 롬 4:20이하, 시 33:11, 왕상 8:56, 시 103:17, 창 18:25)등이 성경에 계시되었다. 그리고 인간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그의 윤리적 속성으로는 거룩하심(레 11:44이하, 수 24:19, 삼상 6:20, 시 22:3, 사 40:25) 의롭고 공의로우심(대하 12:6, 시 89:14, 97:2) 선하심(막 10:18), 사랑이심(고후 13:11, 요일 4:8, 16) 은혜로우심(엡 1:6, 2:7, 벧전 4:10), 진리이심(렘 10:10, 요일 17:3, 요일 5:20)등이 성경에 계시되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들을 우리의 제한된 지식으로 다 이해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롬 11:33 이하)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 그리고 부활 승천을 토하여 성경에 계시된 바 하나님의 속성들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요 1:14, 18, 요 14:9) 내재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특의 하나님의 윤리적 속성을 우리가 날마다 답아가게 되는 것이다. (롬 8:29, 갈 4:19, 골 3:10)

4.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라는 표현 자체는 성경에 직접 나타나 있지 않다. 그러나 안디옥의 데오필루스 (Theophilus)가 성경의 가르침을 근거로 처음으로 이 표현을 사용하였다. 성경은 하나님의 본질상 단일하신 신격 안에 삼위가 본질과 능력과 영원성에 있어서 동일하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다. 이러한 삼위일체 신관은 하나님의 현현과 임재 그리고 속죄를 가장 이상적으로 실현케 해 주는 기독교의 독특한 신관이다.

성경적 증거 : 구약의 증거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자신을 친히 복수로 표현하신 예를 들 수 있다. (대명사 - 창 1:26, 3:22, 11:7, 사 6:8, 동사 - 창 1:26, 11:7)

하나님이 삼위의심을 다음의 신약성구들에서도 알게 된다. (마 3:16이하, 마 28:19, 고후 13:13)

5. 성부 하나님

성경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칭하고 있다. (요 6:27, 롬 1:7, 갈 1:1)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과 구별되고 (사 48:16) 성령 하나님과도 구별되신다. (창 1:2, 6:3)

1) 타위와의 관계

제 1위이신 성부께서는 누구로 말미암지도 않으시고, 출생된 바도 없으시고, 나오시지도 않으신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 2장 3, 참조) 그는 성자들 영원전부터 출생하게 하시며 (시 2:7, 요 3:16, 18) 성자와 성령을 세상에 보내신다. (사 48:16)

2) 사역

(1) 창조주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특히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으로

서 모든 피조물의 근원이 되신다. (고전 8:6, 엡 3:14, 15, 히 12:9)
(2) 여호와 하나님

이 칭호는 창조주이신 하나님 (엘로힘) 께서 곧 이스라엘 선민의 하나님
이신 여호와와 동일하신 본이심을 보여준다. 여호와 하나님은 선민의 아버지
지시며 (신 32:6, 사 63:16, 렘 3:4, 말 1:6, 2:10) 또한 영적 자녀인
신자들의 아버지가 되신다. (마 5:45, 6:6-15, 롬 8:15, 요일 1:3)
(위의 2,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 창조, 루이스 펄콕저, 신복은 역
기독교 신학개론, p 73 참조)

6. 성자 하나님

제 2위이신 성자는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으로 불리운다. (요 1:1, 18, 20:28
딤후 2:13, 벧후 1:1, 요일 5:20) 그는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게 영원하시고 (요
17:5, 24, 골 1:15, 요 1:1, 사 9:6 이하, 히 1:11 이하), 무소부재 하시고
(요 3:13, 마 18:20, 28:20, 엡 1:23) 전지하시고 (요 16:30, 21:17),
전능하시다 (요 5:19, 사 9:6, 히 1:3, 마 28:18) 그는 또한 창조주로서 (요
1:3, 골 1:16, 히 1:10) 만물을 유지시키신다. (히 1:3)

1) 타위와의 관계

그는 성부 하나님에게서 발생하시고 (시 2:7, 행 13:33, 히 1:5, 요 3:
16, 18) 보내심을 받았다. (사 48:16) 따라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 (롬 1:14)
독생자 (요 1:14, 3:16, 18, 갈 4:4) 맏아들 (히 1:6)로 불리운다. 여기에서
말하는 발생은 성자의 존재가 본질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원 발
생을 인격적 실체의 원인과 영원전부터 성부와 특별한 관계를 가진 측면에서 말
함을 뜻한다. (잠 8:22 이하, 사 9:6, 미 5:2) (기독교 신학개론, p 74 참조)

제 2위 성자께서는 또한 제 3위 성령을 보내시기 때문에 (요 15:26), 성령
을 그리스도의 영 (롬 8:9), 예수님의 영 (행 16:7), 아들의 영 (갈 4:6) 이라고
부르게 된다.

2) 사역

(1) 중보자

제 2위 성자 하나님의 가장 두드러진 사역은 역시 중보자로서의 사역일 것이다. 그는 성육신 하시기 이전인 구약시대에도 "여호와와 사자"로서 선민에 대한 신적사역을 하셨다.

여호와와 사자는 아브라함 (창 18:1 이하, 22:11-18) 야곱 (창 31:11-13) 모세 (출 3:2-5) 엘티야 (왕상 19:5-7), 다윗 (대상 12:15-17)에게 나타났었다. 그는 또한 앗수르 군인 185,000 명을 살해했으며 (왕하 19:35)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계셨으며 (속 1:11),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옹호하여 사탄을 책망하셨다. (속 3:1 이하)

그는 특히 성육신 하심으로서 구약에서 예표적으로 나타난 세가지 성직인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을 친히 성취하셨다. 그는 선지자로서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전하셨고 (행3:22), 제사장으로서 자신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롬3:25), 죄인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고 (롬 5:8-10, 8:34, 히 7:25)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히 5:5-6), 또 왕으로서 백성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시며, 그들을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는 동시에, 원수들을 물리쳐 주신다. (눅 1:33)

성자 하나님께서는 성육신 하셔서 죄가 없으신 인성 (히4:15, 요1:14)과 신성 (골 2:9) 을 한 인격에 결합하여 소유하심으로서 유일한 신적 중보자로서의 (딤후 2:5) 자격을 갖추셨다. 그리하여 그는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겨 부활하셔서 신적 구속사업을 완수하실 수 있었던 것이다. (롬 1:4 4:25)

(2) 심판자

성자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고난의 종으로 성육신 하여 초림하셨으나, 그는 심판주로서 재림하실 것을 모든 성도는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다.

(사도신경 참조) 성경은 심판권이 성자에게 있어서 (요 5:22) 그가

밀는 자들 (고후 5:10, 롬 14:20), 모든 민족 (마25:31 이하, 행 17:31)

사탄 (창 3:15), 살아있거나 죽은 악인들 (행 10:42, 딤후 4:1, 벰전 4:5)을 다 심판하실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다.

7. 성령 하나님

제 3위이신 성령을 다음 성구들이 하나님으로 칭한다. (행 5:3,5, 고후 3:17 이하, 그리고 구약의 "하나님의 신" 참조)

1) 타위와의 관계

성령은 성부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으로 부터 보내심을 받으셨다. (사 48:16) 따라서 그를 하나님의 영 혹은 그리스도의 영 (롬 8:9,10), 예수님의 영 (행 16:7) 아들의 영 (갈 4:6)으로 부르게 되는 것이다.

2) 사역

성령께서 오순절 성령강림 이전인 구약시대에도 물론 사역하셨으나, 그의 본격적 사역은 역시 성자 예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 이후인 (요 14:16, 26, 15:26, 16:7,8) 신약시대에 나타난다고 하겠다. 다음의 세 사역 가운데서 성령의 신성과 인격성을 한국교회는 망각하지 않는가 하는 우려가 없지 않다.

(1) 신성

그는 타위와 동등하게 영원하시고 (히 9:14), 전지하시고 (고전 2:10 이하, 요 14:26, 16:12 이하) 전능하시고 (눅 1:35), 무소부재하시고 (시 139:7-10) 창조 사역에 또한 동참하셨다. (창 1:2, 욥 33:4, 시 104:30)

(2) 인격성

그는 거듭나게 하시고 (요 3:5), 가르치시고 (요 14:26), 증거하시고 (요 15:26), 진리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요 16:13), 말씀하시고 (행 13:2, 계 2:7), 시험을 받을 수도 있으시고 (행 5:9), 근심하시고 (사 63:10, 엡 4:30), 욕되게 함을 받을 수도 있으시며 (히 10:29), 훼방을 받을

수도 있으시다. (마 12:31 이하)

(3) 열매와 은사

성령께서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신으로서 우주적 사역이나 신정국가에 대한 사역은 물론 구약시대의 성도들에게 개인적으로 역사하셨다. 그는 특히 선지자들 안에 계시서 (벧전 1:11) 그들을 감동하시며 구세주 메시야의 오심을 그들로 예언케 하셨다. 그가 곧 구약시대의 교회를 보존하신 분이시다.

그는 신약시대에 다음과 같은 열매와 은사를 성도들에게 허락하신다. 그는 살리시는 영이심으로 (요6:63)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며 (요3:3-8) 새롭게 하신다 (딤후 3:5) 뿐만 아니라 그는 우리 안에 거하시서 (요14:17, 롬8:9, 고전3:16) 우리로 성령충만하게 하시고 (행2:4, 4:8, 9:17, 11:24, 엡5:18) 그의 인도를 받게 하시고 (갈 5:16-18, 25)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갈5:22 이하, 엡5:9 빌 1:11) 그는 우리에게 영적은사를 각각 주시서 (고전12:4, 7-11, 롬12:6-8 벧전 4:10 이하)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엡 4:12)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신다. (벧전 4:11) (H.e.Thiessm, Lecturesm Systematic theology (Eer&mous, 1979) p8,89-99,251-256 참조)

8. 삼위일체 하나님과 나

(어떻게 인격적 관계를 맺고 의지하고 섬길 것인가?)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의 다신 종교나 신화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은 인간의 타락하고 부패한 모습과 죄악 세상의 계급투쟁을 그대로 반영시켜 등장하는 우상들과는 전혀 다르다. 성경은 인격적이고, 거룩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족하신 분이셨으나 교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대상으로 인간을 무에서 말쑥으로 창조하셨다고 가르친다. 그러나 인간의 범죄로 이러한 관계가 끊어졌을 때 하나님은 친히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을 죄에서 구속하시고 그들 가운데 내재하시서 자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성화시키신다.

이 구속사업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완수하신 것이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교제를 갖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과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인격적 관계를 맺고 의지하며 올바르게 섬길 수 있을 것인가?

1)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한다. (시 8:1-4, 시 116:12)

2)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

이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전 12:13)

3)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면서 많은 열매를 맺어드려야 한다. (요 15:1-8)

다시 오고 가

다시 오고 가 : 다시 오고 가

1. 예언된 메시아 예수님

1) 타 락 (원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창1:27)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을 주시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며 모든 생물을 다스리도록 하셨다. (창1:28) 그리고 아름다운 에덴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도록 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한가지 제한을 두셨다. 그것은 에덴동산의 각종 나무의 실과는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다. (창2:16-17) 선악과는 인간이 세상에서 자유와 주권을 누릴찌라도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실을 상기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인간은 자유를 누렸고 하나님의 선물인 주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선악과는 그들에게 제한이 있음을 알게하고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요 하나님께 대한 책임이 있음을 상기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첫 인간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하나님께 범죄하게 된다. 이 죄음 되는 인류를 대표한 죄이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이 죄의 영향으로 사망의 법아래 종 노릇하면서 살게된 것이다. 이 죄를 가리켜 원죄라 한다. (창3:15-20 ; 롬 5:12, 17-19 ; 6:23)

처음 인간이 범한 원죄에는 몇가지 특성이 있다. 첫째, 인간편에서의 불성실한 면을 보여준다. 인간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신실하심을 의심하고 사단의 꾀임에 넘어간 것이다. 인간은 사단의 말을 진실한 것으로 박고 하나님의 말을 진실한 것으로 받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첫 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배척하는 죄에 빠진 것이다. 둘째, 인간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한 면을 보여준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창조를 다스릴 권리를 주셨다. (창1:28) 그런데 사단의 꾀임으로 하와가 먼저 넘어지고 그다음 아담이 그 뒤를 따른다.

성경은 "아담이 죄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죄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딤후 2:14) 고 말한다. 여기 아담이 죄임 즉 속임수에 빠지지 않았다는 말을 아담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인지를 충분히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기로 선택한 것임을 설명해 준다. 아담이 지은 죄는 하나님께 대한 의도적인 반역인 것이다. 세째, 처음 조상이 지은 죄의 특성으로 또 하나는 교만이다. 마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 먹은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 보다는 자기 자신이 자기와 자기 남편에게 더 잘 안다고 생각하는 교만에서 온 것이다. 아담이 마와가 준 선악과를 먹은 원인이 무엇인가. 아담의 경우도 교만의 특성이 나타난다. 아담은 내가 하나님의 제한에 매이기에는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나는 자율적인 존재가 되고 하나님과 같은 지극히 높은자가 되겠다고 생각하고 선악과를 먹은것이다. 여기에 아담의 죄의 교만이 있다. 이처럼 처음 인간이 범죄함으로써 모든 인류는 전적으로 부패하여 참 지식과 의와 기록을 상실하였고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영적인 선행도 할 수 없게 되고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다.

2) 원 복음 (구원의 약속)

인간의 범죄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자 하나님은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먼저 행동을 취하신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속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창 3:15) 이 최초의 계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으로 범죄하여 죽을 수 밖에 없는 인류에게 소망을 주신것이다. 이 최초의 계시는 구속 역사의 소망을 주신것이다. 이 최초의 계시는 구속 역사의 진행과정에서 점차 분명한 계시로 나타난다. 종국에는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수난을 통해 사단의 머리가 상하게 된것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은 원복음을 주심과 같은 시기에 죄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까지도 제시해 주신것이다. 범죄한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해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것은 그들을 대신해서 다른 생명

체가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

그런데 메시아를 주시겠다는 원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졌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약속은 은혜의 범주에 들어가지, 행위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다. 구원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이다.

(엡 2:8-9)

3) 구약의 메시아 대망

원 복음으로 "여자의 후손"을 보내 주시겠다는 약속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분명하게 나뉘어간다. 노아의 가족을 홍수에서 구원해 주신 사건을 통해 (창 6:1-8:22),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 사건을 통해 (창 15:4-6 : 17:5 : 18:10) 메시아를 보내 구시겠다는 약속은 더 구체화 되어진다. 그리고 오실 메시아가 영광을 받기 전에 수난의 과정을 거칠 사실도 이삭을 바친 사건에서 (창 22:1-14), 시편의 기록에서 (시 22:1-21), 이삭야의 증언에서 (사 53:1-12) 분명하게 설명된다. 오실 메시아는 수난의 종으로서의 메시아로 오실 것이다. 그런데 메시아적 예언은 미래에 참다운 하나님의 왕국이 메시아 중심으로 설립될 것을 제시해 준다. 메시아는 평화의 통치자로 (사 11:9-10) 오실 것이며 그의 왕권은 초자연적이며, 신적이고, 영원한 특징을 가질 것이다. (미 5:1) 메시아의 통치는 왕으로서의 하나님의 통치와 같은 것이 될 것이다. 메시아의 왕국의 범위, 영역, 성격은 하나님의 미래 통치와 동등한 것이 될 것이다.

2. 예언의 성취자로 오신 예수님

1) 제사제도의 완성

제사제도의 완성은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신 일환으로 성취되어진 것이다. (마 5:17-18) 구약의 율법을 편의상 의식적 율법, 법률적 율법, 도덕적 율법 셋으로 나눈다. 그런데 제사제도는 의식적 율법 (Ceremonial law)에 속한다. 예수님은 이 모든 율법을 완성시키신 것이다. 예수님은 완전한 대제사장 이셨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셔서 한번 죽으심으로 구약의 제사제도를 완성시킨 것이다. (히 9:26) 예수님이 죽으실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사실은 인간의 죄문제를 영원히 해결하셨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마 27:51)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죄의 속죄가 필요할 때마다 희생제사를 드렸다. 그들은 먼저 자신을 위해 속죄의 희생을 드리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 속죄의 희생을 드렸다. 그러나 예수

님은 자신이 완전했기 때문에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셤다.

(히 7:26-27) 구약 시대의 희생 제물은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 바치는 제도였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완전한 희생물인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쳐 구약의 제사제도를 완성시킨 것이다 (히 9:11-14)

구약시대의 제사는 매일 반복될 수 밖에 없었지만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제사는 단번에 드린것으로 완전하고 영원한 효과가 있는 것이다.

2) 선지자적, 제사장적, 왕적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사역과 연관시켜 선지자적, 제사장적, 왕적 셋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이 직책들은 예수님이 선생으로, 구세주로, 통치자로의 역할을 감당하신 사실을 가리키는 것이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약의 선지자직이 성취되었음을 명백히 한다. 신 18:15에서 "여호와께서 너의 종 네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라" 했는데 행 3:12-26에 베드로는 신명기 18:15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 성취로 오신 "나와 같은 선지자"임을 명백히 한다. (행 3:22 참조)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로 인정 받은것이 명백하게 엠마오 도상에서 제자들이 예수를 가리켜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 (눅 24:19) 라고 말했다. (마 21:11, 46 요 6:14) 예수 그리스도는 예언된 선지자로 오셔서 그의 사역을 통해 선지자직을 완성하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 있다. 창14:17-20 에 기록된 멜기세덱은 그리스도의 모형역할을 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임을 설명하고 왜 그리스도가 제위 계통을 따르지 않고 유다 계통을 좇아 태어났는지를 설명한다. 그 이유는 제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먼저 자신의 죄를 위해 속죄하고 다음으로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 속죄해야 하는 불완전한 제사장이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사람의 죄만을 위해 속죄하는 완전한 제사장이 되었다. 구약의 제사장직은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성취되어졌다. (시 110:4)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약의 왕직이 성취되었음을 넌백히 한다. 장 14장에 나온 멜기세덱은 살렘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멜기세덱이 표상적으로 메시아를 가리킨다고 말한다. 이는 살렘왕인 멜기세덱이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이요, 따라서 살렘왕은 "평강의 왕"이란 뜻이요, 멜기세덱은 "의의왕"이란 뜻이기 때문에 메시아는 "의의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오시게 된다. (시45:6-7:사9:6-7:눅1:31-33:19:27,38:요18:36-37)

예수그리스도는 마지막 원수인 사망을 멸하고 온 세상을 다스리실 왕이신 것이다. (고전15:24-28) 계 19:16에는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라고 예수님이 왕이심을 분명히 한다.

그리스도의 3직은 인간의 영적 필요에 잘 적용되어 진다.

(1) 하나님을 알아야 할 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 필요가 있다. 그런데 우리는 자연적인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예수님께서 선지자 교사로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계시해 주실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2) 우리의 구원의 필요

우리는 구원이 필요하다. 우리는 하나님에 관해 무지할 뿐만아니라 우리는 죄인이요 하나님에 대한 반역자들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친히 희생제물이 되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셨다.

(3) 하나님의 통치의 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필요로 한다. 우리는 자율적으로 우리 스스로를 다스릴 수 없다. 그렇게 되면 무질서와 혼돈만이 우리의 뒤를 따를 뿐이다. 그리스도는 천국의 법칙으로 우리를 다스리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으로 사랑의 통치를 하신다.

3) 도성인신 (신성, 인성)

예수는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을 빌어 성육신 하셨다. 예수는 잉태만 순간부터 완전한 하나님이었으면서 또한 완전한 사람이셨다. 예수는 하나님과 동등한 신이셨지만 자기를 피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빌 2:6-8) 예수는 진정한 신이었지만 또한 진정한 인간이었다. 신약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의 상증이 혼동을 말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소유하고 계심을 말한다. 예수는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통해서 잉태된 것이 아니요 성령을 통해 잉태 되었다고 말함으로 (마 1:18-20)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하고, 또한 예수가 다윗의 혈통으로 (롬 1:4) 역사상에 (갈 4:4) 육체로 태어 나셨다고 (요일 4:2) 말함으로 예수의 인성을 증거하고 있다.

왜 하나님이 성육신 하셨는가? 하나님이 성육신하신 이유는 완전한 신이면서도 완전한 인간이신 본망이 우리의 구원을 성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인간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인간을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해서이다. 또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삶, 영광의 삶, 풍요로운 삶을 주셨다. 메시아는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사 현재도 보람된 삶을 살게 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리스도가 그의 부활에서 성취한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다.

3. 구원의 완성자 예수님

1) 생애와 교훈

(1) 예수의 생애

예수는 예언된대로 때가 차서 여자를 통해 율법아래 태어 나셨다 (갈4:4)

예수는 초대 로마 황제 가이우스 아구스도 (B.C 31 - A.D 14)가 로마제국을 다스리고

헤롯대왕이 유대땅을 다스리던 때에 태어났다 (눅2:1-7, 막2:1-12, 19)

예수님의 태어나신 년대는 대략 B.C 4년 혹은 B.C 5년으로 추정한다. 예수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될 때는 마리아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요셉과 함께 살았다

(눅2:4) 그러나 가이우스 아구스도의 호적령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는 유대땅 베들레헴에 오게 되었고 그때 마리아가 예수를 출산하게 된 것이다 (눅2:4-7)

이는 선지자 미가의 예언 성취인 것이다 (미5:2). 예수는 태어난 직후부터 수난의 길을 걷는다. 헤롯대왕이 죽일려고 함으로 애굽으로 피난을 가게된다 (막2:13-15)

이 사실 역시 선지자 호세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다 (호11:1).

헤롯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요셉과 마리아는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나 아켈라오가 헤롯대왕에 이어 유대의 왕이 된 것을 알고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서 정착하게 된다.

그래서 예수를 나사렛 예수로 부르게 된다. 예수의 초기 생애에 대해서

신약은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는다. 단지 예수가 12살 되던 해에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을 뿐이다 (눅2:41-52) 그런데 누가는

예수의 예루살렘 방문을 기록한 마지막 구절에서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눅 2:52) 라고 예수님에게 발전이 있었음을 증거한다.

예수님은 내적으로 외적으로 발전하셨다. 그런데 예수님의

내적발전을 쉽게 설명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복음서가 예수님의 자서전이 아니요

예수님의 심적 상태를 다루어 주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을 예수님

이 완전한 신이시면서도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발전이 있었음에 틀림없다.

그 발전은 유기적인 발전으로 진리에서 진리로, 완전에서 완전으로 발전하는 발전인

것이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배속에 잉태되어 있는 기간도 완전한 하나님이셨고

완전한 사감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태어났을 때도 그가 12살 되었을때도,

그가 30세였을때도, 그리고 공생애 기간중에도 완전한 신-인이었다.

예수님은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셨고(눅 3:23) 약 3년동안 메시아로서 공생애의 길을 걸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때가 역사의 년대로는 A.D 29년쯤으로 추정된다.

(2)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의 교훈은 천국이 도래했다는 내용이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천국이 시작된 것이다. 그래서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막1:1) 고 그의 복음서를 시작한다. 새로운 것은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오셨다는 사실이다. 예수님의 첫 복음의 선포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막1:15)였다. 그 이후 예수님의 교훈과 사역은 하나님 나라를 설립하시고 나탄내 보이시기 위한 것이었다.

첫째, 예수님의 인격 자체의 임재가 하나님 나라의 실현임을 증거한다. 바리새인들에 둘러 싸여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느때에 임하느냐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가운데) 있느니라" (눅 17:21)고 대답하신다. 이는 예수님 자신이 있는 그 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해 있음을 증거한다.

둘째, 사단과 귀신을 쫓아냄으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된 것을 증거한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느니라" (마 12:28) 왕국의 능력인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냄으로 사단의 영역이 하나님의 영역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예수님은 사단의 통치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룩하신다.

셋째, 복음 전파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된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마 13:16,17) 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제자들이 들은 것은 선지자와 의인이 소원하고 대망했던 복음을 듣는 것이었다.

즉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셔서 평화의 통치를 하실 것을 선포한 것이다 (사 40:9-10, 41:27, 52:7, 눅 2:10-12 참조) 이는 복음선포로 하나님 나라

가 실현되었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네째, 이적을 행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었음을 증거한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와 그 질서가 파괴되어졌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파괴된 질서를 회복시키는 이적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가르치신다.

다섯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장될 것을 가르친다.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 사이에 교회는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천국을 확장하게 된다 (눅24:46-49, 마28:18-20, 행1:8) 교회의 복음전파는 왕국 활동의 일환이다.

여섯째, 예수님의 재림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게 될 것이다. 일반 부활과 마지막 심판이후에 완성된 천국이 설립되게 될 것이다. 예수님 재림 후에 완성된 왕국에서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게 될 것이다 (마8:11-12, 25:31-34, 고전15:23-28, 딤후 2:12)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산상보훈을 통해 천국의 성격이 어떤 것임을 가르치신다.

2) 십자가

예수님의 생애는 십자가를 향한 순종의 길이었다.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이 정하셔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걷게 하신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보아서는 수동적 순종이라 할 수 있으며, 또한 예수님 친히 즐거서 가신 길이기 때문에 능동적 순종이라 할 수 있다. 복음서는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 수난을 세번 예고하신 것으로 기록한다 (막8:31, 9:31, 10:33, 마16:21-28, 17:22-23, 20:17-19)

십자가는 화목을 이루셨다. 죄로 인해 불목의 관계에 있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만드신 사건이었다. 또한 인간과 인간 사이도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다 (고후5:14-19) 십자가는 구속을 이루셨다. 죄의 값은 사망으로 (롬6:23) 죽을 수 밖에 없는 죄인들을 피를 흘려 구속해 주신 것이다. "피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는 것이라" (히9:22)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그의 피로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속했다고 말할 때 이는 영원히 죽을 수 밖에 없는 자리에서 우리를 구속했다는 뜻이지 사단에게 값을 지불했다는 뜻은 아니다. 십자가는 자유를 주셨다. 죄의 멍에로 부자유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방종하도록 주신 자유가 아니라 섬기도록 주신 자유이다 (갈5:1, 고전 6:19-20)

3) 부활, 승천, 재림

예수님은 예고하신데로 죽은지 3일만에 부활하셨다. 성육신으로 인간의 제약속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 제약에서 벗어나신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몸체를 통해 연상될 수 있는 부활체를 입고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고전 15:20) 우리들의 부활을 확실하게 해 준다.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련된 몇가지 교리를 생각해 보자.

첫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존재하심을 확실하게 한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심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다.

둘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임을 증거한다. 예수님은 공생애 기간 동안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증거했다 (요 14:9) 그런 주장이 부활에서 입증되어 졌다.

셋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칭의를 확실하게 한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의 생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다 (마 20:28)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를 확증하는 것이요 그의 부활이 우리의 의를 위한 것이 되는 것이다 (롬 4:24-25)

네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영생을 보증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을 정복한 사건이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고전 15:55) 예수님은 부활로 마지막 대적인 사망을 멸망시키고 (고전 15:26)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다섯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을 확실하게 한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이고 심판자라고 주장할 때 사람들은 그를 잡아 십자가에 매어 달아 죽였다. 그들은 그것이 끝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이는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을 주재할 본임을 확실하게 한다.

예수님은 부활체의 몸을 가지시고 승천하셨다.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하나님의 우편이란 말은 장소성을 가리키지 않고 권능의 위치 영광의 위치를 가리킨다 (눅 24:49-51, 행 1:9-11)

예수님은 초림때에는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오셨지만 재림때에는 죄와 상관 없이 그를 기다리는 자들을 위해 오실 것이다 (히 9:26-28) 재림때에는 부활체를 그대로 가지시고 오셔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심판을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와 함께 영원히 사할 것이다.

4.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한 자

1)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함

그리스도께 접근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믿음까지락도 하나님
의 은혜로 주신 선물이다 (엡2:8)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과 십자가 사건, 그의 부활이 우리를 위한 사건인 것을 믿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
가 구세주인 것을 믿게된다 (롬10:9-10) 그리고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게 된다.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으면 구원을 받게 된다고 말한다 (롬10:17) 에수를 구주로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에수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깨달아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에 대한 회개가 뒤따르게 된다.

2)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배우고 생활화함

원래 크리스찬이란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행11:26) 에수를 믿는
것은 에수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에수님처럼 살아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에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이다. 특별히 그리스도가 섬기는 삶을 살았듯이
성도들도 이 세상에서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함을 세상에 나타낼 의무가 있다.

3) 그리스도를 증거함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최상 과제이다. 이일은 크게 나누어
두가지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다.

첫째, 성도는 입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한다. 증인은 자신이 알고 본 것을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한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눅24:48, 행1:8) 오순절 성령을 주신 사실도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증거자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이다.

둘째, 성도는 삶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한다. 성도의 삶을 그리스도를 대신한
삶이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우리의 삶을 나타내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고전12:27) 고 말했다.

한 인격체의 삶이 그의 몸을 통해서 밖으로 나타나듯이 보이지 않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가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을 향해 나타나는 것이다. 성도는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존재들이다.

주 제: 성 경

신 성종 교수

성경은 우리 신자들의 믿음과 생활의 기본 원리이다. 따라서 신자들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 세가지의 형태로 주어진다. 첫째는 예수님의 도성인신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의 형태로 오셨고, 둘째는 기록된 계시의 형태인 성경으로 주셨고, 셋째는 선포된 말씀인 설교의 형태로 주어진다. 여기서서는 두번째의 경우인 기록된 계시의 형태, 즉 성경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한다.

1.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을 영어로 바이블 (Bible) 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헬라어인 비블리온 (Biblion) 이란 말에서 유래된 것이다. 그 말의 뜻은 [책] 이다. 그러면 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가? 좁은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록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성경은 기록자들이 성령이 불려주시는 것을 기계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속에서 기록한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경에 오류가 전혀 없다는 점이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인성과 신성을 가지셨지만 그에게 죄가 전혀 없었듯이 성경도 당시의 문화속에서 그 당시의 사람의 언어로 기록되었지만 전혀 오류가 없다는 점이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딤후3:16; 벧후1:21) 오류가 전혀 없다는 점에서 일반 다른 책과는 다르다. 우리는 성경의 두가지 성격, 즉 인성과 신성의 완전한 조화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의 각 책이 가지는 특수성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성경의 영감성, 즉 무오류성과 권위를 망각하기가 쉽다.

그러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첫째는 성경의 내적인 증거 때문이고 (신6:1-9; 수8:32-35), 둘째는 성령의 증거가 있기 때문이고 (벧후1:19-21), 셋째는 예수님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요10:35).

다음으로 성경은 누구의 약속을 기록하고 있는가? 두말할필요도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록하고 있다 (출34:27).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이 범 죄한 인생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를 말씀해주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면 문제는 이 성경만으로 인간이 구원의 길을 알기에 충분한가 이다. 시편 19:7-8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성경에서 우리는 구원의 길을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다.

2. 성경계시는 점진성을 가진다.

히브리서 1:1-2절에 보면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라고 하였다. 이것은 바로 계시의 점진성을 의미한다. 구약에서는 율법서와 선지서등을 통하여 오실 메시아를 계시하셨으나 마

지막 때에 아들을 통하여 직접 하나님이 도성인신하여 주셨다는 말이다.

히브리어로 된 구약성경은 세부분 (오경, 예언서, 성문서) 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70언역과 우리 말 성경에서는 네부분으로 구분되어 있다. 즉 예언서가 다시 역사서와 예언서로 구분된다. 이것은 신약의 사복음서, 역사서 (사도행전), 서신서, 계시록과 짝을 이룬다.

구약과 신약이란 옛 언약과 새 언약이란 뜻이다. 이들은 서로 하나의 계시가 여러가지의 형태로 점진적으로 나타났다. 구약이 약속이라면 신약은 그 약속의 성취이고, 구약이 모형이라면 신약은 그 모형의 원형인 것이다. 구약에서는 신약이 감추어져있고, 신약에서는 구약이 분명히 계시되어있다.

성경은 계시록으로 종결된다. 그래서 계시록 22:18절에 보면 계시록이 기록된 이후에 그 어떤 것도 첨가할 수 없다고 선언한다. 따라서 외경이나 물본경이나 원리강론이나 심지어 교황의 그 어떤 칙령이라도 첨가할 수는 없다. 만약 첨가하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이단인 것이다.

3. 성경의 내용은 무엇인가?

성경은 현존하는 책중에 가장 오래된 것 중에 하나이고 그것이 쓰여지는 때는 1600여년이 걸렸다. 성경의 오묘함은 경탄할만하다. 그 놀라운 구성, 통일성, 언론, 판매량, 보존성등은 다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

그러면 신구약 성경의 주제는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요5:3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래서 루터는 성경은 아기 예수님이 누워있는 말 구유라고

하였다. 결국 구약은 오신 메시아되신 예수님을, 신약은 오신 메시아되신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으므로 독자들은 성경에서 예수님을 찾으려고 해야 하며, 그의 뜻을 발견하여 순종해야 하는 것이다.

성경의 가르침은 첫째로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진리에 이르도록 하여준다. 성경은 구원의 도리를 알게하고, 그리스도인의 생활지침을 제시하여 그 영혼을 성장시켜준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명백히 가르치고 있으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의 삶을 살게해준다. 이 성경은 진리와 자유의 원천이 되고 (요8:38), 열매를 맺게해주고 (요15:5) 승리의 삶을 살게해준다 (딤후2:3).

4. 성경은 어떻게 연구해야 하는가?

성경은 다섯가지 방법으로 연구하는 것이 좋다. 첫째는 말씀을 듣는 것이다 (롬10:17).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이다. 둘째는 말씀을 읽는 것이다 (계1:3). 매일 그리고 체계적으로 읽는 것이 좋다. 셋째는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다 (행17:11). 연구할 때에는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하고 (잠2:4), 목적은 성경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다.

넷째는 성경을 암송하는 것이다 (시119:9, 11). 주님이 사탄을

이긴 것도 성경을 통해서였다 (마 4 : 4, 7, 10) . 네비게이터의 창시자인 트로트맨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래 기억하기 위해 시간을 투자해서 성경 구절을 암기하는 것보다 더 유익한 방법은 없다고 하였다. 끝으로 다섯번째 방법은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다 (시 1 : 1-3) . 성경을 묵상하는 자에게는 병탄한 길이 열리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수 1 : 8) . 이런 다섯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삶의 변화는 일어나는 것이다.

주 제: 교 회

유 영기 교수

교 회

교육목표

유영기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이며, 성령의 교제의(사역으로 되어진) 공동체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교육과 선교와 봉사와 친교 활동에 참여하면서 교회의 머리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을 각자가 감당하게 한다.

다음 사항들을 주지시켜 천국일꾼으로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한다.

1.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다.
2.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며 교회는 그의 몸이다.
3.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성령의 사역(성령세례)으로 머리되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의 몸의 지체가 된다.
4.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그의 몸의 지체로서 유기적 공동체(도움과 성장을 필요로 하는 살아 움직이는 모임)를 이룬다.
5. 유기적 공동체로서 교회는 첫째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둘째로 지체간에 교제와 봉사와 구제하는 일들을 하며 세째로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여 나간다.

1. 교회의 정의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예배드리는) 거룩한 모임이다.

- 1) 구약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은 이스라엘 총회(assembly)이었다(신약에서 교회를 표시하는 ecclesia는 구약의 "총회(qahal)"를 의미).
 - a)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자신을 섬기도록 광야로 인도하여(출7:16) 시내산에서 총회로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렸다(출 19: 신4:10-33:2 시 68:7-17, 참조 행 7:38, 히 2:-2).
 - b) 약속의 땅에 들어온 후 이스라엘은 일년에 세번(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시온산에서 총회로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였다(레 23)
 - c) 이스라엘 총회(구약교회)의 예배는 영적 이스라엘 총회가 하늘 시온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그림자이다(히 12:18-29).
- 2) 신약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을 교회(ecclesia)라고 부른다(마 16:18, 요 15:16).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다(엡 1:22).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와 함께 하시며(마 28:20) 교회를 흥왕케 하신다(행 2:46-47; 히 10:25).

a)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무리들의 모임으로서 교회

신약교회는 예수님이 그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 위에 세우셨으며(마 16:18) 두 세사람이 그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도 그들 중에 계시겠다고 하셨다(마 18:20).

b)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의 교회는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자들(양들)을 불러 모으심에 근거한다(마 9:13-15:24, 눅 19:10, 참조 겔 34). 그의 제자된 자들에게도 동일한 사명이 주어졌다(마 10:5-28:18, 20, 눅 12:32). 제자로서 모든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며 이웃에 복음을 전하여야 한다. 제자로서 사명을 성취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능력을 부여하신다(행 2:1, 벧전 2:9).

c)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며(엡 1:22-4:15) 교회는 그의 몸이다(고전 12:27, 엡 4:12).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성령의 사역(성령세례)으로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의 몸의 지체가 된다(고전 12:12-13, 롬6:3-5) 예수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된 교회는 그 본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요 15:5절 이하).

d) 성전(성령의 전)으로서의 교회

성전(성령의 전)으로서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언약 백성)중에 거하심을 강조한다. 구약에서는 성막제도(출 29:44-45)와 성전건축(대하 7:16)을 통하여 상징적으로 보여주셨다. 신약에서는 성전되신 예수님 자신(요 1:14-2:21)이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셨고 그 이름으로 모이는 자들과 함께 계셨고(마 18:20)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중에 거하심을 말한다(고전 3:16-6:19, 고후 6:16). 성전으로서 교회는 또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지어져가고 있다(엡 2:21-22). 이 교회의 완성은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 그들 중에 거하며 그드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그의 백성될 때이다(계 21장)

e) 신앙 공동체로서의 교회

신앙 동체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동일 신앙고백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의 신앙공동체이다. 이 공동체는 살아 움직이는 유기적 공동체로 조직을 형성하며 지체들 간의 도움과 교제 그리고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나라를 이땅에 확장하며 성장해 나간다(엡 4:11-12, 고전 12장).

2. 교회의 설립 목적

교회 설립 목적은 교회에 대한 정의가 보여 주는대로 첫째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자기 백성(아들들)을 불러모아 그들 중에 거하시며 그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그의 백성이 되어 그를 영원토록 찬송하기 위함이다(엡 1장). 부름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선전하도록 되었다.(벧전 2:9, 참조 롬 15:8-16).

둘째로는 자기 백성이 유기적 신앙공동체를 형성하여 도움과 교제 그리고 교육을 통하여 내적성장을 기하는 것이다. 달리 말한다면 상호간에 봉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본향까지 자라는 것이다(엡 4:12-26).

세째로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는 것이다. 교회는 세상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의 사명을 받았다(마 28:18-20, 눅 24:28 행 5:32, 빌 2:14-18). 교회 설립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함께 사는(신인)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다(엡 1:3-14, 계 21:1-4).

3. 교회의 설립자와 구성원

교회의 설립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며 구성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성부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총회로 그의 나락과 몸이다. 구성원 각자는 몸의 지체들이다. 성령의 교회로서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새롭게 되었으며 하나님과 그들 상호간에 산교제가 이루어진 새사람들이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되면 하나님의 백성된 관계가 끝나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성령과 사귀게되면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의 관계가 중단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교회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작품인 것을 밝히 드러낸다.

4. 교회의 표지(사역)

교회의 삼대 표지는 말씀과 성례와 권징이다. 교회가 이 삼대 표지를 바로 시행할때 교회 설립목적은 이루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령으로 새사람되게하며 새사람된 자들을 위하여 성경말씀을 신실하게 전달하여야 한다. 말씀은 성례의 집행에 의해 보증되어야만 한다. 말씀과 성례의 적절한 집행은 교회의 권징을 수반한다. 이외에 구제, 교제, 전도와 선교도 교회의 필수 불가결한 사역이다.

1) 말씀

교회의 표지로서 말씀은 성경이 선포되어지는 것뿐 아니라 받아들여지고 고백되어

질 것도 요구한다. 신약 교회는 오순절날 베드로가 구약성경을 전파한데서 시작 되었다. 교회는 사도들의 말씀의 사역으로 계속되었고 장성하였다(행 4:31-5:42, 6:4, 6:7, 12:24, 19:20).

2) 성례

교회 안에 두가지 성례(세례와 성찬)가 있는데 더 두가지는 하나님의 가족의 표시이다.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거룩한 예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전한 희생을 믿는 자에게 적용하는 것이다.

a) 세례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한 이름 안(into)으로 들어가는 것이다(마 28:19). 세례는 세례받는 자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보여준다(롬 6:2-5). 그리스도와 연합은 그의 죽으심에 동참하여 그와 함께 장사 지낸바 되고 또한 그의 부활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옛 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사는 것을 의미한다.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기움을 받음을 상징한다(고전 6:11 참조 롬 14:7-16:14, 민 8:7). 세례는 신앙을 고백하며 그에 합당한 행위 자에게 베푸나 유아세례도 베풀 수 있다(롬 4:13-18, 창 17장, 히 6:13-18, 골 2:11-12, 행 16:15-33).

b) 성찬

성찬은 주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잡수시면서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세운 것이다(마 26:26-29, 고전 11:23-26). 이 예식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예식으로(고전 11:26) 믿음으로 주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이다(고전 11:26). 그러므로 육체의 정욕으로 참여해서는 안된다(고전 11:20-22, 27-30).

3) 권징

교회는 참된 신앙고백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성결이 요구된다. 또한 교회는 말씀의 참된 전파와 성례의 적절한 집행을 신실하게 행하여야 한다. 말씀전파로서 설교는 성경의 지식을 전달하는데 그치지 않고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한다(딤후 4:2). 성례를 잘못 시행함으로 당하는 심판도 지적한다(고전 11:27-30). 그러므로 성경은 교회 안에서 권징이 신실하게 시행되어야 할 것을 가르친다(마 18:15-17, 22, 고전 5:1-2, 계 2:2-3).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권징할찌라도 그를 미워해서도 안된다(마 18:5, 딤후 5:20). 또한 부득히 책벌할 때도 과도한 벌을 주지 말아야 하며(고후 2:7, 살후 3:15). 회개할 때는 용서해야 한다(마 18:15).

4) 교육(양육)과 훈련

교회가 복음을 전한뒤 반드시 교육(양육)이 뒤따라야 한다. 위대한 선교사들의 핵심은 "가르치라" 라는 것이다. (행 2:14-40, 행 16:31,32).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하여 계시해 주신 모든 사실이 진리임을 인식 하도록 교육, 훈련하기 위해 유능한 인재를 교육시켜야 한다.

교회가 구체적인 계획과 기독교 기본진리에 대한 확고한 자로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5) 전도와 선교

그리스도의 지체인 신자들은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 성숙하고 고혼받고 세움을 입어 세상에 증거하기 위해 부름 받았다. (고후 5:17-18, 요 15:26-27).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대하여 (요 8:44, 요일 2:17, 요 15:18-25), 아들에 관하여 (요 15:25-27, 계 12:17, 행 1:8, 행 10:38-40), 성령을 통하여 (요 15:26) 몸된 교회 안에서 (엡 2:18, 요 13:33-35), 예수그리스도를 세상으로 가 증거해야 한다.

6) 구 제

교회가 가난한자를 돌보는 일이 중요하다.

그러나 구제는 은밀히 (마 6:3,4 눅 11:41). 약한사람을 돕고 (행 10:1-4, 행 20:33-35).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만 일할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도움을 주기위해 자기 손으로 수고하라는 말씀에서 노동의 새로운 기준을 성경은 제시한다. (엡 4:28, 약 2:14-17).

5. 교회의 특성

우리는 한 거룩한 보편적 사도적 교회를 믿는다. 이것은 주후 451년 칼케돈 공의회에서 승인된 것으로 그 이후 신앙고백으로 채택되었다. 이것은 신약성경의 가르침을 압축한 것이다.

1) 사도적 교회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졌다 (엡 2:10 참조 마 16:18-18:18, 계 21:14). 사도들은 독특한 방식으로 성령이 부여된 선택된 자들로 그리스도의 공식 증인들로 임명되었다 (참조 행 1:20, 시 109:8). 그들의 증거사역은 첫째로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서의 증인이다 (요 17:18). 둘째로 보아던 것과 들었던 것을 증거하며 가르치는 교사로서의 증인사역이다 (엡 3:5). 사도들의 증거에는 교회의 기초를 놓는 기능과 전도의 기능이 있다. 교회는 사도들의 증인적 가르침 위에 영원히 건설되었다. 교회의 기초는 확고히 놓여졌다. 그러므로 다시 놓을 필요가 없

다. 교회의 터를 놓는 사도의 직분은 교회에 계속되지 않았다(고전 15:8-9참조). 교회의 터에 관한 고리와 질서는 사도의 권위에 의해 확립되었다(참조 고전 7:17, 14:37-38). 따라서 교회의 기초로서의 기능은 끝났다. 그러나 전도의 기능은 계속되고 있다.

2) 거룩한 교회

교회의 거룩성은 바른 생활을 의미하며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는 그 진리가 열매를 맺은 것임을 나타낸다. 이러한 특징은 교회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사실에 근거하며 교회는 그가 거룩하심같이 거룩하게 되기 위해 부름받았다(벧전 1:15-16). 하나님의 거룩함은 그분의 신성과 도덕적 정결을 표시한다(신 23:14).

거룩은 소극적 측면으로는 죄로 부터 구별과 믿지 않는 자와 명예를 같이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심이 점차적으로 깊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엡 5:26-27 살전 5:23-24, 살후 2:13, 벧전 1:15-19, 2:9). 교회는 더럽혀져서는 안되는 거룩한 성전이다(고전 3:16-17, 5:7).

3) 보편적 교회

사도들은 복음을 온세상에 전파하도록 명령받았다(마 28:18-20). 또한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은 자는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부름을 받았다(계 5:9-7:9). 교회의 보편성(catholicity)은 단순히 지역적인 것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나 차별이 없는 사회적 차원(평등)이 있다(골 3:11). 따라서 교회의 보편성이 지역적, 사회학적면에서 부정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교회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복정한 사람들에게만 전파하므로) 부정되어서도 안된다.

4) 교회의 통일성

교회는 하나이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한분 이시므로 그분의 교회도 하나이어야 한다(엡 4:4-6). 하나님의 언약백성이다(엡 2:18-19, 3:15). 또한 그앞에 한 총회로 모인다.(히 12:22-23). 예수님은 세상에서 오직 한 증보자이시다(요 14:6, 행 4:12, 딤후 2:5). 만일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이 있다면 다른 십자가, 다른 세례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평안의 매로 줄로 성령의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할 것이다(엡 4:3). 그러므로 교회가 하나됨은 성령의 생명과 진리 안에서 하나되어야 한다(요 17:11). 다른 기초 외에 세워진 통일된 구조물(조직체)은 교회가 아니다.

6. 교회의 정치원리

교회의 정치원리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시며 교회는 그몸의 지체됨에 기인한다(엡 1:22, 고전 12:27). 교회정치를 성립시키는것은 첫째가 하나님나라의 왕국 권위이다. 교회 안에서의 권위는 그리스도의 권위로 절대적이며 가감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계 22:18-19, 갈 1:8-12). 마지막날에 심판하는 권위이다. 교회의 권세는 영적인 것이지 현세적이 아니다(마 22:16-22, 요 18:36, 벰전 2:23, 고후 10:3-6, 딤후 2:24). 교회정치는 섬김의 자세를 계속 견지해야 한다(마 20:20-28, 막 9:35, 눅 22:24-30, 벰전 5:3). 교회의 권위는 그리스도에게 속했으므로 그의 뜻과 말씀을 선포하는 것(청지기직)이지 새로운 정치조직을 입법할 수 없다(마 23:1-12, 고전 4:1-2, 막 7:8, 고전 15:3). 교회는 이 권위 앞에 절대 복종하여야 한다(마 16:19, 18:17-20, 히 13:17). 교회정치의 두번째 주요 원칙은 교회의 유기적 형태이다. 교회는 군대의 조직처럼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교회는 특별한 은사들만 가진 자들의 모임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소유하고 있는 은사들을 청지기같이 존경과 사랑과 겸손한 마음으로 도움을 주고 받으며 상호교제를 나누며 권위에 순복하는 자들의 모임이다(벰전 2:13, 고후 11:2, 히 13:17).

교회정치의 세번째 주요 원리는 대표원리이다.

첫사도들은 예수께서 직접 선택하셨다. 그런데 유다를 대신할 사도는 사도들 자신들이 뽑은 것이 아니라 신자들로 두 후보자 중에 하나를 뽑도록 하였다(행 1장 참조 행 6:5-6, 14:23). 이러한 예들은 장로직에 대한 구약의 제도를 반영하고 있다(민 11장, 출 3:16, 4:29, 24:1 이하, 삼상 8:4, 삼하 5:3). 장로들은 백성을 대표하나 그러나 그들의 권위는 백성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사와 소명에 의한 것이다(행 20:28, 엡 4:1-6 참조 고전 3:21-23).

7. 교회의 직분과 조직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말씀으로 그의 권위를 행사하시고 교회 질서를 확립하시며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감독자 곧 목사와 장로및 집사를 세우시며 또 당회 노회와 총회등 치리회를 두어 교회를 다스리신다(딤후 3장: 행 6:5-7, 15:6-31).

교회의 직분은 특수직과 일반직(일꾼)으로 나뉜다. 특수직은 사도시대에 있었던 교회의 일꾼들로서 성령의 특별한 은사를 받아 교회의 기초를 놓은 자들로서 사도(엡 2:20, 고전 9:5 갈 1:19 막 3:14 눅 6:13, 갈 1:1, 행 1:21-22, 고전 2:13, 계 1:19, 고후 12:12, 히 2:4, 행 8:17-18)와 선지자(엡 2:20, 행 11:28, 고전 12:10, 엡 4:11, 딤후 1:18, 계 11:6)와 전도자로 빌립, 마가, 디모데와 디도가 이에

속한다(엡 4:11, 행 21:8, 딤후 4:5). 일반직은 목사(엡 4:11, 딤후 전 3장, 5:17)와 장로(딤후 전 1:5-9, 딤후 전 3장-5:17)와 집사(행 6:1-7, 딤후 전 3:8-13)이다. 장로교의 조직에 있어서 지교회회는 회중을 가르치는 장로(목사)와 치리장로로 구성된 당회의의 다스림을 받는다. 노회는 해당 지방교회의 목사들과 총대로 뽑힌 치리장로들로 소집된다. 대회와 총회는 더 광역화된 지방 또는 전국교회를 대표로 한다. 이와 같은 조직은 성경의 원리들과 신약성서의 관례들을 적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딤후 전 4:14-17, 행 11:30-13-1, 15장, 고전 6:1-6). 교회의 직분과 조직에 대한 실제적인 규칙은 장로회 헌법 참조 요망.

8. 교회에 대한 구분(관점)

교회에 대한 고전적 구분 중에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또는 전투적인 교회와 승리적 교회 등의 구분이 있다. 이러한 구분의 중요성은 그것이 부인될 때 드러난다. 만일 우리가 보는 교회가 무조건 완전한 교회라면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고 교회 안에서는 잃어버릴 사람이 없다. 따라서 로마교는 자기들의 교회를 유일한 구원 기관으로 삼았다. 반면에 이러한 구별은 교회를 거의 관계없는 두 교회로 보는 폐단이 있고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책임을 회피하거나 보이지 않는 교회가 하나이기 때문에 보이는 교회의 통일서에 대한 중요성을 무시하는 경향을 준다. 이외에도 지교회와 우주적교회 또는 조직체로서의 교회와 유기체로서의 교회등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이러한 구분에 있어 주의해야 할 것은 교회의 이런 관점에 대한 교훈이 매우 융통성이 있으며 두 관점이 상호 불가분리의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롬 16:4, 16과 고전 1:2 비교, 참조 고전 16:19, 롬 16:4-5, 16: 굴 4:15).

9. 교회와 성령

성전(성령의) 전으로서 교회를 말하면서 교회에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하나님의 성전 전이 된 것을 언급하였다. 이 부분에서 교회와 성령과의 관계를 좀더 살피겠다. 교회와 성령과의 중요한 관계는 성령 안에서의 교제가 곧 교회의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행 2:43-46). 교회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요 4:20-24, 요 14:17-15:26, 엡 5:18-21). 성경은 성령을 주시라고 한다(고후 3:18). 그러므로 성령의 임재는 곧 주님의 임재로 암된예배의 증거이다. 또한 성령의 은사들은 예배시에 나타난 것으로 예배를 위한 은사라고 말할 수 있다(고후 12:11-13). 뿐만아니라 성령의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사역이 있다(고전 14:4 참조 고전 12:28, 롬 12:8, 엡 4:11-12). 성령은 교회로 하여금 성령 충만한 자들을 선택하여 교회를 돌보며(행 6:4)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 교회를 확장하여 나가도록 인도한다(행 9:17, 11, 13:1-4, 16:6, 7.).

교회와 하나님 그리고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생략한다.

10. 교회와 천국

1) 교회와 천국과의 관계

하나님 나라가 영적 통치가 미치는 영역이라고 할 때 교회도 역시 그 영역 안에 있게 때문에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음을 본다. 그러나 성경에서 교회는 천국이란 용어와 항상 교체되어 사용하지는 않는 이유는 교회는 인격의 연합체인 반면에 천국은 영적 축복물들의 연합이기 때문이다. (롬 14:17)

그러나 교회는 구원 받은 사람으로 구성된(행 2:47) 천국이며 천국은 곧 교회를 의미한다.

천국의 열쇠를 위탁받는 일은 교회의 큰 영광이요 교회만이 가진 특성이다. 또 절대적 의미에서 천국의 열쇠는 교회의 머리되시며 천국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에게 속해있다. 하나님은 인자 곧 그리스도에게 심판의 권세와(요 5:27, 계 3:7) 죄를 사할 권세를 주셨다(막 2:3-7, 마 16:19).

주님은 이 권위를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해 선포할 능력을 부여하셨다.(요 16:13, 요 20:23, 행 6:1-10)

2) 교회와 천국시민

교회는 믿는 자들에게 교회의 문과 천국의 문을 열어주어야 하며 신앙고백을 통하여(요 10:11, 롬 5:6),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며(롬 7:19, 빌 2:12), 쫓대를 향해 전력 투구하는(빌 3:19) 사람은 진정한 신자요 천국시민이다.

11. 교회와 예배

교회의 설립 목적 중에 첫째로 생각되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임을 언급하였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절하며 또 그에게 그의 최상의 성품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 그 앞에 엎드리는 것이다. 그 이유는 그가 우리를 구원하셔서 아들로 삼으셨기 때문이다(엡 1:3-14). 예수님께서 참된 예배에 대해서(요 4:20-24)에 말씀하셨다. 참된 예배의 대상은 영이시며 우리를 수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다(장소와 시간을 초월). 특별히 참된 예배의 대상은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시는 자는 신령(영)과 진정(진리)로 예배하여야 한다. 하나님께 예배드리시는 자가 언제나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는데 참된 예배자들이 모여서(교회) 예배드리시는 이유는 첫째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중에 거하시면서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구약의 성막과 절기에 이스라엘이 총회로 모여 예배, 마 18:20). 둘째로 서로 모여 예배하는 가운데 말씀과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고 봉사하는

중에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기 때문이다.

12. 신약교회(초대교회)의 시작과 성장 및 확장

1) 신약 초대교회의 시작은 오순절 날에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이 성령충만함을 입고 말씀전파함으로 시작되었다(행 2). 예루살렘 교회는 전도, 가르침, 표적과 기사, 친교와 물질을 필요에 따라 나누는 특징을 보여준다(행 2:43-46).

2) 다음으로 안디옥교회를 살펴보면 스데반의 일로 흠어진 유대인들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전파함으로 생긴 유대인과 헬라인으로 구성된 교회이다(행 11:20). 이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이 동역(team 사역)하는 교회이다(행 11:25).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가 처음 불리워졌으며 교회 지도자를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이다(행 13:1-3).

3)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중 마게도니아의 환상에 따라(행 16:9) 유럽 땅에 복음을 전파함으로 생긴 첫 교회이다. 이 교회는 옷감장사 루디아와 그의 집이 다 세례를 받음으로 시작되었다(행 16:14-15). 기도처로 가는 중에 만난 귀신들린 처녀를 고침으로 인한 감옥에 갇힘과 감옥문이 열린 사건으로 인한 간수와 그의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뻐하였다(행 16:16-34). 여자 성도들의 역할이 두드러진다(행 16:13이하, 빌 4:1-2). 본이 되는 교회이다(빌 4:9).

4)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경을 회당에서 가르침으로 시작되었다(행 17:1-9). 이 교회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는(데살 1:3)은 모든 교회가 간직하여야 할 요소이다. 이 교회에 대한 것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하여 살필 수 있다(가르침의 사역-살전 4:1-2, 살후 2:15, 이 교회에 대한 바울의 소개-증거에 열심-살전 1:8, 고난중에 기쁨-1:6, 2:14, 3:3-4:2, 2:19-20, 3:9, 주님의 재림 고대-살전 4:13-18, 등등).

5)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아니식일마다 회당에서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함으로 시작되었다(행 18:1-4).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함으로 유대인의 반대를 받고 회당에서 그 옆에 디도 유스도 집으로 옮겨 말씀 증거함으로 많은 무리가 믿게되었다(행 18:5-11).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은사를 받은 교회이나 문제가 많은 교회이다. 교회 안의 분파(고전 1:10-4:21), 소송 사건(고전 6:6), 부도덕(고전 6:9이하), 혼인문제(고전 7장), 우상제물(고전 8-10), 은사문제(고전 12-14장)과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는 일(고전 9:1, 고후 3:1 이하).

6) 에베소 교회는 예루살렘과 안디옥 교회를 이어 초대교회의 삼대교회로 소개된다. 이 교회는 바울이 세례요한의 세례만을 알고 있는 자들을 세례준후 말씀 회당에서 3개월과 두란노 서원에서 3년을 가르치며 이적을 행하면서 세운 교회이다(행 19:1-20). 이 교회에 대해서는 행 20장과 에베소서와 계 2:1-7 절을 통하여 더 살필 수 있다.

7) 로마에 있는 교회는 오순절 날에 예루살렘에서 성령강림의 역사와 사도드려의 말씀 전파를 받은 자들이 로마에 돌아와 세워졌다고 본다. 로마에 있는 교회는 아마도 가정교회들로(바울은 로마서에서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음). 유대인과 이방인들로 구성되었다(롬 16장). 이 교회들 외에 골로새 교회와 계 2-3장에 나타난 일곱 교회드려를 공부하는 것도 고려할만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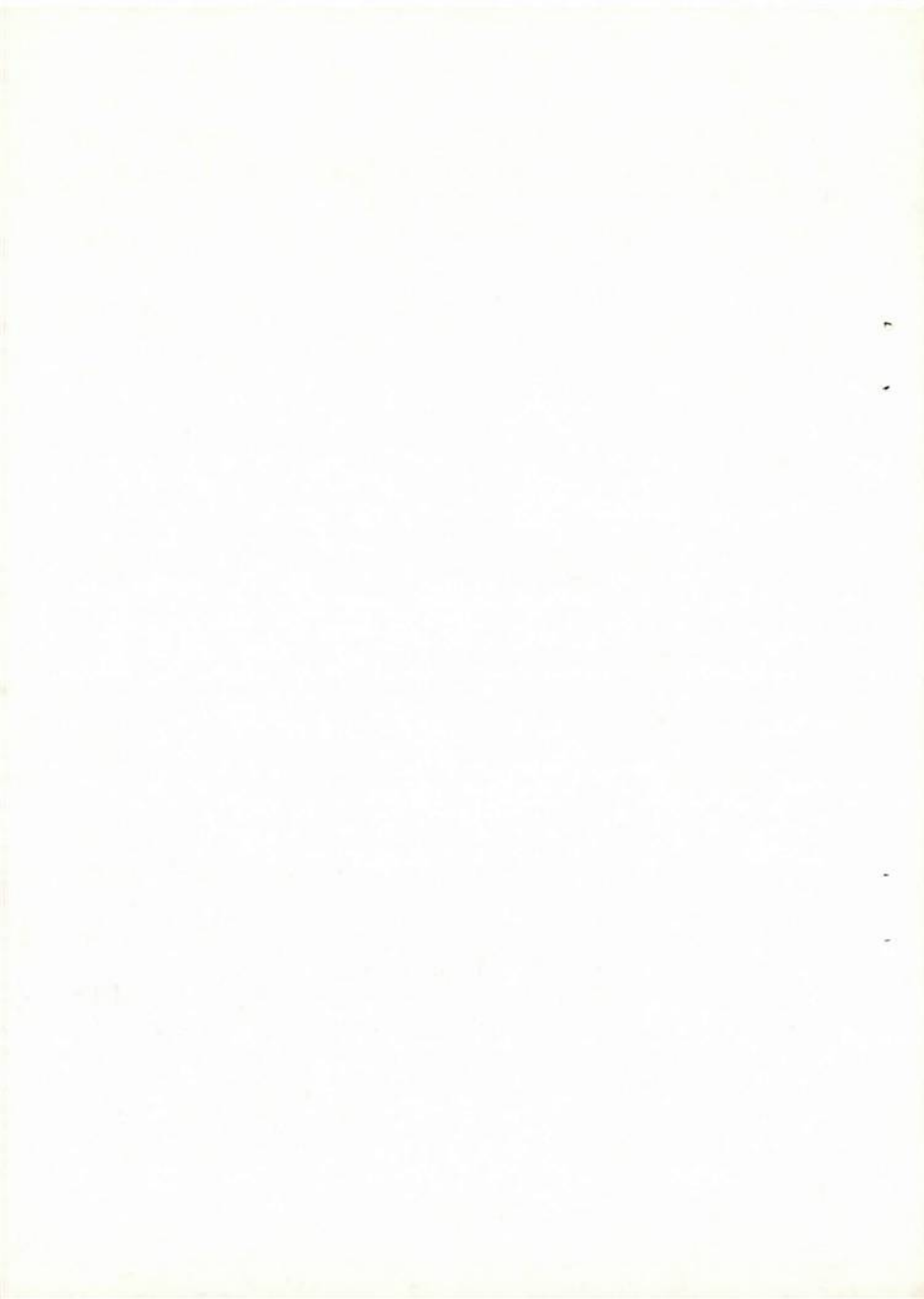
참고 문헌

교회론에 대한 여러 조직신학 서적들을 위시하여 주석드려와 다음 책들도 참고될 수 있음(한글서적 국한)

1. 당신의 교회생활(서원고 옮김, 나침판사)
2. 교회의 해부학(한화룡 옮김, 두란노서원)
3. 참된 예배 (한화룡 옮김, 두란노서원)
4. 성서적 교회론(이창우 옮김, 성광문화사)
5. 초대교회에 관한 것은 주석들의 서론 부분과 신약서론과 성경지명 및 인명 사전 등이 도움

부서별 교재 집필에 대한 제언

1. 영아·유치부는 별도로 하고 유년부와 초등부, 중등부와 고등부, 대학부와 청년부와 새가정부 그리고 장년부와 노년부로 대별하여 한 group 으로 한다.
2. 대별된 한 group 은 12개 주제들을 계단별로 가르치도록 집필한다. 그 group 의 대상(주일학교 학생)의 형편에 따라 12개 주제를 가감할 수 있다.
3. 원칙적으로 가감되지 않는 주제들은 한 group 에서 그 외의 group 으로 옮겨지면서 같은 주제들을 공부하도록 한다. 따라서 그 외의 group 교제는 같은 주제라고 할찌라도 그 group 에 맞도록 집필되도록 배려가 요청된다. 물론 반복교육을 전적으로 배제하지 않는다.
4. 따라서 적어도 한 group 에 속한 집필자들이 모여 교제가 계단별로 집필되도록 협의 해야한다.



주 제: 인 간

정 규남 교수

주 제: 인 간

정 규남 교수

1.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피조물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는 말은 좁은 의미에서 인간이 창조 될 때 참 지식, 의, 거룩함의 특성을 가지고 태어난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인간은 이 특성들을 타락으로 완전히 상실했으나 그리스도를 믿으므로 새사람이 되어 부분적으로 다시 갖게된다. 그러나 이 특성들을 완전히 갖게 되는 때는 장차 하늘나라에서 이다(창1:26, 27; 엡4:24, 골3:10, 웨스트 민스터 신앙고백서 4장2).

그런데 타락후에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음을 계속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창 9:6)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는 말은 또한 보다 넓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앞서 말한 세가지 특성외에 인간이 다른 피조물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성적이며, 도덕적이며, 영적불멸의 존재인것이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해된다. (창 1:28, 참고 Lous BerKhof, Manual of Christian Doctrine, 신복은 역 (서울: 은성 문화사, 1978 4판), pp.117f.

2. 인간의 우월성과 존귀함

인간은 창조 때 부터 다른 동물과 구별되어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했다(창1:28, 2:15, 19 f). 그리하여 만물을 인간의 발아래 두셨다(시8:4-9). 또한 인간의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다고 가르치신 예수님의 말씀을 재 인식케 한다. (막8:36-37, 마 16:26, 눅9:25).

3. 인간의 책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다른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으나 인간 마음대로 모든 것을 행하도록 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도록 하셨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다른 피조물을 다스려야 할 책임이 있다.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의 벌과 심판이 뒤 따르다는 것을 주지시킨다.(창2:17, 3:19, 17:1, 18:19, 마5:48, 3, 벰전1:15, 히12:6, 고전11:30-32, 행5:29, 32).

4. 인간의 죄와 타락

인간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따 먹으므로 죄를 짓고 타락하여 죽음의 존재가 되었다 (창3:1-19). 인간의 조상이며 대표가 되는 아담의 범죄는 원죄가 되어 모든 인간이 똑같이 죄를 범한 것이 되었으며 다 같이 죽음의 존재가 되었다 (롬5:12-21). 아담의 타락 후 아담의 원죄 뿐만 아니라 인간 모두가 전적으로 부패하여 미워하고 싸우며 전쟁을 하고 병고에 시달리며 죄를 짓는, 멸망 받을 수 밖에 없는 존재들이 되었다 (창6:5, 렘17:9, 시14:1-3, 롬3:10-18). 시편기자는 말하기를,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했고 (시14:3),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한다 (롬3:23). 이런 인간의 죄와 타락된 모습을 철저하게 발견하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자

5. 인간의 구원

인간은 아담이 범한 원죄와 자기 자신이 범한 죄 때문에 벌을 받아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인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은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얻어 영원한 생명의 삶을 누리게 되었다 (요11:25-26, 롬3:19-31, 요1:12, 3:16, 18, 36, 5:24, 6:40, 행10:43, 갈2:16, 롬10:9-15, 딤후1:15-16). 그러므로 인간은 자기 스스로 구원 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 구원 받을 수 있는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 이심을 아는 지식 뿐만 아니라 그 지식의 내용에 찬동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세가지 내용이 포함된 믿음이어야함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야2:14-26, 마7:21, 마12:50, 호8:2).

6. 인간의 평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아이나 모두가 평등하다 (갈3:28, 행1:8, 행15:9, 사1:17).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치 않으시고 복음을 통해 인간 모두를 그의 백성, 자녀로 삼으신 것을 주지시켜야 한다 (행15:9).

7. 성령의 전으로서의 몸

성령을 받아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한 자는 그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집이다.

(고전3:16, 고전6:19, 요일3:24, 요일4:13). 그러므로 믿는 자는 그 몸을 세상과 구별하여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거룩한 몸으로 보존하여야 한다(살전 4:7-8).

만약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몸을 더럽히면 우리를 멸하시리라 경고했음을 가르쳐야 한다.
(고전3:17).

8.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인격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인격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을 때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온전한 인격을 갖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본 받도록 매일 힘써야 할 것이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 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 받는 자 되라"고 말씀한 것을 깨닫도록 한다.
(고전11:1, 참고 마5:48, 고전4:16, 엡5:1).

9. 인간 생명의 존엄성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귀한 존재이다. 그러므로 공중의 새나 들의 꽃이나 풀보다 귀중하며, 인간된 우리의 머리털 까지도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는 귀한 존재이다. (마6:25-34, 10:29-31)

(1) 자 살

자기가 자기 생명을 죽이는 것도 살인행위로서 제 6계명을 위반한 것이다. 우리의 몸은 내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것이며 (고전 6:19 롬 14:7, 살전 5:10)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거두어 가실 이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자살행위는 하나님의 권리를 빼앗는 것이다. (욥 1:21, 고전 6:19)

(2) 살 인

하나님은 그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인간을 죽일 때 그 죽인 자를 죽이라고 할 정도로 살인을 금지 하셨다. (창 9:6, 출 20:13, 21:12, 14, 레 24:17, 민 35:31)

(3) 안락사

안락사도 일종의 살인행위로서 인간의 생명을 의도적으로 죽이는 것은 제 6계명에서 분명히 금하고 있다. (출 20:13)

(4) 낙태

아직 어머니의 자궁안에 있는 존재이지만 이미 그안에 생명이 있으므로 이를 죽이는 것은 성경에서 허락하지 않는다. 시편기자는 나의 존재가 어머니의 몸에서 세상에 태어날 때 부터 시작된것이 아니라 이미 모태에서 조직되었다고 한다. (시 139:13, 참고-렘 1:5)

태안에 있는 아이에게도 이미 태어난 인격체에 사용하는 똑같은 말을 사용하는 것을 볼 때 같은 생명체임을 가르쳐 준다. (창 25:22, 38:27ff, 욥 1:21, 3:3, 11ff, 10:18f, 31:15, 사 44:2, 24, 49:5, 렘 20:14-18, 호 12:3)

10. 그리스도인의 이상적인 인간상

기독교인은 세상 유혹을 따라 정욕을 쫓아 사는 옛 사람을 버리고 오직 마음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엡 4:21-24)

이 "거룩한 삶"은 하나님께서 믿는자에게 거듭거듭 요구하시는 삶이다. (레 11:44, 19:2, 20:7, 벰전 1:15, 16, 고전 7:1, 히 12:14) 이룩한 하나님의 요구에 부응하여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인간은 다음 세가지의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

(1) 성화 (그리스도를 닮는 생활)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아 죄로 인한 영원한 사망권세로 부터 구출되었으나, 그의 마음과 생활로 부터 모든 죄가 다 제거된 것이 아니다. 아직도 그속에 도사리고 있는 죄의 유혹때문에 완전히 거룩하고 정결한 그리스도의 형상에 합치한 삶을 살지 못한다. (롬 7:14-25, 요일 1:8 2:1)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삶을 기준으로 두고 그 목표를 향해 계속

전진해 가는 생활이 곧 성화의 삶이다. 예수님은 친히 자기를 따르는 삶을 살라고 하셨다. (요 8:12, 마 8:22, 10:38)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말하는가 하면, 그의 죄없는 삶(벧전 2:22) 인내하는 삶(벧전 2:21) 겸손한 삶(빌 2:1-11) 죽도록 사랑하는 삶(엡 5:2, 25) 용서하는 삶(골 3:13, 엡 4:32) 등이다.

(2) 섬김의 생활 (그리스도를 닮는 생활)

특별히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이 취할 태도는 섬김의 자세이다. 남을 지배하고 남에게 강압적인 자세가 아니라 남을 돕고 섬기는 자세를 갖도록 해야한다.

섬김의 자세란 단순한 외적인 행동만을 뜻한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마음, 말, 행동이 일관되게 섬기는 태도이어야 함을 가르킨다.

예수님께서서는 누구든지 섬기는 자세를 갖지 않고는 천국에서 큰 지도자가 될 수 없다고 하신다. (마 20: 25-28, 요 13:4-15)

(3) 산상수훈을 실천하는 삶 (천국 시민의 모델)

기독교인이 추구해야 할 이상적인 인간상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신다. 인간으로서 산상수훈의 교훈들을 완전히 실천하기란 어렵다. 그러나 언제나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예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예. 1)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고(마 5:41) 2) 오른 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 대며 (마 5:40) 3) 속옷을 가지고 자 하거든 겉옷까지 주며 (마 5:40) 4)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마 5:44) }

11. 미래지향적인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은 이땅에서의 삶이 나그네의 삶이며 장차 영원히 살 천국이 본향임을 알고 천국시민으로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 (약 4:14, 빌 3:20 엡 2:19)

(1) 천국 시민으로서의 정체 (identity)

천국시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가르침대로 사는 자이다. 세상의 관습을 좇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며 살 때 그의 정체 (identity) 가 분명히 드러날 것이다. (빌 3:20)

(2) 영원한 본향을 향한 순례자의 삶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의 삶은 "나그네의 길"이다.
(창 47:9, 대상 29:15, 시 39:12, 119:19, 54, 빌 3:20 히 11:13, 약 4:14)

이 세상을 본향처럼 생각하거나 삶의 전부 인 것처럼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니다. 장차 있을 영원한 우리의 본향급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잠시 있을 이 땅에서의 어려움을 견디며 천국시민으로서 합당한 생활을 살아야 한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받는 고통이나 핍박은 잠시 있다가 없어질 그림자나 안개 같은 것이다. 우리가 현재 받는 고난이 있다해도 장차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을 바라보며 소망중에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 (마 16:27, 롬 2:6, 고전 3:8, 고후 5:10, 히 9:27 벰전 1:17, 계 2:23, 20:12, 22:12)

나(인간)는 누구인가? (8회 - 16회 과정)

지침서 주제

- | | |
|---------------------------|---------|
| 1.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 1. 에 해당 |
| 2. 나(사람)는 동물과 다르다. | 2. 3 |
| 3. 나도 죄가 있어요. | 4. |
| 4. 나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 받을 수 있다. | 5. |
| 5. 우리는 똑 같아요. | 6. |
| 6. 나(사람)는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 | 7. 9 |
| 7.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의 시민이다. | 10. |
| 8. 예수님을 닮자. | 10. 8 |

주 제: 가 정

이 진태 교수

교육목표 :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회의 기본단위로서 성경적인 부부의 도리를 다하며 부모를 공경하며 주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형제간에 화목하는 가정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고 실천케 하므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전한 가정을 이루게 한다.

1. 가정의 유래와 의미
 - (1) 유래 (2) 의미 _____ 1
2. 성경에 나타난 가정상 _____ 2
 - (1) 구약에서
 - (2) 신약에서
3. 가정 구성원의 책임과 의무 _____ 3
 - (1) 남편의 도리
 - (2) 아내의 도리
 - (3) 부모의 도리 - 가. 태교이전과 태교때의 교육 _____ 5
나. 기르는 교육: 7.낙태 8.성교육 9.모범적 부모
 - (4) 자녀의 도리 다. 노년때의 부모의 도리
 - (5) 부부간의 대화
4. 가정의 문제 _____ 7
 - (1) 이혼
가. 구약에서 나. 신약에서 _____ 8
 - (2) 고부간의 갈등 _____ 11
 - (3) 자녀의 비행
 - (4) 가정파괴의 원인
가. 바른 가치관의 결여 나. 동성연애
다. 불신자와의 결혼 라. 세대차이
5. 가정의례 (1) 관혼상제 (2) 조상문제 _____ 13
6. 가정의 경건생활 _____ 14
 - (1) 가정 예배 (2) 기도와 묵상
7. 가정의 목적 _____ 15
 - (1) 천국의 확장의 핵심으로서의 가정 (2) 가정과 교회
8. 기독교 가정 건설의 준비과정 _____ 15
 - (1) 가정건설의 비전 (2) 남녀 교제법 (3) 배우자 선택
9. 그리스도인의 독신 문제 _____ 17
 - (1) 부정적 측면 (2) 긍정적 측면

가 정

이 진 태

1. 가정의 유래와 의미

가정은 사회의 가장작은 단위로 두 사람 또는 둘 이상의 집단으로서 결혼, 혈통에 의해 결합되고 한가구를 형성하며 각개인의 가족적인 역할을 상호작용하고 공통적인 문화를 창조하는 곳이다.

(1) 유 래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으나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하시면서 하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하와를 아담에게 이끌어 주시므로 최초의 가정을 만드셨다. 그러므로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인류 최초의 제도로 주신 것이며(창2:18-25)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와 함께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것으로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며 그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이며 기관이다.

(2) 의 미

하나님은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라는 대사명을 주셨다. 이것을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그 일이 성취되도록 하셨다.(창1:28) 성경에서 가정을 만들기 위한 결혼에 대해 네차려나 같은 말씀을 언급하셨다.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찌니라"는 것이다.(창2:24 마19:5 막10:7-8 엡5:31) 한번은 인류 타락 이전에 세번은 타락이후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가정은 한몸을 이루는 연합체에서 출발되어지는 것이다. 인류최초의 아담의 가정은 사회였고 교회였고 학교였다. 그 가정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쳤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쳤을것이다. 가정은 인류 사회의 기초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단위인데 개인으로 사회에서 자기역할을 배우고 어른으로서의 자기책임을 받아들이는 곳은 먼저 가정안에서 가능하며 가족들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을 감당하면서 만족을 찾을 수 있는 장소이다. 하나님이 가정에 주신것은 책임감과 순종과 사랑과 협력이며 가정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때 행복된 가정을 꾸려 나갈 수 있는 것이다.(창1:28 2:18 엡5:21-33)

2. 성경에 나타난 가정상

하나님이 세우시고 원하시는 본래적이며 이상적인 가정의 원리를 성경에서 찾을 수 있다.

(1) 구약에서

구약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부모와 자녀들을 포함하는 가족 또는 가정이라는 말은 없지만 가장 가까운 말로서 "바이트"라는 것이 있는데(역대상 13:14등에서 권속으로 영어는 Family 로 번역됨) 그 뜻은 집 또는 장막이어서 가족이라고도 번역이 되는데 우리 나라 말인 가(家)정과 같이 집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은 가족들이 한 집안에서 살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가정은 가족과 그들이 함께 사는 집과 그 집안 안팎의 뜻을 뻗어 놓고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구약안에서 우리는 남성 가장(家長) 위주의 가정 형편과 그 역사 보다는 가정의 원형과 그 원리를 보게 된다. 그것은 먼저 첫가장으로서의 아담과 하와 의 관계이다. 이 첫가정은 "가장 알맞게 돕는 자"(창 2:18)로서의 여자(아내)와 "뼈중의 뼈요 살중의 살"이라는 가장 지극한 사랑을 고백하는 남자(남편)의 사랑과 협조의 관계였다.

첫 부부가 자녀를 낳은 후 이뤄진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며 그것은 자녀들이 부모님을 사랑과 존경과 순종 하라고 인간의 도리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가르치고 있다.(출 20:12 신 5:16) 이렇게 부모를 공경함으로서 질서유지는 물론 하나님을 공경함을 배우게 된다.

그다음에 정결한 가정이 되어야 한다. 부부간의 정결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정을 만들 뿐만 아니라 서로 한몸으로서의 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출 20:14) 또한 가정에서는 신앙교육이 강조되어야 한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며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며 훈계로 교육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른 신앙과 건전한 인격을 형성해주는 가장 근본적이 되는 교육의 장이 가정이다.

(신 6:4-9 신 11:18-20 신 32:46 잠 22:6 잠 20:11-13 잠 13:24 삼상 3:13) 이러한 교육을 받고 자란 유대인들은 가장 강한 가족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역사상에 특기할만한 일이었다.

구약안에 나타나는 타락후의 혼란해진 결혼관계, 일부다처, 남성의 소유물 같은 여성의 위치(비록 주위의 여러나라 보다는 나았다고

하지만) 문제등 여러 이해할수 없는 부분들은 신약에와서 그 잘못된 점이 밝혀지고 구약의 본래의 모습을 찾게된다.

(2) 신약에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의 잘못된 관습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본래는 그렇지 아니 하니라"(마19:8)라고 하면서 창조의 원리를 올바르게 가르쳐 주시며 타락한 원인을 또한 지적하신다.(마19:3-12) 이 결과로 구약의 가정의 원형이 다시한번 분명해지는것뿐만 아니라 가정의 구성요소들의 올바른 위치와 책임을 가르치시며 여성의 위치도 남성과 평등히 이뤄진다.(갈3:28 딤후3:11)

신약에서 특기할것은 가정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평행시키면서 설명하는 사실이다.(롬8:14-17 갈4:5-7 엡5:23-32) 참된 의미에 있어서 가정은 하나님께 근거하고 있다.(엡3:15)

신약에서 특기할것은 가정은 율법적인것보다 중생한 하나님 나라 백성(천국백성)으로서의 가정이며 새로운 가정의 법인 것이다(엡5:18-6:9)

신약에서는 또한 봉사하는 가정상을 찾아보게 된다.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철저히 이루어져야하는 것뿐 아니라(딤후3:15 엡6:4) 하나님을 위한 봉사, 교회를 위한 봉사, 복음증거의 생활이 바로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하며 이일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롬16:3-4 딤후1:5-6

행16:1-2) 신약교회는 가정에서 부터 시작 된것도 잊어서는 아니되겠다(행1:13; 롬16:3-5; 5절에 "저의 교회"는 원문에는 "그들의 집안에 (모이는)교회"로 되어있어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를 의미하고있다.

(참고 행16:40, 행18:1-3; 12:12등)

신약에서 가정으로 쓰이는 말은 "파트리아"인데 가족 족보의 근원을 말하며 아버지인 "파텔"을 생각하게한다. 즉 아버지가 가정의 머리이며 시작인것이다. 성경은 이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며 섬겨야 온전하며 행복한 가정임을 말한다.

3. 가정 구성원의 책임과 의무

(1) 남편의 도리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에 남편의 도리는 매우 중요하다. 남편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아내를 사랑하며 가정구성원들을 사랑해야한다.(골3:19; 고전7:3) 또 머리로써 남편의 위치를 바르게 지키며 가정을 리드해 나가며 가정의 모든 문제를 책임있게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전11:3-7; 엡5:23) 남편은 가정의 물질적 필요를 공급하며(딤후5:8)

가정구성원을 보호하며 또 영적 지도자가(신6:7-9) 되어야 한다.
(엡5:23-33 딤펢전3:4-5 창18:19 벰전3:7)

(2) 아내의 도리

구약에 "이슈"(남자)와 "이쉬"(여자)라는 말은 또한 남편과 아내를 가르킨다. 여자를 만드신 뜻은 또한 아내의 목적이 되겠다.
그것은 "꼭 알맞게 돕는 상대자"라는 뜻이다. 남편과 아내는 둘이 아니라 하나의 몸을 이뤄, (창2:18,22,24) 하나님의 명령따라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과 정복하며, 다스리며, 일하며, 생산하는 목적들을 위하여 남편을 충실히 적합하게 도우며 협조하는 동반자이며(창1:27-28 딤펢전2:15) 실제 방법과 태도를 성도들이 주님 섬기며 교회가 머티이신 주님에게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순종하며 남편을 가장으로 가정의 왕같이 모시고 섬겨 남편을 남자로서 머티로서 세우는일에 힘쓸때 그것이 경쟁자로서나 투쟁의 상대자가 아니라 사랑과 헌신의 대상자로 도와주는 결과로 두 내외의 가정생활은 축복받는 행복한 관계가 이뤄진다.

그럼으로 아내의 복종은 굴욕이 아니라 헌신이며 사랑의 극치이며 명예로운 완성의 위치이다.(벰전3:1-6)

(3) 부모의 도리

부모는 자녀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자이다. 그러므로 부모의 삶의 태도는 곧 자녀에게 그대로 연결되는 것이다.
부모는 그리스도를 바르게 섬기는 신앙적 인물이 되어야 하며 산 본이 되어야하고 자녀에게 인격적 감화를 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해야한다.

- 부모는
- 1)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잘 알도록 도와야하며, 마땅히 행할것을 가르쳐야 한다(잠22:6 엡6:1-4)
 - 2) 부모는 자녀에게 기대하는 것을 인내로 사랑을 다 기우려 지도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 자녀를 바로 알아야 한다.
(고전13:4 빌2:7)
 - 3) 자녀를 사랑하되 훈계로 사랑해야 한다.(잠13:24;19:18;23:13-14)
 - 4) 자녀로 노엽게나 격노케 하지말고 낙심 시키지 말며, 오히려 믿음안에서 언제나 소망을 주야한다.(엡6:4 골3:21)

가. 태교이전과 태교때의 교육

무의식중이나 충동적인 수태보다는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믿음으로 수태하며 그 태아를 위하여 계속 기도하며 조심하는 산모는 얼마나 귀한 것인가. 우리는 사무엘의 모친 한나에게서 그러한 수태전후의 기도를 볼수있다. (삼상1장-2장)

나. 기르는 교육

(ㄱ) 낙 태 ("인간" 9. (4) 낙태를 보라)

(ㄴ) 성교육 : "생육하고 번성하라" 는 말씀 (창1:28)에 따르는 성생활은 하나님의 축복이며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치심에 따를 때 가정에 행복과 기쁨과 만족이 있다. 그러나 그 성생활에는 엄격한 법이있고 큰 책임이 따른다. (베후기18장:20;17-21; 신27:20-23) 적극적인 면에서 성생활의 성경적 지도를 찾아볼수 있으나(고전7장) 부정적인 면에서 산아제한이나 피임을 위한 방법등을 가르치지 않는다(창38:9의 오난의 행위는 옳지 않은것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10절) 우상숭배의 이방종교에 흔히있는 음란한, 공공연한 간음행위등 쾌락을 위주로하는 성행위에 뒤따르는 피임을위한 성교육은 교회에서 생각할수없지만 하나님께서주신 목적을 위하여 정상적인 성생활을위한 성교육은 행복하고 건전한 가정을위하여서 뿐만 아니라 불행스런 가정불화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며 유익할 것이다. 구체적인 지식과 방법도 있지만 성령의 열매인 절제는 여기에 서도 중요한 진리로 역활한다. (갈5:23, 고전7:5,9 베후1:6 고전9:25)

(ㄷ) 모범적인 부모 : ①노아의 가정 8식구: 산에서 배를 만드는 것을 순종하며 같이 구원받는 가정(창6-7장)

②요셉과 마리아 (마1-2장 눅1-2장)

③디모데의 부모 (딤후1:5-6 행16:1-2)

④아굴라와 브리스길라 (행18:1-3;18-26;롬16:3-5)

⑤나오미의 가정 (룻기1-4장)

다. 노년때의 부모의 도리

성경이 백발의 노경을 "영화의 면류관"이라고 위로함은 그 노경이 "의로운길에서" 살기때문이며(잠16:31) 존경받은 이유는 "늙은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기 때문이다"(롬12:12)

노년때는 특별히 자기자신들의 신앙위하여 시편기자같이(시편71:9) 더욱 의지하며 힘쓸뿐만 아니라 늙어도 결신하는자 되며(시92:14) 자손들을 그 지혜와 명철로 가르치며 본을 보이는 자가 되어 하겠다.(딤후2:2 눅2:37) 노년때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것은 관용이라는 미덕이 오히려 신앙적으로 비신앙을 묵인하든지 교훈을하되 결정적인, 근본적인면에 양보 또는 묵인을하여 엘리 제사장의 경우같이 나무태기는 하였으나 결국은 하나님에게 책망받는 결과를 갖어 오지 않도록 결단력이있고 구체적이며 철저한 신앙의 본이 되어야 되겠다.(삼상2:12,22-25,29,34)

(4) 자녀의 도리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출20:12;신5:16) "자녀들아 모든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골3:20)는 말들로 요약된다. 하나님이 자녀에게 순종의 명령만 주신 것이다. 그리고 순종하는 자녀에게 축복의 말씀도 하신다. "네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이처럼 순종의 도리를 잘할때 자녀의 도리를 잘하는 것이다. 그것도 주님께 순종하는것과 같이, 주님을 생각하면서 육신의 부모님께 공경하며 섬기라는 것이다.(엡6:1-3. 잠1:8-9. 잠6:20-23. 골3:20 엡5:21) 예레미아 34장에 나타나는 레갑족속의 얘기는 부모와 그들의 선조의 교훈에 절대 복종하는 모범적인 가정이며 족속이다. (비교: 예수님; 마26:39-42)

(5) 부부간의 대화

진정한 부부의 하나됨은 만족한 의사소통이 존재하는 곳에서만 이루어질수 있다. 성경은 "두사람이 의합치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느냐"(암3:3)고 하셨다. 두사람이 오래 화목하게 동행하며 서로 돕고 서로 교제를 나누게 될때 일치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부부관계는 만족한 대화로 이루어지게 된다. 만족한 의사소통을 이루는 것은 상호간의 서로 마음을 열고 솔직해지는 것이며(엡4:25. 요일1:7-10) 하나님앞에서 바른 태도로 대화를 나누며(엡4:15-32. 고전16:14) 용서와 관용(벧전4:8. 잠10:12. 고전13:5-7)으로 입장을 바꾸어가면서 상대방을 이해하며 경청함으로(잠18:13. 욥21:1-2: 약1:19) 대화는 나누어야 한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바른 대화를 나누게 될때 바른 부부관계는 물론 갈등이 없게된다.

4. 가정문제

(1) 이 혼

창세기 2장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부부가 일평생 연합해서 살것을 말씀하신다(창2:24, 마19:5-6; 엡5:31)

그러나 오늘날 이혼문제는 심각한 실정이다. 성경의 교훈은 무엇인가?

가. 구약에서

신명기 24장 1절에 "이혼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라는 말씀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마태19:8에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 버림을 허락 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라고 말씀함으로써 모세가 이혼을 명령한것이 아니라 완악한 현실 문제를 다룬것임을 가르치고 있다.

모세가 신명기24:1에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후에 수치되는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혼증서를 써서 주라고 했다고하는데 무엇이 "수치되는 일"이며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는"것인지 여러 학파마다 해석이 다르며 자기들이 해석 한대로 이혼했는데(예를들면 신약시대 직전에 있었던 삼마이 학파는 그것을 음행으로 보며, 힐렐학파는 무엇이든지 남편을 불쾌하게 만드는것으로 보아 쉽게 이혼을 하였다) 성경 원문을 자세히 보려는 1절-3절까지는 "만일(if)"로 시작하며 4절에 명령이 나오고 모세는 이 구절에서 이혼의 근거를 말한것이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행하고 있는 일들을 말씀하고 있으며 이와같이 구약에 기록된 이혼의 말씀들은(레위기21:7;22:13;민5:12-13;30:9;신22:19;24:1-4) 하나님께서 이혼을 기뻐 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있다.(말2:13-16)

다음의 두가지 경우에는 이혼이 허락되지 아니 하였다.

- ① 결혼한후에 아내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로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처녀의 표적을 보지못하였다고 거짓말 한것이 증명 되었을때 (신22:13-19) 그 아내는 평생의 버리지 못할 아내가 되며
- ② 남자가 어떤 처녀를 통간하였을때 그 처녀로 아내를 삼고 평생 그를 버리지 못한다(신22:28-29)

또 다음 특별한 경우에 결과적으로 이혼이 강요되었다.

- ① 포로에서 돌아온 제사장들, 레위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신을 믿는 여자들과 결혼하여 자기들의 부인들을 이혼했을 때 이 이방여인들을 내어 보낼것을 명하였다.(말2:10-16, 에스라9:1-2, 10-1-19; 느헤미아13:23-27)

상기 에스라 9장을 보면 제사장들, 레위사람들을 포함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신을 믿는 가나안의 8족속의 딸들을 아내와 며느리로 삼았을때 그것은 출애굽기34:11-16까지의 말씀을 어긴것으로(신7:3-4) 위대한 솔로몬왕도 이 일로 범죄하였고(느13:26;왕상11:1-11) 이방신을 섬겼으며 후에 "에레환틴 문서"(Elephantine Texts 437 BC-)에 의하면 이방과 결혼한 유대 "디아스포라"는 결국은 이방과 동화되고 없어져버린 역사와 같이 이방여인과 결혼하는 결과는 중대하며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키고 에스라10장11절에 "이방여인을 끊어 버리라"라고 명령하여 백성들은 모든 이방 아내와 그 소생을 다 내어 보내기를 맹세 하였다.(에스라10:3,12)

나. 신약에서

(1)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을 다음 구절들에서 볼수있는데(마5:31,32;19:3-12;막10:2-12눅16:18) 그 가르침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근본은 창2:24절 말씀을 근거로하신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고 한몸이니 그럼으로 하나님께서 짝지어주신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쯤니라"(마19:6)라는 말씀대로 이혼을 근본적으로 부정 하셨다. 천국 백성은 그러므로 이혼이란, 생각할수없는 참된 결혼관을 가지고 결혼을 준비하여야하며 결혼해야 하겠다.

(나) 인류 타락후(창3장) 현실문제로 죄가 결혼 생활에 들어와 결혼을 파괴하고 있다. 그 죄를 주님은 "음행"이라고 지적 하셨다.(마5:32;19:9) 즉 음행은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니 결과적으로 본래의 결혼의 파괴를 의미하며 이혼이 될것이어서 이것은 명령이나 이혼을 승인한다라기 보다는 그 피해를 그 불법을 판단 한다는 것에 불과하다.

(다) 마태복음5:32과 19:9에 나오는 "음행"에 대하여 해석이 구구하나 원어로는 "폴네아"(πορνεία)인데 그뜻은 "모든"합당치 않는, 불법적인 성행위를 말하며 "간음"모이케아"(μοιχεία)과 달리 쓰일때도 있고(마15:19), "간음"과 같은 뜻으로 쓰이기도 한다.(계2:21-22), 호세아 선지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남편과 아내로서 상징적으로 표현하였고 유사
상징을 통해 또는 간음으로 묘사했다. (호6:10; 령3:2,9)

이와같이 "음해" (또는 사울) 등 불법적인 성행위에 간조를 들 때
유이고 "간음" 등 그 행위가 결혼 관계에 관련해서 있을 때
지기도 하였다. 따라서 "음해"라는 말을 결혼 전에 있었던
음해의 과거를 결혼 후에 발견 했을 때의 경우라고 해석하는데 시
계명의 제 7계명을 결혼하지 아니한 사람에게서 해당되지 아니
한다든지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ㄴ) A. 남편의 경우 : 음해한 근거없이(마5:32; 19:9; 막10:11-12) 이나
눅16:18에는 이 말이 없음) 누구든지(무릇) 그 아내를 내어 버리고
이혼하였을 때 그 결과는 다음 몇가지로 요약된다.

㉠ 이혼자가 다시 결혼하면 (이혼당해 본처에 대하여, 막10:11)
(새 아내와) 간음을 행하는 것이 된다(마19:9; 막10:11; 눅16:18)
㉡ 이혼 당한 여인(그 여인이 다시 결혼할 때) 간음하는 여인이
로 만드는 것이 된다. (마5:32)

㉢ 무릇 버림받은 여인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을 행하는 것이다
(마5:32하 ; 눅16:18)

B. 여자의 경우 : 만일 여자가 남편을 이혼하고 다른 남자와
다시 결혼할 때 간음을 행하는 것이 된다. (막10:12 호14:3-4)
결론으로 말하면 이혼하고 다시 결혼하면 남편과 간음하는 것과
가 된다.

(II). 예수님의 승천 후 고린도 교회의 특별한 사정중에 사도바울
를 통하여 주신 이혼에 대한 말씀을 우리는 고전7:10-17에서 첫
를 수 있고,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7) 결혼한 부부는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이혼하지 말 것이며
이혼 당하지도 말며 이혼되었을 때에도 화해하기를 힘쓸 것이며 하나
남에게서 짝지어 주신 것을 힘써 지키며(막10:6-9) 다시 다른 사람
과 결혼할 생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다(고전7:10-11)

(8) (이하 고린도 교회의 특수한 사정으로 부분 중 한편이 불신자
의 경우이다. 이때 두가지 형편이 있는데 즉 남편이나 아내가
형의하여 각이 각을 원하는 경우와 각이 각을 원치 않고 사
수 없는 경우이다)

이때 한 경우든지 신자는 안 믿는 남편이나 아내를 버리지 말 것
이며 불신자 라는 것이, 이혼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

- (ㄷ) 그 이유로서 믿는자 때문에 남은 불신자 가족들이 거룩하게 되며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수있다(고전7:14, 16-17)
- (ㄹ) 만일 불신자(남편이나 아내)가 떠나거든 (같이 살기를 원치 않고 자의로) 떠나게, 갈리게 하라는 것이다. 신자는 불신자의 갈라져 떠나는 것을 막으려면 같이 불신자가 다시 되어야할 위험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신자는 이혼을 원해서도 안되며 이혼하기를 힘쓰라고나, 하라고도 말씀하지 않고 오히려 이혼 당할때 그 어려움을 감당할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하나님과의 화평(롬 5:1)중에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불신자와 싸움 가운데 사는 불화가 없어지는 정도의 화평이 아니라 버림 당한 이혼후의 어려움 가운데로 갖는 주님과 교제중에 맛보는 영원한 화평이다(고전7:15)
- (ㄴ) 고전7:16절의 "네가 상대방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수있으리오"라는 말이 15절 다음에 있는것으로 매우 중요하다. 긍정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해석되는데 긍정적으로 보면 전도는 가정에서부터 시작한다. 불신자와 같이 살면서 불신자가 거룩하여지고 결국에는 믿게되는 일은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 이겠는가.
- (브) 고전7:15절의 "갈리게 하라"에서 불신자 상대방이 먼저 갈라지기를 원하고 구체적으로 갈라지기 시작할때 갈리워진 신자의경우 그 갈라진것이 별거 정도인지, 이혼을 의미하는지 양론이있고 그 둘다 가능하면 이혼당한 신자는 다시 결혼할수 있는지 많은 의견들이 있으며 다시 결혼할수있다고 해석 되기도 하는데 이것을 또한 나쁘게 이용하고자 하는 나쁜 경향도 있어 경계하여야 한다.
- (스) 현대의 이혼과 재혼이 허다한때 신자되기전에 이혼했으며 그 이혼이 성경적인지 비성경적인지 묻기 어렵고 다 재혼해서 본태의 결혼에 돌아갈 수 없을 경우가 많아, 현재의 결혼을 "간음"으로만 규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이 모든 죄악들이 고전 6:11 말씀대로 "너희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하심을 얻었느니라" 함과같이 구원 받게 되는것이며 가정도 살게된다. 간음한 여인을 용서하시고 교훈으로 훈계하신 주님을 믿고 구원 받는것이다.
- 결론으로, 예수님께서 이혼에 관하여 말씀하실때에 누차 지적하시

듯이 이혼이 일어나는 것은 사람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며(마19:8;막10:15) 이 마음의 완악함은 목석같이 굳은것을 의미하며 그 굳은 마음은 에스겔36:25-26에 새로운 영 즉, 성령님만이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맘을 주신다고 하셨다. 성령 충만한 천국백성은 이 이혼의 문제를 이길수있다. 하나님의 짝지어 주신것은 사람이 나누지 못하며 영원한 것이다.

(2) 고부간의 갈등

고부간의 갈등이 가정의 평안을 깨고 부부사이의 갈등으로 번지게 된다. 성경에서 고부간의 관계를 보면

리브가는 헷족속의 며느리를 맞게 됨으로 상심하고 있다(창27:46) 그러나 나옴이는 젊은 며느리를 끔찍이 사랑하고 있으며 며느리 역시 나옴이를 사랑하고 있음을 볼수있다.(룻기1장)

고부간의 관계는 사실은 가장 사랑의 관계이다. 즉 가장 사랑하는 남편의 어머니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의 아내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들 사이의 관계인데 그것이 제일 어려운 관계가 된것은 친딸같이않고, 친어머니 같이 않아서 삼각관계의 타인으로, 잘못하면 아들의 사랑을 빼앗아간 자로 보는 남편의 사랑을 빼앗아간 사람으로 보기가 쉽겠다. 가벼운 질투까지 섞여 미운 존재가되어 큰 비극을 남기도 한다. 친어머니와 친딸의 관계가 쉽게 될수 없겠지만 자녀의 도리, 부모의 도리를 잘 지킴으로서 해결할수 있는 것이다. 성경은 사랑의 원리로서 모든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말씀하신다. 이해와 순종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 지체로서 사랑을 나눌때 갈등이 해소될 수 있다.(요일4:7-11)

(3) 자녀의 비행

자녀의 비행에 대해 그 책임을 다른 곳으로 돌려서는 안된다. 비행의 원인이 여러가지 있겠으나 먼저는 부모와 가정구성원에게 있는 것이다. 비행의 예방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며 경건한 가정분위기 조성과 기도와 말씀이 있는 가정에 대한 부모와 그 가정구성원의 할일은 그를 위한 끊임없는 기도가 있어야 한다.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사랑을 베풀고 용서해주며 관용으로 용납하여 가정에 따뜻한 사랑이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눅15:11-32)

(4) 가정 파괴의 원인

언제나 평화스러움과 행복이 넘쳐야 할 부부 생활이지만 어딘가

불충분한 점이 있으며 불완전한 인간인 나자와 여자를 이끌어
 부부생활을 이성과 현식이 다르므로 불평과 짜증스러움을 겪기
 마련이다. 그러나 부부사이의 파경에 이르는 일이 그 현인이
 어디에 있는지 간에 부부가 서로 인내하고 지혜를 모아 슬기롭
 게 대처하고자 할때 모든 어려움은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가. 바를 가지관의 경역: 예를들면 명예심, 운명심, 아름다움,
 웅. 집. 자녀. 해복. 부자 등을 그 가치와 복적용 생각할때
 세상의 생각하는것, 가르치는것과 신앙이 가르치는것과 대
 단한 차이가 있다. 성경의 세계관으로 부터 참된 문화관, 인성
 관를 갖고 보면 모든 보고 생각하는것이 달라지며 올바르게 생각하
 게 된다. (눅12:15 마6:33 눅9:25 마8:36 마16:26)
 나. 동성연애:
 ① 현대 가장 심각한 문제중 하나인 이 문제는 성생활 타락
 의 극치로서 왜곡된 사랑과 해복을 추구하다가 생긴 부산물
 이며 한편으로는 비정상적인 가정에서 너무 무능한 아버지들
 지 너무 엄한 어머니든지 이성을 무시위하며, 심지어 혐오
 증세를 갖다가 오히려 동성연애에서 애정과 해복을 느끼면서
 성경화되고 비정적이 되어 버리는 일들도 많아 건전한 사회
 건전한 가정이나 이 문제를 예방한다.
 ②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새종하고 번성하라"(창1:28)의 말씀
 에 근거한 건전한 가정과 성행위를 위변하는 죄를 범하는 것
 이며 사기 현대의 비정적인것이다. (레18:22 물1:27)
 ③ 동성연애자의 허상은 건리를 배반하는 죄악이지만 현시문제를
 어느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비적으로 또는 후천적으로 나타나는
 비극이며 처벌이 필요하니 깊은 이해와 사랑과 믿음으로 처벌
 의 바탕 따라 고쳐주며 해결해쳐야한다.
 다. 불신자와의 결혼: 한국자로 교회는 법으로 신자는 불신자와 혼
 인할수 없다고 정해져있으며(혼인조례: 3.준칙 제2조) 이 법은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하고 있다. 사기 "이혼"에서 지적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가나안 족속들, 즉 이방인
 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말씀(출34:11-16; 신7:3-4)은 이스라엘 민
 족과 그 신앙을 유지하기위한 것이었고 신약시대에 이방인이까지
 포함하 신자들은 영적이요 사랑이므로서 불신자와 결혼하면 그들
 에게 불충분한 신앙에서 떠나게되며 하나님앞에 영적으로 한

몸이 될수 없으며 한몸이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길수
없음으로 불신자와 결혼하지 아니할것이다(창6:1-3)
고린도전서 7장에 나오는 말씀은 이미 결혼한 가정들이
신자가된 경우의 말씀들인데 그 말씀들도 아직 결혼하지
아니하고 결혼하고자 하는 자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으로서
이혼할수 없는 가정은 부부가 다 믿는 가정들이다(상기"이혼"
중 "신약에서"를 보라)

타. 세대차이 : 세대따라 경험과 이해의 차이가있는 것을 솔직
히 인정하고 깊은 이해와 인내로서 해결해 나가는것이 가정
의 평화와 파괴를 방지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위의 "부부간의 대화"를 참고하라)

그외에도 많은 원인이 있을것이다. 이 모든것이 말씀안에서 사람
으로 해결될수있다. 또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도 하나님앞에
바로설때 원인이 없어지는 것이다. (잠5:18-19.고전6:18.엡5:18,6:4)

5. 가정의례

(1) 관혼상제

관례(冠 禮), 혼례(婚 禮), 상례(喪 禮), 제례(祭 禮)

를 가리키며

(ㄱ) 관례는 아이가 어른이되는 예식으로서 남자는 갓을쓰고 여자는 쪽
을 찹으로서 현재로는 거의 실행되지 아니하고 다만 역사적인 사실로
서 이해할수있다.

(ㄴ) 혼례는 혼인의 예절로서

혼례는 성례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신성한 예법이며 성도
들은 마땅히 주안에서 결혼할 것이며.

혼례에 특별한 혼계와 적당한 기도를 드리기 위하여 목사나 기
타 교역자로 주례케함이 옳고 가능한 목사로 하여금 축도를 하도
록함이 좋다.

(ㄷ) 상례는 상장(喪葬)의 예로서 인생이 면하지 못할 최종의 대사
로서 엄숙히 정성을 다하고 정리(訃告)와 건덕상 적절한 교회
의식이 필요하다.

비 문화적이며 이교도적이며 지방의 우상숭배적인 구습을 폐하고
신앙과 건덕상 진리와 약속있는 의식으로 대하며

예를들면 상을당한 분과 문상객의 상호례(弔 禮)는 무방하
나 유해나 무덤앞에 절하는것은 엄금하며

문상객 앞에 유족들이 일어서는것은 옳으나 그때마다 곡하는 일

과 또는 하루 세번 애곡하는 풍습등 하지말아야 하며 대신 예배드리는데는것이 비애에 쌓인 유족들에게 위로가 되겠다.

- (ㄹ) 제례는 제사의 의식으로서 역사적으로 풍습으로 섬기는 모든신(우상)에게 음식을 받쳐 정성을 표하는 예절로서 우리나라에 흔히 있는 일종의 우상숭배이다.

무당과 굿과 고사가 아직도 성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샤마니즘을 우리는 극히 경계하여야 한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상과의 투쟁인것과 같이 교회의 역사도 우상과의 싸움의 역사이다. 한국교회가 이 나라에 성행하고 있는 우상숭배와 계속하여 투쟁하여야 하겠다.(출20:1-6 고전8장)

(2) 조상문제

- ① 우리나라의 조상숭배는 제사와 더불어 한국 초대 기독교회의 핍박과 관계되고 있다. 기독교는 십계명 안에 인간의 도덕중 제일 먼저 부모를 공경할것을 가르치고 있어 부모를 섬기는 일에 가장 중점을 두고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제사를 반대한다고 해서 부모에 대한 도리를 아니하는것으로 오해를 받고있다.

- ② 조상숭배는 죽은자의 영혼문제와 함께 애급의 피라미드문화가 그렇듯이 조상의 영혼을 위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며 엄연히 우상숭배에 빠지는 것이다. 유교에서 부모에 대한 효도가 극도에 달하며 부모의 사망후의 영혼을 샤마니즘의 영향을 받아 숭배하다가 결국 조상이된 그 영혼들까지 숭배하여 제사를하게 됨으로 기독교의 계명과 근본적으로 충돌하게 된것이며 우상숭배가 된것이다. 부모와 조상에 대한 예는 그들의 사후 추모하는 맘으로 성경 말씀에 입각한 예배를 드림으로 우상숭배 아닌 공경의 뜻을 나타낼 수 있을것이다.(출20:4-6,12;신5:8-9,16;렘35:18-19)

6. 가정의 경건생활

가정은 가장 중요한 사회의 기본적 집단이다. 이곳에서는 개인적으로 가장 심오한 경험이 이루어진다. 가정은 인류의 요람이다. 사람들은 이곳에서 태어나서 마지막 숨을 거둔다. 인간은 육체의 성장뿐만아니라 마음의 성장도 가정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가정에서의 경건생활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하는 밑거름이 되는 것이다.(잠22:6)

(1) 가정예배

예수그리스도는 한가정의 머리시다. 그를 정점으로하여 이루어진 가정

은 어떤 변화에도 꺾이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화목과 사랑의 깊이는 더 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은 모든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아름답게 나타낼 것이다.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 다져진 사랑은 이웃에게까지 적용된다. 가장 위대한 유산을 물려주는 것도 가정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의 위안을 받으며 기쁨을 누리게 된다. (신6:6-9, 8:11-14 수24:14-15 요4:23 행12:12)

(2) 기도와 묵상

기도와 묵상을 통해 가정구성원들이 하나님 말씀과 함께 인격적성화를 촉진시켜 그리스도의 인격의 형상을 닮아 가게 된다.

기도를 통해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며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되며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게 된다. (시139:23-24)

모든 가정 구성원에게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가족이 함께 기도함으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

게 된다. (렘29:13. 엡1:3, 6:18. 살전5:13. 시19:12-13. 마6:5-15. 눅11:1; 18:1. 롬12:12)

7. 가정의 목적 (1) 천국의 확장의 핵심으로서의 가정

하나님의 명령하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라는 대사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가정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천국복음확장에 핵심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야 한다. (창1:28) 복음 증거에 앞장선 가정들을 보게된다. (딤후1:5-6. 행16:1-2. 행16:40; 18:1-3; 롬16:3-5)

(2) 가정과 교회 : 성경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으로 가정과 교회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은 무리이다. 가정에서의 바른교육은 교회에서 바른 생활을 하게된다.

딤후 3장에서 교회의 감독과 집사의 자격을 말하면서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라야 한다고 강조한다. (딤후3:2. 4-5, 12)

성령 충만한 활력에 넘치는 복된 가정이야 말로 건강한 성도로 영적 사역자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엡 5:18 - 6:4)

8. 기독교 가정 건설의 준비과정

(1) 가정 건설의 비전

아담이 홀로있는 것을 보시고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못해서 하와를 만드시고 가정을 이루라하셨는데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길 원하신다. (창2:18-25) 그러므로 가정을 건설할때 하나님

의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가정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전10:31)

그러기 위해 가정 구성원이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각자 감당하는 것이다. 남편은 머리로서 아내는 조력자로서 그리스도 사람으로 책임있게 가정을 꾸리며 자녀는 순종으로서 주어진 일을 해나가며 성경적 가정관이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엡5:21-33 엡6:1-4. 골3:18-21)

가정구성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경건생활과 복음증거의 생활이 있어야 한다. 또한 가정을 천국의 모형으로 이루기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한다. (노아의 가정 창6-7장. 롯과 나오미의 가정 롯기1장.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가정 행18:1-3, 롬16:3-4)

(2) 남 여 교제법

사람은 교제를 통해서 성장하게 되는데 특히 이성교제를 통해서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이 세상을 이해할 수 있기에 남녀간의 건전한 형태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속에 소원을 두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정해 주시는 배필을 찾는 마음으로 교제에 임해야 한다.(빌2:13 막10:19;창24:7) 우리의 걸음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기에 네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도록 힘써야 한다.(시37:4)

교제의 방법에 있어서 신앙생활과 관련해서 공동체의 모임과 집회를 통해서 하는것이 바람직하고 도움이 된것이다. 교회안에서 작은 성경공부 모임이나 부서 활동을 통한것도 좋은 것이다.

교회봉사나 자기 하는일(공부, 직장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교제에 너무 몰두해서도 안된다. 깨끗하고 바른 교제는 나누어야 한다 (딤후2:22 딤후5:2)

(3) 배우자 선택

배우자 선택은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중의 하나이다. 성경은 배우자 선택에 대해 모든면을 말씀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믿는 배우자를 선택해야 함은 대 전제로 하고있다.(고후6:14) 사랑하기 때문에, 첫눈에 반했기 때문에, 매력적이기 때문에, 물질 때문에 라는 외형적인 조건을 따지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배우자 선택은 객관적이 되어야 하며 차분히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충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환경과 가정의 신앙적 문제, 가치관 등을 잘 살펴야 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로 준비해야 한다.(시37:4) (상기 "불신자와의 결혼", "이혼"

등 참고하라)

9. 그리스도인의 독신문제

독신에는 두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미혼자 독신이고 다른 하나는 기혼자 독신이다. 여기서 미혼자 독신에 중점을 둔다.

(1) 부정적인 측면

하나님이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가르친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고 내리신 판단이므로 절대적 진리로 받아들여야 한다.(창2:18) 그래서 돕는 배필을 만드셨다. 그리고 가정을 이루게 하신것이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을 지으신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몸이 되리니라"고 하셨다. 이 말씀은 창세기 2장의 말씀을 재확인하는 것이다. 결혼에 대해 다시한번 강조하신 것이다.(마19:4)

그러므로 독신보다 결혼은 정상적인 것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된다. 더구나 결혼을 하지 말라고 금하는 것은 말세에 나타난 거짓진리라고 규정하고 있다.(딤후4:3)

(2) 긍정적인 측면

성경은 다른 측면을 또 말씀하시기를 독신생활에 합당한 은사를 받는 사람은 독신생활하는 것이 좋다고 가르치고 있다.(고전7:7) 바울은 주 예수만 바라보며 선교에 헌신한 사람이였기에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 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하며", 일생을 주님께 바친 사람이다.(고전7:32)

독신은 특수한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가능한 것임을 알수있다. 주님께서도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다.(마19:12) 그러나 독신생활이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결혼생활보다 우위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순수한 동기에서 합당한 은사를 받은 자는 주께 더 영광을 돌리기위한 일념으로 독신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다.(고전7:32-35,40)

영아, 유치부

과	제 목	내용	해당 과목
1	우리집에 누가 사나 ?	집이라는 건물 보다는 집안에 사는 식구로 생각하여 식구 또는 가정의 의미를 알게함	1
2	우리집 식구는 누가 만들었나 ?	식구의 개념에서 하나님이 만드시고 만드신 이유와 그 목적을 깨닫게 함	2
3	아빠와 엄마는 무엇 하시나?	아빠와 엄마가 무엇을 하시나에서 시작하여 식구의 하나 하나가 하는 일을 생각하며 그 책임을 깨닫게 함. 특히 아빠와 엄마의 수고와 사랑을 깨닫게 함.	3 (1)-(2) (3)
4	우리는 무엇 할까	부모님의 수고를 깨달음 후, 그러면 우리들은 부모님께 어떻게 할까. 형제 자매와 어떻게 지낼까	3(4)
5	우리집에 있는 걱정	그 걱정들이 무엇이며 그 원인이 무엇인지 생각하여 그 걱정을 없애는 방법을 생각해 함.	4 (1)-(2)
6	왜 아빠, 엄마가 슬퍼하시나	우리의 잘못 때문에 명러하시고 슬퍼하시는 부모님을 생각하여 자기 잘못을 깨우침.	4(4)
7	집에서 기도하나	가정에서 기도와 찬송과 예배를 드리는지 집에서 식사할때 하는 기도부터 시작하여 매일 예배에 힘쓰길.	6
8	우리집은 좋은 집 (가정)	믿는 가정의 즐거움, 해결 받은 가정의 기쁨 예수님 모심 가정이 되기를 힘쓰자	7

6-18

“가정”

유년 부

“우리 집, 우리 가족”

과	제 목	내 용	해당 과목
1	우리집에 사는 가족은 누가 시작했나	가족은 부모님 부터 시작하나 그 부모님도 다시 부모님이 계셨으로 결국은 창조에 까지 올라가며 하나님의 창조의 의미를 깨닫게함.	1
2	세상의 첫 번째 가족	하나님이 만드신 첫 가족의 애기와 라락후의 받은 가족의 고통	2(1)
3	예수님 믿는 가족	신약에서 예수님 믿는 가정들이 다시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 가정 같이 됨	2(2)
4	우리집 부모님	우리 가정에서 수고하시는 아버지 어머니의 하시는 일을 통하여 고마움을 깨닫게 하는 동시에 역시 아버지를 부르시 예수님을 생각 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깨닫게 함	3(3)
5	부모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까	자녀로서 부모님께 대한 사랑과 존경과 감사를 어떻게 표현할까.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해드릴까.	3(4)
6	부서진 집과 가족	폭탄으로 집이 부서지듯이 잘못된 죄로 가족도 부서지고 고통받고 눈물 흘린다. 그 이유와 나을수 있는 방법을 가르침.	4
7	가장 귀한것	기독교의 성경적 가치관, 세계관, 문화관 등 온 세상과 바꾸지 못하는 귀한 생명의 가치를 깨닫게 함으로 사랑으로 뭉친 가정의 귀한것을 알게함	4(4)가
8	찬송 부르는 우리집	노래라는 가족은 즐겁다. 예배 드리는 가정은 가장 행복한 가정이다. 집에서 찬송 소리가 나오며 기도 하도록 인도하며 가르침다	6
6-19			

초등 부

“우리가정”

과	제 목	내 용	해당 과목
1	우리 가족과 이웃	집과 들과 담으로 둘러싸인 고장 안에 사는 가족의 뜻 사회적 기본 단위로서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것이다. 사회에 능률 돌리면서 사회안에 가정의 의의를 생각한다.	1
2	에덴의 첫 가정	하나님의 창조하신 가정의 원형을 살펴며 현재의 가정과의 차이를 생각한다. 첫가정의 목적과 왜 그 가정이 불행 하게 되었는지를 생각하며 그 원인을 살핀다.	2(1)
3	디모데의 가족	예수 믿고 변화된 가족상을 디모데의 집에서 볼수있다 외조모, 어머니, 아들의 참된 관계에서 예수님의 가정과 비교하면서 천국 백성의 가정을 살펴본다. 신약의 새 가정상을 소개한다.	2(2)
4	부모님과 하나님	참된 부모님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람과 수고를 생각하며 깨달고 감사하면서 지상의 아버지, 어머니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이해하며 밀개된다.	3(3)
5	믿는 아들과 딸	사랑하는 부모님이 바라는 자녀상이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의 도리가 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마지막까지 순종하심으로 자기의 뜻 보다도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본을 보이셨다.	3(4)
6	누가 우리집을 슬프게 했나	가정은 언제나 기쁘고 행복하지 않다. 부모님 사이에 문제가 있기도 하고 자녀들이 유혹받아 라락하기도 하고 여러가지 원인으로 갈등이 생긴다. 이 모든것을 선점은 죄로 규정한다.	4
7	우리집은 나의 교회	주님 지난루 집에서 같은 기도를 드릴수 있고 혼자 또는 가족이 모아서 예배드리는 우리집은 나의 가족의 교회이다. 교회가 가정에서 시작 되었었다. 가정 예배를 통하여 가족이 단결된다.	6
8	나의 꿈의 집	나의 꿈, 나의 비전의 집은 열적이 에덴에 있었고 지금 온 가정이 예수님 잘 믿을때 하늘 나라에서 이룰자는 집같이 모든 고통을 이기고 슬픔을 극복하고 새로운 가정을 이룰수가 있다. 이러한 가정을 지금부터 꿈꾸며 그 실행을 위하여 준비하자.	7

부
속
장

"내 고장 내 가정"

과	제 목	내용	해당 과목
1	사회안에 가정	사회의 여러 단위중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서의 가정을 생각하며 그 가정의 역사와 의미, 목적들을 설명 이 사회의 전진성, 발전이 가정에 의지하는 바가 큰 것을 깨달음.	1
2	가정의 기쁨과 비극의 역사	하나님께서 지으신 행복한 상태의 가정을 설명하고 하나님을 떠난 가정의 비극을 배우면서 가정은 하나님 중심으로 진리대로 살아야 할것을 가르침.	2
3	나와 가족	가족안에 나의 위치와 나와 다른 가족 구성원들 사이의 서로의 책임과 의무를 생각하면서 남편, 아내의 도리등, 부자간의 관계 등 생각하여 자기 위치를 생각해 함.	3
4	병든 가정의 치료	육신의 병들과 같이 가정에도 병이있다. 우리 가정의 어려움은 무엇일까 가정의 병들을 생각하여 그 원인 을 살피고 그 치료를 성경에서 배운다.	4
5	참된 교제	사중계를 미리 준비 하면서 믿음 안에 이성교제를 지도하며 구약에 이방 여인과 결혼하여 어려움을 당한 과거를 보면서 현대 문란한 세속적인 적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도한다.	4
6	나의 제단	구약시대의 제사는 현대의 예배이다. 제단은 작주께서 돌보지 아니하면 허물어 진다. (허물어진 제단을 수축한 엘리아 성지자의 얘기 참고) 나의, 그리고 우리 가정의 제단은 어떠한가, 나의 책임이 크다.	6
7	아글라와 브리스길라의 가정	초대교회 성교 가족이며 가정에서 교회가 모인 여 품감 하고 중심된 부부의 애기로 초대교회의 선교현장을 생각 하면서 선교의, 천국확장의 핵심으로서의 가정을 생각해 본다.	7
8	나의 바라는 가정	성경의 가르침을 받온후 우리집의 현실을 보면서 내가 잔차 바라는 가정은 어떠한 가정을 원하며 만들어 갈것인지 그 비공과 현실 타개를 지도한다.	8

6-21

“영원한 가정”

과	제 목	내 용	해당 과목
1	외로운 사람	가정 떠난 사람은 외롭다. 외로운 사람위하여 동교자를 만들어 가정을 이루었다. 사춘기 때는 자주 외로움을 느끼면서 가정을 갖는 준비가 이뤄진다. 하나님의 창조의 오묘를 깨닫는다.	1
2	가정의 발전	하나님이 지으신 남 여는 첫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였지만 하나님을 배반 하였을때 자기끼리 행복할 수 없음을 알게된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참 가정이 아님을 깨닫게 된다.	2
3	서로 섬기는 가정	엡 5:21 말씀같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서로 복종하며 섬기라고 하신것과 같이 이 원리 그대로면 가정은 서로 이해하고 서로 돕는 가정이 되며 하나님의 진리의 인도를 따라 각자의 도리로 잘 이행하게 된다.	3
4	신성한 결혼	결혼과 성생활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에 따라 행할것이며 그 목적에 위배된 낙태나 쾌락만을 위한 성교등은 피하고 목적과 책임이 있는 행동이 되어야 하며 아버지와 어머니의 도리로 가르친다. 성경적 결혼의 처음을 소개한다.	3(3)
5	문제와 갈등	인간의 타락후 첫 가정 부터 문제가 일어났고 상호간에 갈등이 일어났다. 이 모두가 그 원인이 되며 그 문제는 여러가지 가정의 불화, 싸움, 이혼, 가족, 동성연애 등으로 나타나며 이 모든 해결은 하나님의 진리와 복음으로 해결하며 이기게 된다.	4
6	부끄러운 일과 거룩한 일	가정 파괴의 원인을 가운데 동성연애나, 불신자와의 결혼등이 있어 동성연애는 례 1:27에 부끄러운 일로 묘사 되었고 그 받는 반응의 결과가 묘사 Aids로 나타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반대에 청구를 위하여 동자사는 충성과 절제도 귀한 것이다. 하나님 가정 파괴요, 또 하나님 절제하는 헌신이다.	4(4) 9(2)
7	부모 공경과 조상 숭배	한국 초대 교회의 많은 핍박의 원인이 제사 반대였는데. 지금도 제사, 무당, 굿 등 성행하고 있어 부모를 장으로 기쁘게 하여 드리는 일과, 무상 숭배가 겹쳐 신앙생활에 많은 도전을 받고 있다. 참된 부모공경을 가르친다.	5
8	경전한 가정	경전은 하나님 중심의 생활로 주님과 교제와 주께 기도하고 묵상, 성경공부, 예배등으로 하나님 향한 생활이며 그것을 힘쓰는 가족이며 가정이다. 사춘기때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헌신하는 생활과 그러한 사람과 만나 결혼하기를 꿈꾸며 힘써야 하겠다.	6, 7, 8

가정

대학 부

가정의 탄생

과	제 목	내용	해당 과목
1	가정과 민족	민족의 단위는 가족이며 이 민족도 결국은 한 가정에서 시작된다. 가정은 처음부터 목적이 있었고 그 원형을 인류학에서 보더라도 우주의 근원을 말하는 성경에서 찾게 된다. 세계의 모든 민족은 에덴에서 부림의 이임이다.	1
2	사랑의 가정	첫 가정은 부부로 이뤄지고 그 사이는 가정 뜨거운 사랑과 협력의 관계 이었고 한몸을 이루는 극치였다. 아담의 사랑의 고백을 음미하며 같은 몸에서 나온 아내의 본질과 그 목적이 나타나 있어 여자의 위치가 고대 사회에서와 같이 남자의 소유물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자이다.	2 3 (1)-(2)
3	생명의 책임있는 부모	자녀의 생명의 책임을 직접적으로 부모가 져야 한다. 믿는 부모는 결혼에 대하여 책임을 느껴면서 기도중에 이뤄지며 자녀의 일생을 생각하며 기도하면서 미소를 해야 한다. 기독교의 성교목도 참 되어야 하겠다.	3 (3)
4	왜 떠나는가	한 몸이 갈라지며 죽는다. 이는 타락후 가정도 타락되어 여인의 위치는 남자가 버리는 소유물 같이 되어 아들이 행해지며 그 원인이 어디있으며 어지러워진 가정들에서 우리의 양성은 화인 맞은것 같다.	4 (1)
5	문제 있는 가정	가정을 파괴하는 문제들을 다룬다. 마음과 사욕과 갈등이 왜 있는가 왜 좌우같은 가정이 되어 버렸는가 거기서 서로 많이 안맞는 다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 가치관의 정도, 세대차이, 물질자와의 교체 및 결혼, 모두 맞지 않는 것들이다.	4 (4)
6	기독교와 관혼상제	우리나라에서 정통적으로 내려오고 우리가 흔히 보는 관습들 기독교인이 되후 어떻게 이해하며 집안에서 행해질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 할것인가.	5
7	가정의 경전 생활	예배가 하나앞에 자기를 적 나사하게 내어 받으며 복이 듯이 가정 예배는 모두가 성경 진리 앞에 자기를 순서지 않고 나란히 교제하게 되어 많은 문제의 실마리를 열게 된다.	6
8	새 가정의 탄생	가정 안에서 성장하다가 다른 가정에서 자란 사람과 결혼하여 새로운 가정이 생긴다. 새가정을 이루기 전에 신앙진리 중에 자기가 만든 새가정의 비전을 얘기 해보다. 가정에 대한 공부의 정리가 되겠다. 특히 조심 하여야 할 배우자 선택과 남여교제 법을 잘 가르쳐서 새 가정을 이루는 준비를 잘 시켜야 하겠다.	7, 8.

가정

청년 부

민음의 가정

과	제 목	내용	해당 과목
1	가정의 재창조	창된 가정의 원형을 성경안에서 배우면서 자기들의 가정과 비교해 믿음으로 다시 만들어지는 새로운 가정의 모형을 찾는다.	1. 2.
2	그리스도안의 남편	내가 현재(그리고 장래에) 올바른 남편이 되겠는가. 성경적인 참 남편상을 공부하면서 반성해 본다. 성경에는 남편을 주님과 신부인 교회와 비교하 가르치신다. 그리스도에게서 참된 남편을 복수했다.	3(1)
3	주님의 신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교회를 통하여 아내의 도리를 가르치시고 계신다. 믿는 여자는 세속 여자와 달라야 하겠고 더욱이 믿는 아내는 주님 설기듯 좀 달라야 하겠다.	3(2)
4	자녀에 대한 책임	그 책임이 자녀의 출생하기 전부터 시작한다. 믿는 부모는 기도로 아이를 갖어야 하겠고 기도로 진리 중에 키워야 하겠다. 무책임한 성행위와 낙태는 자녀를 죽이는 선택이다.	3(3)
5	한몸의 표시	결혼은 한몸을 이루기 때문에 맘도 같아져야 한다. 맘이 같아질려면 생각을 서로 이해해야 하겠고 그러기 위하여 대화를 힘쓰며 참고 들어주며 서로 도와주는 자가 되어야 하겠다.	3(5)
6	시험받는 가정	에덴에 사탄이 나타났듯이 시험은 믿음의 가정에도 나타나 가정의 파괴를 원한다. 시험은 성경의 잘못된 해석, 이기주의, 미움 등등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위의 위기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4
7	정통의 물질속에서	우리나라 재래의 여러 풍습은 여러 토착 종교의 관습에서 유래되는 것이 많아 신자 가정생활을 어렵게 만든다. 올바른 판단과 경계심으로 이 위상승배의 누룩에서 이겨야 한다.	5
8	주님 기뻐하시는 가정	가장의 리더십 아래 온 가정이 예배로 일치되고 개개인 이 기도와 묵상으로 주님과 교제하며 천국 확장의 묘생에서 가정은 복음전선에 참여하고 항상 비순종에 시로워지는 가정을 생각 한다. 아직도 미혼인 청년들을 위하여 계속해서 남여 교제법과 배우자 선택의 올바른길을 제시하며 준비시켜야 하겠다.	6. 7.8.
6-24			

“가정”

장년 부

“성숙한 가정”

과	제 목	내 용	해당 과목
1	교회와 가정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두개의 제도는 서로 상통되는 점이 많아 비로하면서 교훈이 되어 있어 하나님의 뜻과 그 목적은 가정을 통하여 또는 교회를 통하여 이뤄진다.	1
2	이상과 현실의 가정	이상으로 시작했다가 현실은 너무 냉랭과 돈떨어진다. 현실을 반성해보는 것은 성경역사를 통하여 할수있다. 어느 사대에 타락의 요소가 많이 들어와 있다.	2
3	어디서 떨어졌는지	우리가 배움 도리대로 행했는지 남편, 아내 각각 살펴며 이 모든것이 자녀에게 주는 영향을 같이 생각한다.	3 (1)-(3)
4	우리들의 열매 : 자녀	자녀에게 한 교육을 생각한다. 자녀는 부모가 사는데로 살기 마련이다. 신앙교육, 세속학문 교육. 자라나는 교육. 성교육을 믿음 안에서 가르치고 있는지.	3 (3) 가-나
5	갈등의 해결	소위 권태기에 오는 사람은 성경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 하여 실행한다. 이론을 하는 핑계중에 사탄의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천국을 파괴 하려고 한다.	4 (1)
6	사랑하는 자 사이의 믿음	이 말은 아주 모순된 말인데 실제로 일어난다. 제일로 사랑하여야 할 사이에서 가장 싸운다. 근본적 으로 문제가 있다.	4 (2) (4)
7	풍습과 경건 생활	사회 생활이 가장 완성된 이 시기에 세상의 여러 풍습을 당해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성경의 올바른 지식과 해석을 원한다.	5. 6
8	성숙한 가정	가정 구성원 하나 하나가 다 믿음의 생활할때 즉, 기도와 묵상, 가정예배를 통하여 영성이 성숙해 질때 천국 영광의 핵심생활 감당하는 열매 맺는 가정이 되겠다.	6. 7. 8
6-25			

가정

새가정 부

새로운 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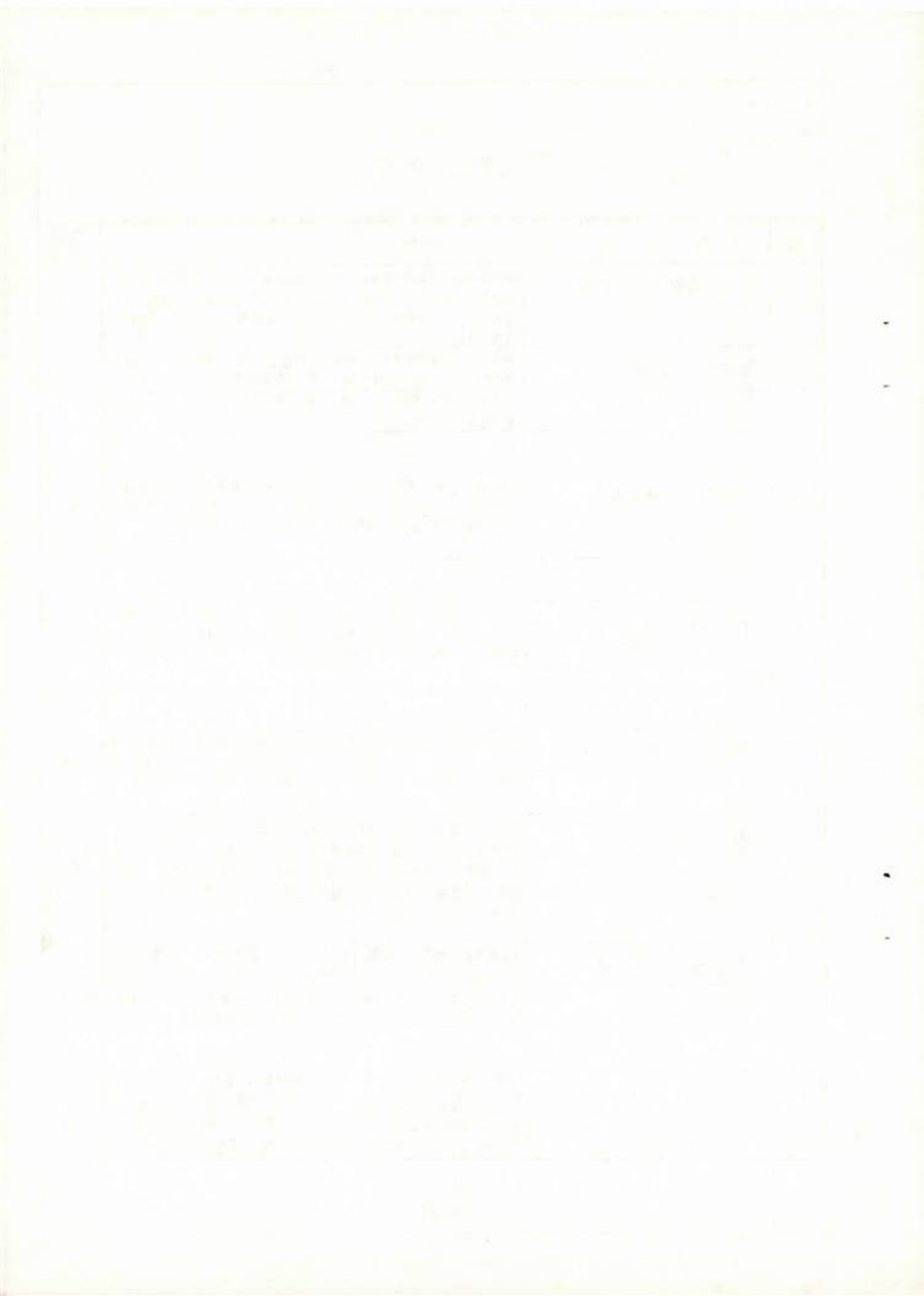
과	제 목	내용	해당 과목
1	하나님이 지으신 새가정	가정의 성경적 유래를 가르침으로 기독교 가정관의 시작을 보이면서 현재의 자기의 가정과 비교 시켜면서 가정의 의의와 목적을 재확인 한다.	1
2	성도의 가정	성경이 가르치는 새가정은 이스라엘의 가정이며 종생한자의 가정이다. 우리는 신약의 가정의 교훈을 통하여 예수 믿는 신자의 가정이 어떠 하였는지 배우게 된다.	2
3	새가정의 머리	가정의 머리는 남편이지만 교회의 머리되신 주님은 또한 성기 위하여 오신것과 같이 집안의 왕이지만 온집안의 성기는자로서의 참된 남편의 위치와 도리를 주지시키며 확립 시키자.	3(1)
4	진주보다 귀한 해숙한 여인	하나님이 지으신 여인은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그 가치는 영원하다. 아내의 도리와 어머니의 할일을 생각하며 믿는 여인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참고 이기는 영원한 여인상을 심는다. (잠언 31:10)	3(2)
5	사랑의 열매	하나님의 명령과 목적따라 생육하는 책임을 가정이 갖는데 아이를 낳기전부터 기도하며 경건한 생활로 태교를 하여 아이들을 믿음으로 기르는 모든 과정을 살피며 기독교인 부모로써 정립 한다.	3(3) -(5)
6	강박한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	예수님이 지적하신 이혼의 이유는 마음의 강박함이다. 이혼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살피고 가정의 비극적인 원인들을 공부하며 이같은 마음을 부드러운 맘으로 바꿈과 새가정을 이루는 모든 집리를 배운다.	4
7	부딪치는 성벽들	가난한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성벽들을 만나 힘들었다. 믿기 시작하면 많은 방해가 오는데 그 중에 가정과 사회에서 해해지는 이방종교에서 오는 관습 등이 있다. 이것들을 잘 설명해 새가정이 당하는 시련을 이기며 승리의 생활을 할수 있도록 한다	5
8	심령이 새로운 가정	진정한 새로운은 밖으로 부터 시작하여 속이, 심령이 새로와 짐으로 이뤄진다. 날로 새로와 지기 위하여 매일 같이 제단을 쌓고 기도하며, 묵상하며 가족과 함께 예배드리며 이 가정이 새로와 집으로 성장하여 천국 확장 의 일선에 설수있는 가정이 되며 언제나 성경적 가정의 비전을 향해 정정한다.	2 8.

“가정”

노년 부

“소망의 가정”

과	제 목	내 용	해당 과목
1	다시 출발하는 가정	하나님께서 노년에도 가정을 부르셔서, 아브라함과 같이 사명을 주시다. 가정의 의미는 지 겸토 하며 소임받는 준비하자. 75세에 아브라함은 소임 받기 위하여 다시 출발했다.	1
2	노아의 가정	배를 다 만들었을 때 600세 이었고 온 집안이 노아를 따랐고 노아는 하나님께 다 순종하였다. 노년때 잘 믿음으로 자손들을 다 구원한다. 아직 일이 끝난것이 아니다.	2
3	백발의 명류관	믿음으로 살면 명류관이고 철저히 하지 못하면 비참하게 끝난다. 노년때의 부끄러움의 도리는 그의 지혜와 경험을 주를위해 유익하게 받쳐야 하겠다.	3
4	나오미와 룯	나오미가 룯을 만들었고, 룯이 나오미를 만들었다고 하겠는데,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다. 고부간의 어려움은 양쪽 다 변화되어야 하겠다.	4
5	체면과 신앙	사회 생활에 체면유지 때문에 신앙에 철두철미하지 못할 때가 많다. 비신앙영향을 알면 단호하게 거절하며 폐지해야 하겠다. 사회의 관습 때문에 또는 제사 등 재래적 무신 숭배를 단호히 지도하여야 하겠다.	4(3) 5
6	여호수아의 호소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어 일생을 바친 여호수아가 자기 동족에게 마지막으로 호소하는 말을 통하여 여호수아의 깊은 신앙을 지키며 이스라엘 민족은 거룩한 백성을 유지했다. 가정예배의 리더가 되며 개인의 정정 생활로 부흥 보이자 (수 24: 15 ~ 16)	6, 3(2) 다
7	아직 남은 경주들	4도바들은 경주를 마쳤다고 (딤후 4: 7) 감사했다. 복음 증거 위하여 가정을 노년때 더 큰 역할한다. 할머니 때문에 영향 받은 성도들과 주의 종들은 디모데를 위시하여 무수히 많다. 천국 확장을 위하여 어느때 보다 중요한 때다.	7, 8 3(2) 다
8	소망의 가정	자기가 속해있는 가정을 위한 마지막의 봉사는 새로운 가정의 창조를 끊임없이 이루고 하늘의 아버지 앞에 새로운 천국 가정에 소망을 두며 특히 이때 홀로된 분들의 신앙생활과 가정 생활은 소망과 헌신으로 특징 지운다.	8, 9



주 제: 이 옷

은형철 목사

이 웃

교육목표 /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으므로, 인간은 누구나 형제이며, 공동체를 이루어 더불어 살도록 지어졌음을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성도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사명을 감당하게 한다.

1. 이웃에 대한 하나님의 뜻

성경에 나타난 이웃에 대한 핵심적 교훈들

1) 레 19:18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웃에 대한 행위를 율법의 조항으로 분명히 명시해 놓으셨다 (출 20:17-17) 이웃 사랑하기를 자기처럼 사랑하라 고 말씀하셨다. 이는 이웃 상호간에 피차 도덕적인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피차의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말씀이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하셨다. (출 22:5-15, 25-27, 레 6:2 이하, 레 19:9-18, 25:13-17, 25-28)

율법에 의하면 이웃을 해하는 것은 악한 행위이며, 따라서 이웃에 악한 행위를 하면, 그에 상응하는 보응을 받아야 했다. (레 24:19-20, 신 19:11-13, 신 27:24) 이웃을 해하는 것은 마치 자기 형제를 해하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했다. (신 15:2, 렘 34:9, 17)

그러므로 구약에서는 이웃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삶의 윤리적 정당성의 여부가 결정되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도덕적 분열을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으며, 이러한 도덕적 분열은 사회적 분열의 원인이 되었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징벌을 초래하게 되었다. (사 3:5, 렘 9:4-9, 미 7:5-6)

- 2) 신약에서도 구약의 이웃에 대한 율법의 교훈이 그대로 강조되고 있다. 레 19:18 의 말씀이 10여차례나 인용되면서 이웃 사랑에 대한 교훈이 거듭되고 있다. (마 5:43, 19:19, 22:39, 막 12:31, 33, 눅 10:27, 롬 13:8, 9, 갈 5:14, 약 2:8)

- 3) 특히 신약시대에 예수님은 이웃 사랑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강조하셨다. (마 22:39-40, 막 12:31)

유대인들은 연수는 미워하라고 가르쳤으나,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된 인식을 세롭게 하셨다. 연수 까지도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도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치셨다. (마 5:43-44)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이웃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고, 그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의무임을 강조하셨다. (눅 10:37)

- 4) 사도 바울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구원의 문제를 다룬 다음, 구원받은 백성들의 책임과 의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롬 13:8-9, 갈 5:14)

바울은 피차간에 사랑의 빛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고 하였고 (롬 13:9), 피차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정의했다. (롬 13:10)

- 5) 야고보도 살아 있는 믿음의 표현중에 하나가 이웃을 사랑하는 생활이라고 강조하였다 (약 2:1-13)

2. 이웃이 누구인가?

1) 용어적 의미

(1) 영어

• NEIGHBOUR : 가까이에 거하는 사람을 가르킨다.

(2) 히브리어

- נָחַד : 친구, 동료로 의미 한다.
- גִּבּוֹר : 가까운 사람을 의미한다.
- גִּבּוֹר : 주민, 동료 시민을 의미한다.
- נִמְנֵם : 친구, 고 제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3) 헬라어

- γείτων : 인접한 지역에 사는 사람을 의미한다.
- περίοικος : 가까운 사람을 의미한다.
- ὁ πλησίον : 근처에 사는 가까운 사람을 의미한다.

용어적으로 볼 때에는 지리적으로 가까이 있는 사람을 이웃이라고 칭하며, 취향이나 기호가 비슷하여 서로 고 제하는 사람들을 이웃이라고 칭한다.

2) 구약에서의 의미

구약에서는 이웃은 일반적으로 하나님과의 언약관계에 있는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는 형제와 유사한 개념을 가지기도 했다. (레 25:25, 35:36, 39, 47, 신 15:2-3, 7, 11-12, 17:15, 19:18-19, 22:1-4, 23:7, 19-20, 느 5:1이하, 렘 34:8, 17)

그러나 구약에서도 이웃이란 용어가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애굽과 같은 이방인들을 의미할 때도 있었다. (출 3:22, 11:2, 겠 16:26)

3) 신약에서의 의미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웃을 이스라엘 사람으로 한정시켜 생각해 왔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인인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 하라고 가르쳤다. (마 5:43)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가진 이웃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철저히 수정하셨다.

이웃이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원수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명백히 말씀하셨다. (마 5:44) 그러므로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웃은 모든 사람, 즉 모든 인류를 포함하는 것이다.

신약에서 이웃에 대한 정의가 가장 잘 설명된 부분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이다.(눅 10:25-37)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이웃이란 지역적 구분, 지리적 구분, 인종적 구분, 종교적 구분, 사회적 신분상의 구분 등에 의하여 제한받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신 것이다. 이웃이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이며,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풀고 그들의 필요를 도와준다면 내가 그들의 이웃이 되는 것이다.

3. 이웃에 대한 선행

1) 동 기

신자와 불신자의 이웃에 대한 선행이 외형적으로는 동일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듯하지만, 그 동기는 전혀 다르다. 불신자들이 이웃에 대하여 선행을 가르치는 것은 인간성이나, 윤리성이나, 사회성이나, 문화적 전통에 호소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이웃에 대한 선행의 동기는 인간다운 도덕성이나, 사회적 윤리성이나, 문화적 전통성을 초월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이웃에 선행을 해야 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그것이 복음적인 명령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일 뿐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가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시는데 그 목적이 있기도 한 것이다.(딤후 2:14, 엡 2:8)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신앙한다면, 필연적으로 이웃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명령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히 여기셨고,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시면서, 너희들도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이웃에 대하여 행하여야 한다고 명령하셨다.(엡 4:32, 5:1-2, 요일 4:11)

(1)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그대로 인용하여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명령하셨다. (마 19:19, 22:39) 왜냐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기 때문이며 (마 22:37-40),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마땅한 표현이기 때문이다. (요일 4:20-21) 그러므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그리스도인의 삶의 부족한 면이 아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불신이고, 예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불순종이고,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거부하는 불의함인 것이다.

(2) 하나님께서 이웃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창 1:26, 27) 그러므로 피조된 만물이 모두 조물주에게는 귀한 것이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만큼 귀한 존재는 없다. 하나님은 인간을 귀히 여기신다.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지으신 인간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구원을 개

획하시고, 성취하셨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이웃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선을 베푸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들이 서로 행해야 하는 마땅한 일이다.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을 사랑하시기에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취게 하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신다.(마 5:43-48)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형제나 자기를 사랑하는 이웃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선을 베풀다면 이는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에게까지도 선을 행하라고 하셨다.(마 5:44)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들의 생명이 경시되고, 그 인격이 무시되고, 그 행동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증오하며, 삶을 소외시키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정당화 될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그가 창조하신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 하심을 이루는 것이다.(마 5:48)

(3) 하나님께서 이웃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일 4:8)

인간은 하나님을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났으나, 하나님은 불순종하여 떠난 인간을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불순종하여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신 하나님은 (창 3:9) 모든 인간이 구원에 이르기를 기뻐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친히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찾아가신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롬 5:8)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고 (요 1:4, 3:16, 요일 4:9),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확증하셨다(롬 5:8)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요일 4:10)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이웃을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고, 그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는 것이요, 하나님을 닮는 것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4)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자들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고난의 길을 걸으셨으며,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자기 목숨까지 버리셨다 (요일 3:16) 이러한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의 빛을 이웃을 향하여 갹하여야 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마땅한 바이다. (요일 3:16-17)

예수님께서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 (요 15:12)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비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세상 사람이 알게 되고 (요 13:35),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세상이 알게 된다 (요일 3:19)

(5)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이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사 43:7, 21, 고전 10:31, 롬 14:7-9, 빌 1:20-21)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형태는 다양하다.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착한 행실을 가질 때, 특히 이웃을 향하여 선행을 행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마 5:16)

2) 자 세

주님은 모든 계명을 두가지로 크게 구분하셨다(마22:37-40).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두가지가 율법과 선지자가 강조한 것들이라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생각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없는 하나님 사랑은 거짓된 것이고(요일3:10),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없이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제물을 드리다가 이웃과의 관계인 형제에 대한 원망들을 만났던 문제가 있으면, 가서 화목하고(형제사랑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신 것이다(마5:23, 24).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의 사랑과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의 사랑을 함께 강조해야 한다.

그런데, 이웃 사랑에 대한 원리를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일까?

(1) 자기 자신같이 사랑할 것 (이웃사랑의 능동, 마음가짐)

주님은 “네 몸같이” 사랑하고 말씀하신다. 사랑의 정도를 말씀하시는 것이다. “네 몸과 같이”라는 말씀은 우리가 자신을 얼마나 아끼고 돌보는지 생각하게 한다. 이웃 사랑의 정도가 비상적이고, 외형적인 것이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자신을 구체적으로 돌아보며 아끼듯 이웃을 사랑할 때도 그리해야 한다는 말씀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몸을 위해 얼마나 애쓰는가? 굶지 않으려고, 옷 잡으려고, 공부하려고, 좋은 지위를 얻으려고, 또 건강하게 하려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도 같은 마음 자세와 동기를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자신의 양심을 달래려는 격선이 아니라, 이웃에 대한 사랑과 돌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돌보고, 아끼고, 섬겨야 한다는 것이다. 이 원리를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 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빌2:4)고 말씀한다.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용납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이 전제된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은 먼저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자신을 사랑하고 용납하는 법을 익혀야 할 것이다. 그런데, 올바른 자기 사랑은 결코 이기심이나 자기 교만에 근거해서는 안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고 받아주신 그 은혜에 근거해야 한다. (요일3:1, 3:16, 엡4:32, 골3:13)

『교육 방향과 내용』

자기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강조할 때, 다음의 두가지 점에 초점을 맞추자. 첫째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생각해보게 한후 이웃에 대한 사랑의 농도도 그같이 해야 할 것을 강조하자. 둘째,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지를 검토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로 먼저 자신을 받아들이게 하고 이러한 사랑으로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게 하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받고 우리도 형제들(좁은 의미의 크리스찬 형제라기 보다, 넓은 의미의 이웃형제로 보는 것이 좋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요일3:16)

(2)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할 것(이웃사랑의 동기와 방법)

이웃사랑의 자세에 대해 생각하면서 주의해야 할 것은 사랑과 섬김의 방법에 대한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사랑의 표현이 이웃을 돕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다. 주님도 많은 선을 행하셨다. 그 동기는 사랑때문이었다. 주님은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마14:14; 20:34; 막1:40,41).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사랑때문에 생긴다. 주님은 도움받아야 할 자들을 사랑하시고 도와 주셨다. 이웃 사랑의 행태는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한다. 말과 허보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이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요일3:18).

그러나, 주님은 잘못된 동기와 잘못된 자세로 돕고 사랑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조하신다. 마태복음6:3의 말씀은 분명하다.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하여, 자신이 남을 돕고 사랑한다는 것을 과시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시는 말씀이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조금 도우면서 과대 선전을 하려고 한다. 그것은 위선이며 진정한 사랑도 섬김도 아니다. 사랑표현의 동기는 이웃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어야 한다. 그래서 그 방법도 과시적이지 아니라, 실제적이어야 하고 은밀해야 한다. 은밀하다는 것은, 반드시 다른 사람이 몰라야만 한다는 것이라기 보다는 그 동기가 바르고 선해야 한다는 것이고, 돕는 방법에 있어서도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람들앞에서의 구제는 오히려 받는 이로 하여금 수치를 주기도 한다. 연약한 사람이야 그것이라도 필요하겠지만, 결코 진정한 이웃사랑의 모습은 아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은밀한 중에 계시는 너의 아버지"라 칭하시면서 "은밀한" 동기와 방법에 의한 사랑의 섬김을 받으시고 갚으실 것이라 말씀하신다.

「교육방향과 내용」

이웃 사랑은 피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인 행동을 수반한다는 점을 알려줘야 한다. 그러면서 이웃 사랑의 표현이 외식적이고 과시적일 때 오는 피해를 깨닫게 해주자. 주님의 말씀처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도 모를 정도의 "은밀한" 섬김과 사랑이 주는 영향력을 생각하게 해주자.

(3)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사랑으로 사랑할 것(이웃사랑의 구체성)

주님께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하셨을 때,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하고 묻는 율법사가 있었다(눅10:27-37). 여기서 주님은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신다. 비유를 끝내시면서 주님은 그에게 "누가 이웃인가?"고 반문하신후, "가서 너도 이와같이 하라"고 말씀하셨다. 나의 이웃이 누구인지를 묻는 사람에게 주님은 누가 자신의 이웃인지를 묻지 말고, 오히려 이웃이 되어줄 것을 강조하신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사랑할 이웃이 특별히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 주위를 돌아보고 사랑의 대상인 이웃을 찾아 만들어야 한다는 진리를 가르쳐준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사랑했고, 어떻게 이웃이 되었는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 옷을 벗기우고 맞고 거의 죽게된 사람이 있을 때, 당시의 종교지도자인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장면을 보았지만 피해 지나간다. 이들은 얼마나 이웃 사랑에 대해 많이 알고 있던 사람이었는가? 그러나, 놀랍게도 당시 유대인들로부터 복종한 헬인들이라고 멀리받던, 어떤 사마리아인은 달랐다. 도와줄 상황을 보았을 때, 피하지 않았다. 불쌍히 여겼다. 그리고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나중을 부탁하기까지 했다. 이 사마리아인의 사랑은 결코 피상적이지 않다. 상당히 구체적이다. 그리고 세밀하다. 이웃사랑은 이때야 한다. 일과성 과시적인 구호에서

도 안되고, 우리의 양심을 달래기 위한 선행이어서도 안됩니다. 연약한 이웃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채우며 세밀하게 돕는 사랑이어야 한다. 또 우린 이 비유를 통하여 진정한 이웃 사랑은 자기 희생이 뒷따른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이웃사랑은 가진 것을 나누어야 하고, 시간을 드려야 하고, 마음과 정성까지 드려야 하며,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랬듯이 일시적인 것이 아닌 계속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교육방향과 내용」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해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일러주어야 한다. 그리고 이 비유가 복음전도의 목적을 위한 것이기 보다는 이웃에 대한 선행을 도전하기 위한 비유임을 알아야 하겠다. 첫번째 이 비유를 통해 교훈얻어야 할 것은, 선한 사마리아인은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오히려 원수처럼 지냈던 유대인을 돕는다는 점이다. 우리의 선행과 이웃사랑은 우리와 관계된 사람이나 믿는 형제들을 위한 것은 아니다. 또 복음전도의 목적만을 위한 선행이어서도 안될 것이다. 영혼구원의 열매를 얻게 된다면 가장 감사해야 할 것이지만, 이웃사랑은 조건없이 행해져야 한다.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얻게 되는 또 한가지 큰 교훈은 이웃 사랑은 매우 구체적이어야 하며, 이웃사랑에는 우리의 희생이 따른다는 것이다. 주님의 십자가 희생이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우리의 희생이 이웃을 복되게 한다.

3) 상 벌

이웃 사랑은 명백한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상을 약속하시고, 그렇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분노하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유대에 대하여 분노하셨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숭배하였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또 한가지는 그들의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사5:8; 암4:1,5; 11,12; 미2:1,2; 숙7:9-12). 이웃사랑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분노는 크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서로 싸우면서 하나님앞에서 금식하며 제사드리는 것을 싫어하셨다. 그리고는 이웃사랑의 모습을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라 부르셨다. 하나님은 그의 원하심을 따라 이웃사랑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다음과 같이 약속하셨다. "그리하면 네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네 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와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달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사58:6-11)

(1.) 소자에게 행한 것이 주님께 행한 것

사람들은 주님께 많은 것을 드릴려고 애쓴다. 그리고 그 본에 얼마나 헌신되었는지 나타내기를 원한다. 그러나, 정작 주님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같다. 주님은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엄밀한 의미에서 볼 때, 이 말씀은 비유가 아니라 마지막 날 인자가 영광 가운데 올 때에 대한 사실적인 묘사이다. 양과 염소라고 칭한 부분만 비유적인 것이다)에서 사람들을 양과 염소로 구별하겠다고 하셨다. 주님이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기준으로 제시하신 것은 "소자에게 한 것"에 대한 것이다. 양으로 구별된 이들에게 주님은 그들이 주님을 돌보고 사랑했음을 말씀하신다(35,36절). 그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다. 물론, 양으로 구별된 이들에게는 이같이 주님을 섬긴 기억이 없다. 그러나, 주님은 소자(적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자신에게 한 것이라는 말씀을 주신다. 염소로 구별된 이들에 대한 기준도 "소자(적은 자)"에게 무엇을 했느냐 하는 점이다. 염소는 자기 주변의 이웃인 소자에게 아무런 도움도 베풀지 않음으로써 저주를 받는다. 무서운 일이다.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다. "이웃을 사랑하라." "내 주변에 있는 소자, 연약한 자들을 돌보라." 그외의 어떤 말씀으로 이 말씀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이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야 한다. 이웃사랑없는 주님사랑은 거짓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자는 오히려 더 큰 것을 얻는다는 교훈을 우린 보고 있는 것이다.(참조, 잠11:24-25, 잠19:17).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하여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한다. 주님을 믿는 것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고, 행위(이웃사랑, 선행)로 구원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물론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롬1:17; 엡2:8,9; 딤후3:5). 그러나, 야고보가 강조하듯이 믿음은 그 행함으로 증거를 보여야 한다(약2:18). 행함없는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도 "사망으로 역사하는 믿음"(갈5:6)이라고 말했던 것이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은 우리를 변화시켜서 이웃사랑으로 나아가게 한다. 참된 이웃사랑과 거짓없는 형제사랑은 우리가 구원받은 결과이다.

「교육 방향과 내용」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사랑, 즉 소자에 대한 섬김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어야겠다. 양과 염소에 대한 말씀은 다른 구절도 대신할 것이 없다. 이웃사랑과 소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랑과 섬김에 대한 본명한 언급이다. 소자에 대한 모든 것을 주님이 잊지 않으시고 갚으신다는 진리를 가르치자. 그리고 구체적으로 소자들을 어떤 자인지를 생각하게 하자. 이 부분에서 믿음과 행함에 대한 관계에 대해 설명해줄 필요가 있다. 은혜와 믿음이 구원의 원인이라면, 행함은 구원의 결과이다.

(2.)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행20:35).

바울이 떠나면서,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놓고 자신이 어떻게 주는 삶을 살았는지 증거했다. 바울은 자신이 주는 삶을 살았던 것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기 때문이었다고 말한다. 바울은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허비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시간과 생애를 드렸고, 예루살렘에 있는 어려운 이들을 돕기 위해 자신은 장막집을 일음 하면서 마게도나인들에게서 헌금(구조금)을 걷어 보내주기도 했다(고후8:1-4).

주님의 생애도 주는 생애였다. 연약한 이들을 고치고, 논변 자를 보게 하며, 구원이 필요한 이에게 생명을 주셨다. 그는 사람들로부터 아무 것도 받지 못하고 심지어 조소와 멸시를 받을 때라도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고, 결국 그는 우리들을 죄에서 해방시키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하셨다. 그 결과 사람들은 회복을 받았고, 우민 생명을 얻었다.

그런데, 주는 자가 받는 복은 어떤 것인가? 단지, 희생과 봉사와 고생만인가? 그렇지 않다.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큰 자이다. 그리고 더 풍성한 자이다. 우리의 경우를 보아도, 주는 자가 더 큰 자요, 풍성한 자이다. 그러나, 우리가 큰 자이기 때문에 주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주는 것이 주님을 닮는 모습이고, 주는 일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일이기 때문에 가치있고, 감사할 일인 것이다. 내게 무언가를 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자. 내가 가진 조그마한 물질과 지식과 직분과 달란트로 이웃에게 무언가를 주고 섬길 수 있음을 감사하자.

하나님은 주는 자를 복되게 하신다. 바울의 생애는 드리는 생애였으나 바울의 이름은 오늘날까지 높임을 받고 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더욱 드리는 삶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높혀 만군의 주가 되게 하셨다(빌2:6-11).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따라 사망으로 자신을 내어 주는 이들에게 더 큰 것으로 갚으신다.

「교육 방향과 내용」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을 따라 주는 삶을 살 때 받는 복이 어떤 것인지 생각하게 하자.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감사할 자이고, 더 복받은 자이다. 다른 이들에게 무언가를 나누어 줄 수 있고, 도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말해주자. 주는 삶은 주님이 사신 삶이다. 우리도 주님처럼, 주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감사할 거리요, 복이다.

(3) 영벌과 영생

(위의 1번과 중복이 됨) 이웃사랑으로 영벌과 영생을 가릴 수 있는가? 그러나, 주님은 이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주신다. 마태복은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주님은 한 쪽은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아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하시고 또 다른 쪽에 있는 이들에게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고 하신다. 영생과 영벌에 대해 이처럼 분명한 구분이 있을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다른 말이 필요할까? 물론, 이 말씀은 1번에서와 같이 믿음의 결과로 말미암는 행함에 대해 강조하시는 말씀으로 생각해야 한다. 실제적인 이웃사랑에 대해서 말이다. 덧붙여 강조한다면, 영벌과 축복의 정도에 대한 것이다. 조그마한 이웃사랑의 결과, 얻는 것은 “영원한 나라의 상속”이라는 엄청난 것이다. 반면에 이웃사랑이 안한 결과 얻게된 영벌은 더 엄청나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한 영영한 불”. 얼마나 무시무시한가? 하나님이 이웃사랑, 소자 돌봄에 대해 얼마나 강조하고 계시는지를 우린 알 수 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누가복음 16장의 “거지 나사로 비유”(19-31절)이다. 이 부분은 흔히 내세에 지옥과 천국이 있음을 증거하는 대표적인 구절로 인용된다. 그런데, 이 비유는 “양과 염소 비유”와 상당히 유사한 점이 있다. 이웃사랑의 문제가 중심주제로 나온다. 부자는 사치스럽게 살면서 그의 대문에 누워있는 거지 나사로를 외면했다. 그 결과, 그는 음부의 고통중에 거하게 된다. 이 비유는 교리적인 많은 진리(중간기 상태에서의 음부와 아브라함의 품-낙원의 존재, 음부에서 낙원으로 갈 수 없다는 점, 한 번 죽으면 끝이라는 점등)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부자가 돌아보아야 할 사람이었던 거지 나사로를 돌아보지 않음으로서 얻게될 심판에 대해 강하게 말씀하고 있다.

「교육 방향과 내용」

1번과 중복이 되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영생과 영벌의 심각성에 대해 강조하는 것이다. 이웃사랑의 결과, 얻게되는 놀라운 축복과 이웃사랑을 동한히 한 결과, 얻게되는 엄청난 저주를 심각하게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다. 누가복음 16장의 “거지 나사로 비유”도 참고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이웃에 대한 전도

이웃에 대한 사랑의 최고의 표현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들린 자들을 고치시며, 슬픔 당한 자들을 위로하시고, 배고픈 자들에게 떡을 먹이시면서 그들을 사랑하셨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여기에 머물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다(마 23:37-38)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으로도 만족하지 아니하셨다. 예수님은 참 빛으로서 세상에 오셔서 각 사람에게 비추셨고(요 1:9), 하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며, 죄를 사하여 주시며, 죽은 영혼에게 생명을 주셨다.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성숙한 삶이었다.

그리스도인들의 이웃에 대한 선행은 단순한 관심이나 도움이나 동정심이나 자비를 베푸는데 머물러서는 안된다. 예수님처럼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웃을 향한 최고의 사랑이요, 봉사임을 기억해야 한다.

바울은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빛진 자라고 하면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자에게 복음 전하기를 힘쓰노라고 했다(롬 1:14-15) 바울은 자기 형제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자기 자신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찌라도 원하는 바라고 했다.(롬 9:1-3)

진정한 이웃 사랑은 이웃의 현상적 삶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이웃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이웃의 영혼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여 주며, 이웃으로 하여금 구원을 얻기 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웃에 대한 우리들의 사명이요, 책임이다.(마 28:19-20, 행 1:8)

5. 이웃 사랑을 저해하는 세 요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웃 사랑을 몰라서 하지 않는 경우는 드물다. 물론, 항상 이웃 사랑에 대한 메시지가 강단에서 넘쳐야 하겠고, 교훈이 잘 전달되어야 하겠지만, 실상 우리는 이 교훈을 몰라서 행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우리에게서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는 여러가지 것들이 있다. 다음에서 이웃 사랑을 저해하는 여러가지 요인들을 살펴해보도록 하자.

1) 자기에

여기서 말하는 자기에란 올바른 의미의 자기 사랑(self-respect)이 아니다. 올바른 자기 사랑은 자신의 모습을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르게 받아들이는 건강한 자아상(self-image)이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듯이 나도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나, 잘못된 자기에(self-seeking)는 병든 이기심(egoism)에서 나온다. 다른 이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빼앗아 가는, 그래서 자기의 이익에만 몰두하게 만드는 자기에란 부패한 마음에서 나오는 말세의 징조이다(딤후3:2-4, "자기 사랑, 자궁, 교만, 무정, 자고").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마16:24, 참고, 눅14:26),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잘못된 자기에를 부정하는 것이다. 잘못된 자기에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이다. 이렇게 볼 때, 자기에를 버리지 않고서는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게 된다. (부동산 투기등과 같은 잘못된 일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이웃에 대한 무관심과 자신에 대한 이기적인 욕심에서 비롯된다.)

2) 욕심(특히 물질에 대한 욕심)

잘못된 자기에란 먼저 우리를 이웃에 대해 눈을 감게 하고, 그 다음에는 물질의 노예가 되도록 만든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이웃사랑할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 성경은 탐심을 우상숭배라 했다(골3:5). 그것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바라보게 하며, 숭배까지 하게 한다(마6:24). 그래서 요한은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욕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요일2:16)을 피할 것을 명했다.

특별히 주님은 탐심에 눈이 멀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되,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했던 부자의 허탄한 자만에 대해 책망하셨다(눅12:16-21). 이 부자는 자신을 위하여 물질을 계속하여 쌓아두기에 바빴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나눔 줄을 몰랐다.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을 전혀 돕지 못할 만큼 가난한 사람은 없다. 아무리 가난한 과부라도 소자에게 물 한컵은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탐심으로 눈이 가리온 사람은 전혀 남을 도울 수 없다. 물 한컵의 여유가 그에게 없기 때문이다.

3) 교만

잘못된 자기애가 사람들을 도울 수 없게 만든다면, 남들보다 뛰어났다고 생각하는 교만은 다른 사람에 대한 도움이 거짓된 것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때론 교만한 사람도 자선금이나, 구제금에 선뜻 기부할 하곤 한다. 그러나, 그 동기는 자기 과시이며, 그릇된 아량의 표현에 불과하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많은 구제를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들의 구제가 결코 가치있게 비쳐질 수 없는 것은, 그들은 근본적으로 자신들을 우월하게 보았고, 그런 관점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과시적으로 구제하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멸시하신다(약4:6; 벰전5:5; 록18:14).

이웃사랑의 동기는 자기 우월이어서는 안된다. 이웃사랑의 동기는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며, 상대방을 세워 온전하게 해주고자 하는 사랑이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을 나누는 것이 "적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나누는 "형제공급"이어야 하는 것이다.

특히, 교만은 물질의 나눔뿐 아니라, 서로의 교제와 사랑에 있어서도 관계를 파괴시키는 죄이다.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미소를 빼앗고 대신 상처와 눈물을 준다.

4) 겸시의 부족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없을 때, 우리의 마음은 궁색해지고 좁아진다. 이웃 사랑에 대한 조그마한 여유도 없어진다. 이웃사랑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감사가 그 기초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있을 때, 우린 더욱 형제와 이웃을 생각하며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편 이웃이 보내준 사랑에 대한 감사가 없을 때, 우린 더욱 매달라진다. 형제가 내게 베풀어준 사랑, 이웃이 내게 베풀어준 사랑에 대해 우린 하나님과 이웃에 감사해야 한다. 바울은 결코 사랑에 대한 감사를 숨기지 않는다(고후9:11-15; 몬4,7; 빌1:3). 바울은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나눔을 베풀 형제들에게도 감사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러한 것이 사람들을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두고자 한 것은 아닐 것이다. 나눔과 감사, 공급과 기쁨은 함께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감사는 물질의 공급으로만 말미암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사망하는 형제와 사랑해야 할 이웃들이 있는 것에 대한 감사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주위의 형제와 가족에 대한 감사를 잊지 말자. 이들을 주셔서 사망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자.

5) 시기과 질투

바울은 빌립소서2:3에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고 권면하고 있다. 야고보도 형제와의 화평을 강조하면서 "너희 마음 속에 독한 시기과 다툼이 있으면 자망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약3:14)고 말씀한다. 이웃의 관계를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적대관계의 시작은 서로에 대한 시기과 질투이다. 남이 잡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마음 아파하는 인간의 모습은 부패된 하나님의 형상이다. 최초의 살인인 가인의 아벨의 살해는 이 시기과 질투의 소산품이었다. 아벨의 하나님께 인정을 받자, 시기하여 가인은 아벨을 쳐죽인다. 시기과 질투는 살인을 낳고 이웃사랑을 막는다. 주님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형제를 살인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다(마5:21,22).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우민 좀 더 겸손해져야 하고,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빌2:5). 죽기까지 낮아지신 겸손과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배워야 한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계속 배워야 할 주님의 마음이다. 바울은 또다시 다음과 같이 말씀한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투기하지 말지니라." (갈5:26)

6) 인간자본(계층, 계급, 지역간등)

인간과 인간을 사랑의 끈으로 묶지 못하게 하고 서로를 갈라놓는 것은 개인적인 것만은 아니다. 보다 사회적이고, 구조적인 것들이 있다. 역사적으로 내려오거나 시대적인 모순으로 생긴, 사회적인 부조리로 인한 인간 차별 현상은 사람과 사람을 분화하게 한다. 서로 사랑하게 하지 못하고 불신과 적대감으로 서로를 대하게 한다.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가진 자와 가지지 않은 자들간의 갈등이 대단하다. 60,70년대의 고도성장 계획은 이 나라를 많은 면에서 발전시켰고 절대적인 빈곤에서 해방시켰지만,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켰고 상대적 빈곤감을 강화시켰다. 특히 요즈음처럼 부동산투기등으로 인한 주택 문제는 많은 일반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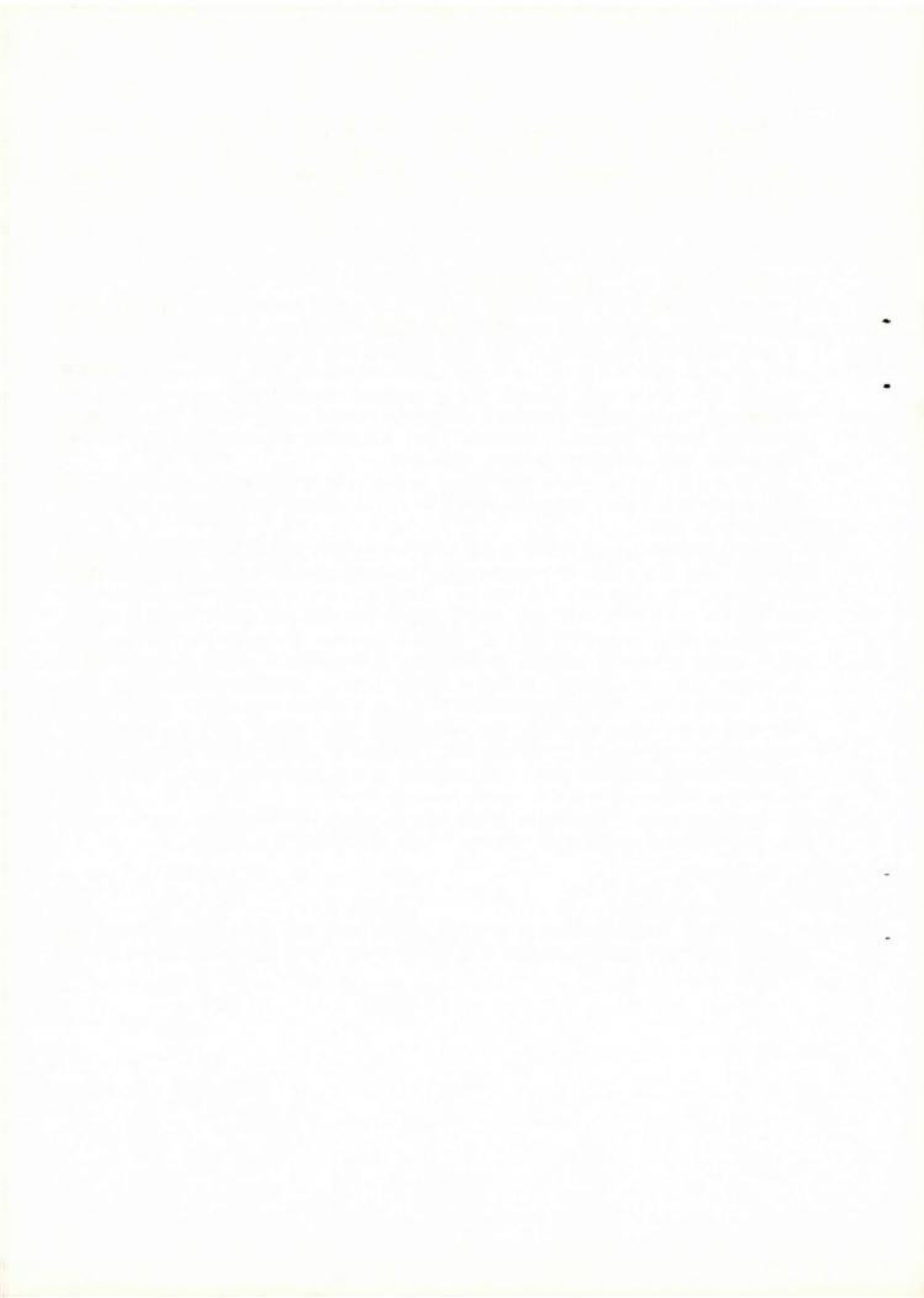
이뿐 아니다, 대통령 선거의 과열 경쟁과 지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의 불균형은 지역간의 위화감을 심화시켰다. 지역간의 대립양상은 이 나라가 가장 먼저 극복해야 할 큰 과제라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웃사랑의 모습을 내걸기가 어렵다. 서로에 대한 편견과 적대감이 뿌리내린 곳에 이웃사랑을 말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웃의 답을 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엡2:14).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 되셨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모든 차별과 갈등을 극복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되는 장소여야 한다. 이웃사랑의 가장 큰 울타리가 교회여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교회는 그 안에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터전으로서만 아니라, 화평과 사랑의 메시지와 행동으로 사회와 민족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몸이어야 한다. 가진자의 교만과 가지지 못한 자의 적대감을 그리스도의 희생과 용서와 사랑으로 하나되게 하는 세상의 소망이어야 한다. 가진 자에게 사랑으로 나누는 법을 배우게 해야 한다. 물질유 가진 자는 물질유, 지식유 가진 자는 지식유, 달만브유 가진 자는 그 달만브유 나누며 섬기는 도구로 쓰며, 사랑하도록 교회는 이끌어야 한다. 또한 지역간의 갈등의 문제에서도 교회는 사랑의 본으로, 사랑을 가르쳐주는 공동체로 세상에 나타나야 한다.

진정한 하나됨은 그리스도와와의 진정한 연합에 있음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면서, 교회는 사회에 사랑의 빛을 전해주는 주님의 공동체여야 하는 것이다.

「교육 방향과 내용」

이웃사랑을 저해하는 여섯가지 요인들을 생각해 본다. 왜 이 여섯가지가 이웃사랑을 막는가 그리고 이 요인들은 어떻게 하면 제거할 수 있는가 하는 측면에서 본향들을 가르쳐야 할 것이다.



주 제: 역사와 우주

성 주진 교수

교육목표: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보존하시며 역사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 진행되고 있으며 종말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한다.

1. 창조론

우주만물(宇宙萬物)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창 1:1; 사 44:24; 45:12; 시 33:6; 히 11:3). 이것은 무(無)에서부터 (ex nihilo) 유(有)로의 창조이며 (창 1:1; 히 11:3), 가시적, 물리적 피조물뿐만 아니라 (창 1-2장), 불가시적 피조물들(천사)도 포함한다 (시 148:25; 골 1:16). 피조물에는 하나님의 영광 (능력, 지혜와 선하심: Westminster Confession 4장 2; 시 19:1; 롬 1:20)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좋았다 (창 1:3, 10, 12, 18, 21; 록하 1:31).

창조의 구체적인 시점, 6일의 길이, 종(種)의 창조와 발전간의 문제 등에 관하여는 단언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그러나 성경은 창조가 전능하시고 초월하시며 무한하신 삼위 하나님의 사역으로 우주만물과 역사에 대하여 주권과 목적을 가지신 것을 분명히 보인다 (시 19:1; 사 43:7). 그러므로 이원론(二元論), 유출설(流出說), 진화론 등의 이론은 성경의 증언에 반(反)할 뿐만 아니라 성경적 창조의 목적을 보여주지 못한다. 창조의 절정으로서의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물을 다스리시는 데 대리인으로 삼으셨으므로 이에 따른 책임을 가진다 ("인간" 1,2,3항 참조)

2. 타락후의 자연계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뿐만 아니라 피조물도 그 영향을 받게 되었다 (창 3:17-19; 사 24:6; 렘 23:10 비교). 피조세계가 악과 고난과 부패로 오염된 것이다. 환경의 오염, 공해, 자원의 고갈 같은 여러 문제들도 하나님의 대리인인 인간이 타락하여 피조 세계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 결과로 빚어진 것이다 (창 1:26, 28). 그리하여 만물도 탄식하며 고통하는 중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활의 영광을 얻을 때에 새로움을 얻기를 기다린다 (롬 8:20-22; 계 21:5).

3. 하나님의 섭리 (보존, 통치)

하나님께서서는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만물을 자신이 정하신 법과 질서를 따라 보존과 통치의 방법으로 섭리하신다 (시 103:19; 잠 16:1, 33; 마 10:29). 보존은 창조하신 만물을 지속적으로 붙드는 것이고 (느 9:6; 히 1:3; 살전 5:23 참조), 통치는 창조목적에 위하여 만물의 다스리는 것을 말한다 (시 104:19; 왕상 8:35, 37; 계 19:6 참조). 보통 섭리에 협력을 포함시키는데 이는 만물의 성질과 인간의 의지를 포함하여 만물을 정확하게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다 (창 45:5; 50:20; 욥 1:12; 빌 2:13; “인간” 1, 3항 참조).

4. 역사와 그 목적

하나님의 통치는 인간 역사에까지 미친다 (단 2:21; 4:24-25). 역사 (History)는 무계획적, 무(無)목적적인 사건의 연속이 아니라,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며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주인공으로서 본명한 목적을 가지시고 운행하시는 것이다.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펼쳐지는 장이다. 이런 의미에서

역사(History)는 “그의 이야기”(His Story) 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순환적 역사관이나, 유물사관, 실존주의적 역사관등은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주관과 역사의 목적을 보지 못한다.

일반 역사는 정치 지도자들, 정치 구조, 전쟁과 평화, 나라와 문명의 흥망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성경은 역사를 하나님 백성 중심으로 보며 (사 10:5-12; 엡 3:7-11) 영적 싸움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참 평화를 말한다. 그러나 일반 역사와 성경적 역사관은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니다. 성경도 대제국(大帝國)을 무시하지 않고 (단2:21; 424-25), 참된 역사도 교회의 존재와 역할을 무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5. 천국 일꾼과 역사 창조의 의무

하나님은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 역사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시기 때문에 천국 일꾼은 적극적인 말씀전도와 기독교 윤리의 실천을 통하여 사회를 개혁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 역사 진행과 복음 전도는 서로 연관되어 있다. 역사의 주인공인 하나님은 맹목적인 우연이나 비인격적인 원리가 아니라 우리가 개인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분은 이성적 피조물의 협력을 통하여 세계를 다스리신다. 그러나 주권은 여전히 그에게 있고 당신의 뜻에 따라 행하신다. 그러나 인본주의, 민중신학은 이것을 보지 못한다.

6. 종말론

1) 신약에 나타난 종말의 징조

신약은 곳곳에서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에 나타날 징조에 대하여 강조적으

로 말한다. 대표적인 곳은 마 24이다. 기근, 난리와 난리의 소문, 전쟁,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 (3-8절; 23-26절), 멸망의 가증한 것 (15절), 큰 환란 (21절), 해가 어두어지는 등의 하늘의 징조 (29절) 등이다. 주의할 것은 이런 징조들은 정확한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표시이다 (8절). 그 때와 그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 (36, 42절).

2) 종말의 제(諸) 견해

주님이 이 땅에서 친히 다스릴 천년 왕국이 문자적으로 있을 것인가? 있다면 그리스도의 재림이 천년 전에 있을 것인가, 아니면 천년 후에 있을 것인가에 따라 전천년설(premillennialism), 후천년설(postmillennialism), 무천년설(amilennialism)로 나뉜다.

1) 전천년설은 천년 동안 주님이 이 땅에서 다스릴 것이라는 생각을 고수한다. 천년 왕국 전에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성도들이 부활하여 공중에 올려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며 이어 시작되는 천년 왕국이 끝나면 최후의 심판이 있어 악한 자는 영벌에, 선한 자는 영생에 처한다는 학설이다. 전천년설의 주요 성구는 계 20:4-6이다. 여기에 근거하여 천년 통치뿐만 아니라, 보통 그 전후(前後)에 있는 그리스도의 두 재림을 주장하기도 한다.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도 구속되고 (롬8:19-23), 동물까지도 서로 조화하며 산다 (사 11:6-7). 이들은 이스라엘 국가가 특별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데에는 의견을 같이하나 그 구체적인 성격에 관하여는 의견이 나뉜다. 주로 전천년설에서 그리스도의 재림과 교회의 “휴거”가 대환란 전에 있을 것인가 (“전환란설”: pretribulationism), 아니면 대환란 이후에야 주님이 재림할 것인가 (“후환란설”: posttribulationism)에 대하여 의견이 나뉜다. 그러나

이들은 주님의 재림 전에 세계의 사태가 최악에 달할 것이라는 데에는 의견을 같이한다.

2) 후천년설은 열국이 결국 주께 돌아 올 것 (시 47; 72; 100; 사 45:22-25; 호 2:23)이라는 믿음과, 주님의 재림 전에 복음이 전세계에 전파되리라는 말씀에 의거한다 (마 24:14). 과거의 후천년설은 교회가 천년 동안 다스린 후 감시 배교의 때가 있고, 그 후 그리스도가 재림하여 부활과 최후 심판이 있다는 학설이었다. 그러나 현재의 후천년설은 천년의 문자적 의미를 취하지 않고 복음의 전파로 세계가 개종한 후에, 또는 정치, 경제, 과학, 문화, 교육의 발달로 세상이 좋아진 후에, 그리스도가 재림한다고 한다. 후천년설은 근본적으로 낙관적인 견해이다. 이 견해에 의하면 20세기의 두 세계대전은 이 낙관적인 견해와 모순되는 것이 아니고 단순한 변동이며 재림이 생각보다 멀기 때문이라고 한다.

3) 무천년설은 그리스도의 지상 통치 기간인 천년 왕국이 없다는 학설이다. 천년 왕국은 교회 시대를 상징하며,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세상은 끝나고 천년 왕국을 거침이 없이 바로 심판이 있고 이어 완전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이 도래할 것이라는 학설이다. 천년을 상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교회 시대로 본다는 점에서는 후천년설과 유사하다. 다른 점은 후자가 지상에서의 주님의 통치를 주장한다는 점이다. 또 무천년설은 후천년설 같은 낙관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

3) 이단 종파의 그릇된 종말관

많은 이단 종파들의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는 그릇된 종말관을 제시하여 믿는 자라도 유혹하려고 한다는 점이다. 여호와의 증인 (1914년 10월 1일부

터 그리스도의 지상 통치가 시작되었다고 하며 일자를 벌써 세 번이나 변경하였다)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또 통일교를 비롯한 현금 한국에서의 이단 종파들은 거짓 그리스도를 전한다.

4) 재림과 심판

그리스도의 재림은 인격적 (요 14:3; 살전 4:16; 행 1:11), 육체적 (행 1:11), 가시적 (행 1:11; 마 24:30)으로, 예측하지 않은 때에 (마 24:37; 살전 5:2-3) 개선하는 영광스러운 재림이 될 것이다 (마 24:30; 막 13:26; 눅 21:27; 살전 4:16; 마 25:31-46). 그의 재림은 한 단계로 이루어진다 (세대주의자들 또는 '전환탄주의자'들의 두 단계 재림설은 재림을 나타내는 용어들을 잘못 해석한 결과이다). 그가 재림할 때 모든 사람이 부활하게 되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권한을 받아 재판장으로서 (마 25:31-33; 요 5:22,27; 행 10:42) 모든 사람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마 25:32; 고후 5:10; 히 9:27; 롬 14:10).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서 행한 선악에 따라 심판을 받되 (고후 5:10), 판단의 기준은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 될 것이다 (요 12:48). 믿는 의인은 영생을 누리고 불신자는 영벌에 처해 질 것이다 (마 25:46; 요 5:29).

5) 새 하늘과 새 땅

이리하여 하나님의 역사의 목적은 결국 완성될 것이다. 역사가 진행하다가 힘이 다하여 끝이 나거나, 하나님도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 아래 역사가 완성(Consummation)에 이르는 것이다. 새 하늘과 새 땅은 타락한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완성이므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롭게 된 상태를 가리킨다 (계 21:1, 5). 그 날에는 신자들

의 모든 불완전한 것(고통, 병, 사망 등)이 사라지고 (계 21:4), 영화된 몸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며", 영원히 그를 경배, 찬양할 것이다 (계 21:3). "하늘과 땅"이 문자적으로 이 세계를 의미한다면, "새 하늘과 새 땅"은 세계가 원래 창조되었을 때의 영광으로 돌아가거나 또는 그 이상의 영광으로 나타날 것을 의미한다.

7. 종말론적인 삶의 자세

신자는 그리스도의 확실한 재림을 대망하는 중 깨어 천국 일꾼의 일에 충성하여야 한다. 재림의 확실성과 심판의 최종성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절대 필요하다. 주의 재림의 날은 아무도 모르고, 세상 사람들이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때 주님이 도적같이 임할 것이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넘어가지 말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는 깨어있는 삶, 언제 그리스도가 오셔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삶이 요청된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주와 역사의 목적을 이루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역사에 참여하고 세상을 변혁시키며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THE
"W" OF THE
"W" OF THE
"W" OF THE
"W" OF THE
"W" OF THE

THE
"W" OF THE
"W" OF THE
"W" OF THE
"W" OF THE
"W" OF TH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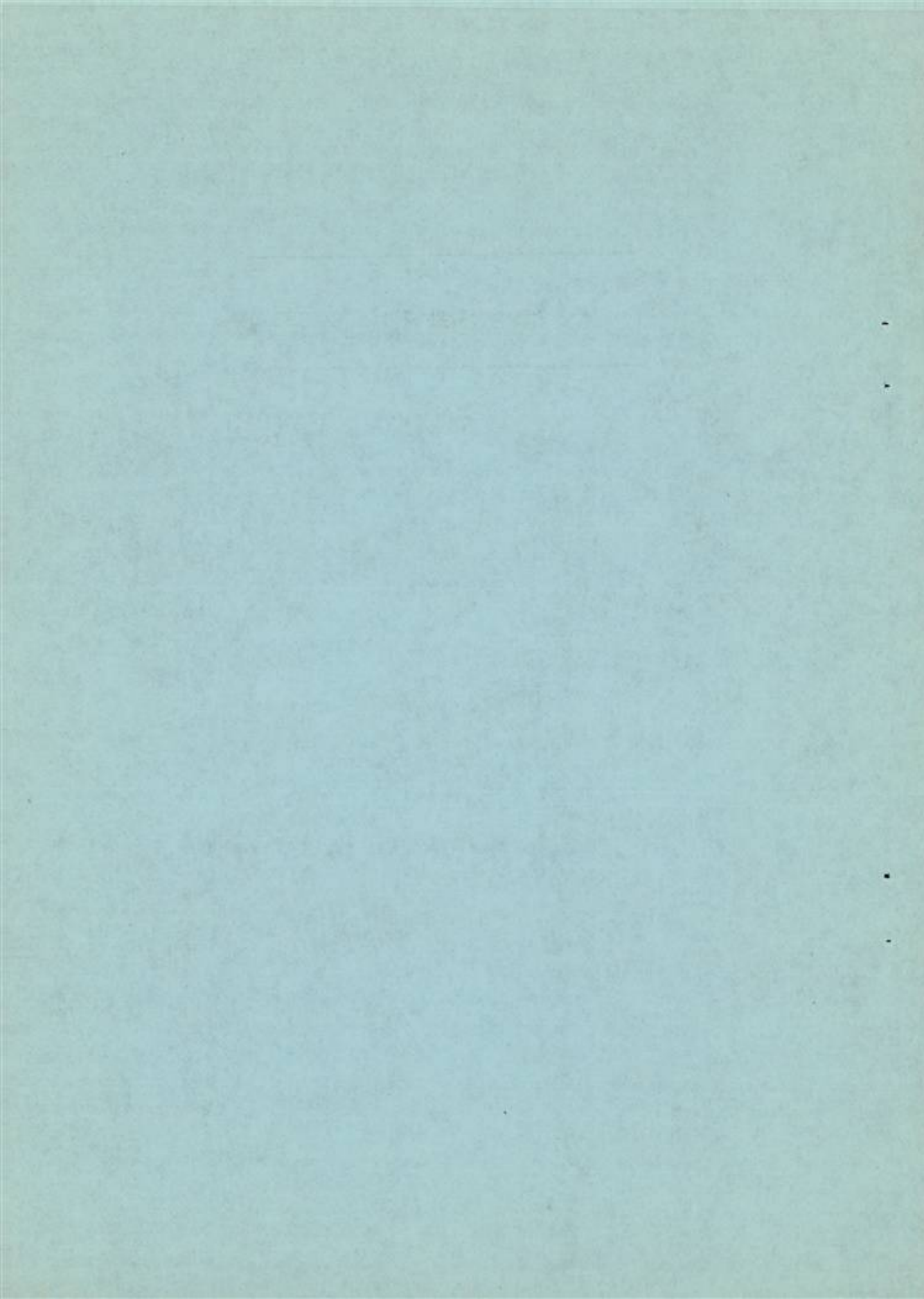
THE
"W" OF THE
"W" OF THE
"W" OF THE
"W" OF THE
"W" OF THE

THE
"W" OF THE
"W" OF THE
"W" OF THE
"W" OF THE
"W" OF THE

THE
"W" OF THE
"W" OF THE
"W" OF THE
"W" OF THE
"W" OF THE

주 제: 사회와 국가

오 덕교 교수



교육 목표 / 사회와 국가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주권아래 있음을 깨닫게하고

하나님의 외가 지배하는 사회의 실현을 위하여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게 한다.

1. 성경적 국가관

a. 정부의 기원 - 국가 또는 정부는 인간이 타락하여 죄악이 인간 세상에 들어와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가 깨어지게 되자 인간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하나의 질서로서 이를 통하여 타락한 인간의 개관적인 조직이 유지되고 있다 (롬 13:1). 그러므로 국가는 어떤 이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백성의 동의, 다수의 뜻, 사회 계약과 같은 인간의 의지나 대중의 요구에 의하여 우연히 자생한 것이 아니며, 창조와 보존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신적 의지와 주관적인 섭리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국가 또는 정부는 죄를 억제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다. 다른 말로 한다면 국가는 죄없이 시작된 가정제도와는 달리 인간의 타락 후에 죄악을 억제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창조 질서라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신 1:13-17; 16:18-20, 17:18-20).

b. 정부의 지위 - 온 세상의 왕이시요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정부를 그 밑에 백성 위에 세우셨다. 다른 말로 한다면 정부는 하나님의 수중에 있으며 (단 4:17; 25, 요 19:10, 11), 백성은 정부의 주관하에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하나님께서 정부를 세우신 뜻에 대적해서는 안되며, 백성은 정부에 복종하여야 한다.

c. 정부를 세우신 목적 - 하나님께서 정부를 세우신 목적은 그를 대신하여 악을 제거하고 선을 권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회의 이익을 위하는 데 있다 (롬 13:1-4). 그러므로 관원은 사람의 영광을 사랑하지 말고 (요 12:42, 43), 백성의 선과 악을 심판할 때에 공정하고 의롭게 판결하여야 한다 (신 1:17). 하나님께서는

악을 제어하고, 선한 백성을 보호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정부에게 겉으로 무장하게 하셨다. (롬 13:1-4; 벨전 2:13,14)

d. 성도의 국가에 대한 자세 - 재침례교도와 같은 과격한 무리들은 성도는 영적인 존재들로 세속 정부의 일에 참여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국가를 죄악된 단체, 또는 속된 체계, 잠정적이어서 무의미한 실체, 유리된 이방인의 체계로 규정하거나 도외시한다. 그러나 개혁주의 교회의 성도들은 정부가 교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라고 믿어 적극적으로 정부의 일에 참여하여야한다. (잠 8:15,16, 롬 13:1-3). 그리스도인이 정부의 일에 참여할 때에는 반드시 국가의 법의 테두리 안에서 경건과 정의, 그리고 평화를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한다 (시 2:10-12; 딤후 2:2; 시 82:3, 4; 삼하 23:3; 벨전 2:13). 이를 위하여 합당하며 적절한 경우에는 전쟁을 수행할 수도 있다 (눅 2:14; 롬 13:4; 마 8:9, 10, 행 10:1-2; 계 17:14, 16).

e. 성경적인 정부 형태는 무엇인가? 정부 형태는 여러가지가 있다. 곧 소수의 귀족에 의하여 통치되는 귀족정치, 왕에 의하여 통치되는 군주정치, 백성의 뜻에 따라 통치되는 민주정치와 같은 다양한 통치체계가 있다. 그러나 성경에는 어떠한 형태의 정부 형태가 성경적이라고 언급한 바 없다.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은 정부의 틀이 아니라 그것을 다스리는 통치자의 자질에 달려있다. 왜냐하면 한 사람에게 의하여 통치되는 군주정치라고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과 백성을 위해 통치한다면 그곳에 정의가 실현 될 것이나, 온 백성의 뜻에 따라 다스리는 민주체제라고 하더라도 부패된 백성을 뜻이 통치의 기준이 된다면 소동과 고모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경에서 보여 주는 가장 이상적인 통치 체계는 성경 말씀을 근거로 말씀에 사로잡힌 자들에 의한 통치, 곧 성경통치 (Bibliocracy)이다. 이러한 정치체계는 칼빈의 제네바, 뉴잉글랜드의 청교도들에 의하여 실현된 바 있다.

2.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

a.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한 제 견해 - 기독교회의 종파가 다양한 것과 같이 국가와 정부에 관한 입장도 다양하다. 정부와 국가의 관계를 대략 다음의 범주 안에서 생각할 수 있다. (1) 교회가 국가 보다 우위에 있다는 설, (2) 정부가 교회 보다 우위에 있다는 설, (3) 교회와 국가는 전혀 별개의 것이라는 설, (4) 국가와 교회의 기능은 구별되나 상호 보완적이라는 입장이 있다. 교회가 국가보다 우위에 있다는 주장은 로마 천주교도의 입장으로 이들은 중세시대 이후 현재에 이르기 까지 정부는 교회의 지배와 통치 아래 있어야 할 것을 주장한다. 그러나 루터파와 영국의 성공회의 경우는 이와 정반대의 입장을 가진다. 이들은 국가가 교회의 성직 임명이나 교회의 일을 간섭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영국 성공회의 최고 우두머리는 영국의 여왕으로 그녀는 영국 교회를 대표한다. 그러나 재침례교도를 비롯한 과격파는 정부는 교회와 적대적인 관계에 있다고 본다. 이들은 교회란 하나님이 선택한 성도들의 영적인 모임이요 국가는 세속적인 기관이므로 교회와 국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들은 국가와 교회는 온전히 분리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개혁신교회의 입장은 다르다. 개혁신교회의 교회들은 정부와 국가는 모두가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라고 믿는다.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으로서 국가와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기관으로 상호 불가분리적이며 상호 보완적이며, 상호 동등한 관계를 가진다고 믿는다.

b. 교회와 국가의 영역 - 그러나 국가와 교회는 그 사역의 장이 다르다. 곧 국가는 세속적인 업무를 담당하지만 교회는 영적인 업무를 관장한다. 이와같이 국가와 교회는 그 성격이 구별되지만 한분 하나님으로 부터 비롯되었다. 정부는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영역을, 교회는 종교적인 일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상호의 본질적 영역을 이탈하거나 침범해서도 아니된다. 또한 두 기관은 상호 무관해서도 하나님께

받은 책임을 다 할 수 없다. 오컨대 국가는 교회의 고유 영역인 말씀과 성례를 집행하거나 교회의 권징과 같은 신앙적인 일에 관여 할 수 없다 (삼상 13:8-13; 대하 26:18; 마 16:19; 요 18:36). 국가는 백성의 양부 (사 49:23)와 같이 교회를 보호할 책임을 다하며, 어떠한 교파를 편애해서는 안되며, 모든 교회의 일꾼들이 성경 안에서 자유를 만끽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며, 성도들이 경건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도록 지켜 주어야 한다. 곧 모든 종교적인 집회나 교회의 집회가 훼방이나 방해를 받음이 없이 개최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방법을 택함으로서 사람들의 인격과 명예를 보호하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이다 (딤후 2:1, 2; 시 105:15; 삼하 23:3; 롬 13:4). 반면에 교회는 통치자를 위하여 기도하며 그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딤후 2:1-2; 롬 13:6-7)

3. 사회변혁을 위한 기독교인의 책임

a 리차드 나버는 그의 책 그리스도와 문화 (Christ and Culture)에서 기독교인의 세상에 대한 자세를 다음과 같이 나누었다. 첫째는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는 형 (Christ against Culture)으로 성도는 거룩하고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성도는 세상을 등지고 살아야 한다는 사상이다. 이에 반대되는 사상이 두번째 견해인 세상 속에 있는 그리스도 (Christ in Culture)이다. 이 입장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진리는 세상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이라고 본다. 곧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가 그리스도의 모형이며, 예수 없이도 선행을 행하는 자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다는 혼합주의적인 자세이다. 세째는 기독교의 교리는 너무나 고상하여 세상과는 어떠한 접촉점도 없다고 보는 견해 (Christ above Culture), 네째는 기독교와 문화는 서로 역설적이러는 견해 (Christ and Culture in paradox), 마지막으로 세상의 문화를 죄악으로 오염된 것으로 보면서 그리스도의 말씀과 고훈으로

그것을 변혁시키려하는 변혁주의적인 자세 (Christ the transformer of Culture)이다. 이러한 여러 입장 가운데 개혁주의적인 고회는 마지막 입장을 취한다.

b. 사회를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변혁 시키기 위하여 기독교인은 복음 전파 뿐만 아니라 사회 자체의 바람직한 변혁을 위하여 상당한 책임을 수행하여야 한다. 주님은 이런 책임을 '빛과 소금'이라는 단어로 말씀하셨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사회 가운데 실현하여야 한다.

c.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은 모세를 통하여 인간들에게 주신 영구적인 도덕률인 십계명이다. 십계명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만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인간 사랑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님께 대한 계명은 십계명을 첫번째 돌판에 새겨져 있다. 그 가운데 첫번째 계명은 예배의 대상을, 둘째번 계명은 예배의 방법을, 셋째 계명은 예배자의 자세를, 넷째 계명은 예배의 시간에 대하여 말한다. 또한 십계명의 둘째 돌판은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 대하여 알려준다.

d. 따라서 십계명을 두 돌판, 곧 인간 사랑과 하나님 사랑은 분리 될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라고 하겠다. 곧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어떤 부분을 경시할 수 없다. [그러나 한국 고회는 양 극단을 걷고 있다. 곧 자유주의적인 교회에서는 인권에 대하여 강조하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면에 대하여는 경시하고,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 곧 우상숭배를 금하고 주일성수를 강조하나 인권에 대하여는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바른 신앙은 두 돌판의 내용을 모두 귀하게 강조하는 것이다]

e. 그리스도인은 성경의 교훈을 그가 살고 있는 가운데 실현하기 위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야 한다. 소금과 빛의 역할은 먼저 그리스도인 스스로가 천국 시민으로서의 하나님의 뜻을 사회 가운데 실현 하는 데서 시작된다. 곧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실천하면서, 사회의 구석 구석에 그리스도의 교훈을 적용하므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f. 또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사회가 그리스도의 법으로 지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곧 그리스도의 법이 사회의 구성 구성 가운데 실현되고 그리스도의 법으로 다스려 지므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도 이루어 지도록 (마 6:10) 그리스도인은 사회 불의에 대하여 예언자적인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마 14:1-4).

g. 사회변혁을 위하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 (십계명에 함축되어 있음)을 개인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적용할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을 통하여 나타내야 한다. 곧 목사는 목사의 소명 가운데, 의사는 의료계에, 정치가는 정치 영역에, 예술가는 예술계에, 작가는 문학계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변혁하므로 기독교 문화를 그가 속하여 있는 사회 가운데 정착시키며 이를 통하여 기독교 문화 장단을 이루어야 한다.

4. 그리스도인의 시민적 책임

a. 정부와 백성의 관계는 계약 관계이다. 곧 정부는 권선징악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운 기관으로, 이를 위해 하나님과 정부, 정부와 백성과의 관계 아래 있다. 곧 정부는 권선징악을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나 백성과의 계약 관계에 의하여 합법적인 권세를 행사할 수 있다. 다른 말로한다면 백성과의 합법적인 계약관계 없이는 정부의 권세가 인정될 수 없다. 이러한 예를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 볼수 있다.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 이었던 사울은 하나님에 의하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부음을 받았지만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과의 계약을 맺을 때까지는 왕권을 행사할 수 없었고 (삼상 10:1-27), 사울 왕이 버림을 당하고 다윗이 사무엘에 의하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부음 (삼상 16:13)을 받았으나

헤브론에 가서 백성들에 의하여 승인되기 까지 왕의 권세를 행사할 수 없었다 (삼하 2:4). 그러므로 정부와 백성의 관계는 계약관계를 떠나서는 성립될 수 없다.

b. 정부와 백성과의 계약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부 편에서는 폭력과 외적으로 부터 국민을 보호하며, 백성 편에서는 정부가 제정한 법을 준수하고 (롬 13:1-7), 정부의 공직자들을 존중히 여기고 저들의 합법적인 요구에 복종하여야 한다 (마 26:52; 벰전 2:13-14). 국가의 공직자들이 존경을 받아야 함은 그들의 인격에 때문이 아니라 그 직책 때문이다. 따라서 성직자들, 심지어는 고황까지도 국가의 권위에 순복하여야 한다.

c. 신자들이 국가에 복종할 때 체념적으로만 아니라 양심적으로 그것을 지지하여야 한다 (롬 13:5; 딤펢전 3:1). 곧 신자는 정부의 공직자가 신앙이 없거나 신앙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양심에 배치되지 않는 한 공직자가 공의와 합법적인 권위로 하는 것은 따라야 한다 (벰전 2:13, 14, 16).

d. 그러나 공직자가 하나님의 계명을 거스리는 죄악된 명령을 명할 때는 그것을 그대로 지킬 수 없다 (행 4:17-21). 그러나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지 않는 양심과 이성에서 우려난 법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것이므로 항거하지 말고 준수하여야 한다. (왕상 21, 출 22:28; 행 4:19, 5:29)

e. 신자들은 정부의 유지를 위하여 요구되는 납세의 의무 (마 22:17-21; 20:25) 뿐만 아니라 국방의 의무 등과 같은 의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정부의 공직자를 위하여 기도하여야 한다 (딤펢전 2:1, 2),

5. 교회의 사회에 대한 책임

a. 신자는 천국 시민이요 동시에 세상 나라의 시민이다 (엡 2:19).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중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세상 나라에 유익을 주는 시민으로

공헌하되 그 나라의 유효성과 종로성을 알고 그 나라에 천국을 증거하고 전파하기를 힘써야한다 (마 13:33).

b. 성도가 세상에서 사는 가운데 세상 나라와 그리스도의 나라 가운데 우선권을 두어야만 한다면 성도의 우선 순위는 그리스도의 나라에 있다 (마 6:33; 요 18:36). 성도는 눈에 안보이는 시민권을 늘 기억하여야한다 (빌 3:20).

c. 하늘 나라의 시민이요, 이 세상 나라의 시민으로 그리스도의 교회는 사회를 선도하여야한다. 이를 위하여는 교회에 종교적 영적 책임을 가지고 있으나 일반적인 책임도 요구된다.

d. 사회에 대한 일반적인 책임 가운데 하나는 사회를 윤리적으로 선도하는 것이다 (삼하 12:7-9). 곧 교회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부도덕에 대하여 지적하고 도덕적인 사회가 되도록 선도하여야할 사명이 있다. 이러한 사명을 위하여 한국 교회는 금주, 금연 운동과 같은 절제 운동을 실천하여 한국 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사회를 보다더 효율적으로 선도하기 위하여 한국 교회는 사회의 죄악을 경계하며 죄악이 세상을 정령하지 못하도록 파숫군의 사명을 다하여야한다.

e. 교회는 사회를 위하여 구제하는 사업을 힘써야한다. 예수께서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하라"고 하시므로 구제와 같은 선행을 장려하셨다 (마 5:16). 물론 국가가 세금을 거두어 분배하므로 구제의 주체가 되어야하지만 세상 국가에서 이 분배의 정의가 완전히 실현되지 못하므로 모든 지역 교회가 최선을 다한 헌금으로 더 빈약한 자를 구제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야한다 (고후 8:1-5, 행 10:2, 마 5: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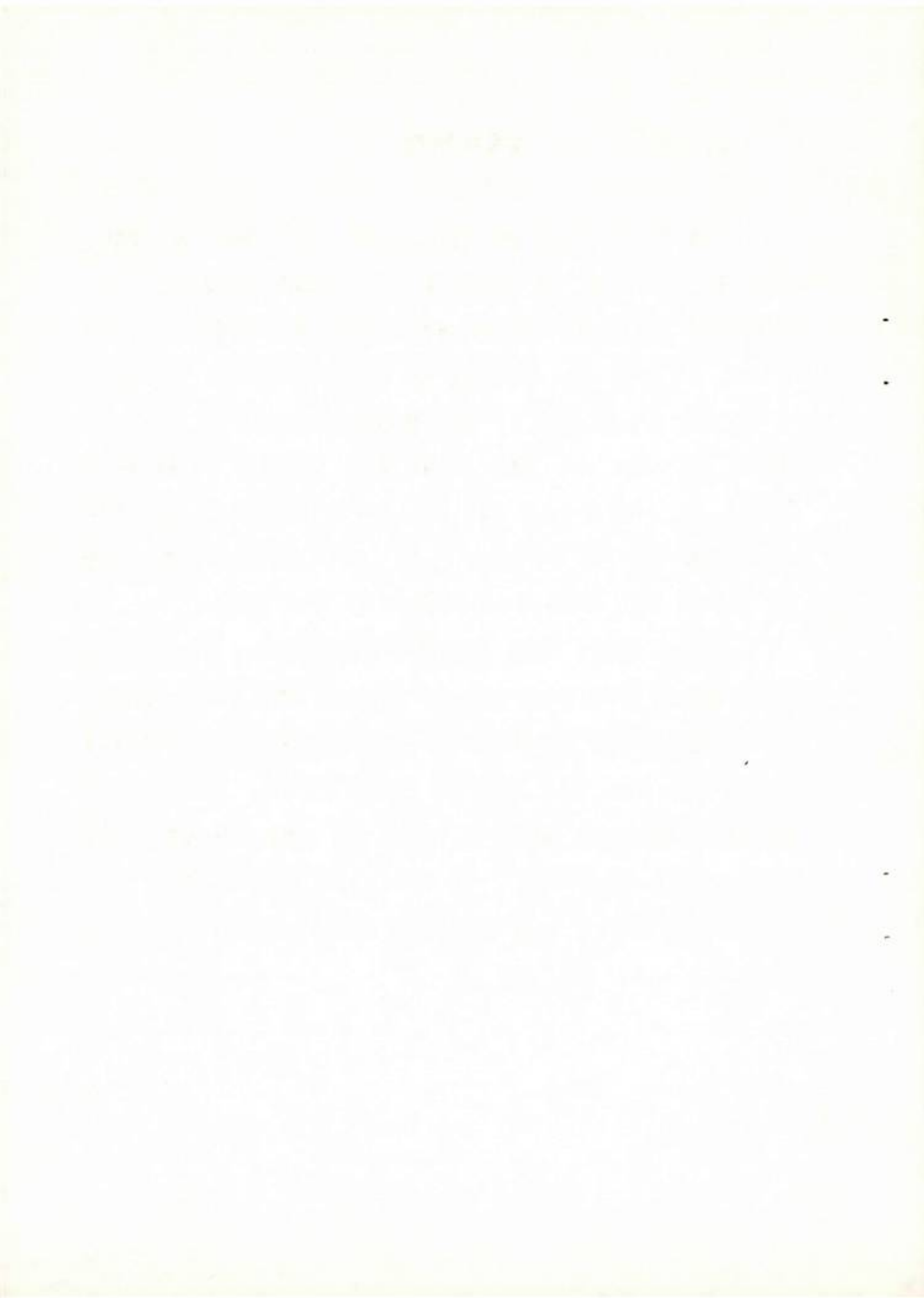
f. 교회는 사회복지를 위해서도 힘을 써야한다. 곧 교회는 곤고한 사람들을 채출하는 마음을 가지고 고아와 과부를 위한 복지 시설, 윤락녀를 위한 교회 시설, 극빈자를 위한 보호시설, 양로원, 장애자를 위한 편리 시설과 같은 사회 복지시설을 제공하므로 구체적으로 표현해야한다 (행 9:39)

6. 인종, 지역 및 민족간의 갈등의 해결

a. 세계 문제의 대부분은 인종, 지역, 민족간의 이질감, 배타주의에 기인한다. 그 근간에는 이념적 대립, 상호 불이해, 역사적으로 지속되는 집단적 증오감, 자국 내지는 자민족 우월주의 등이 깔려있는데 물론 더 깊게는 영적 세력들의 조장이 있다 (요 4:9). 주님은 이런 일들의 점증할 것을 미리 말씀하셨다 (마 2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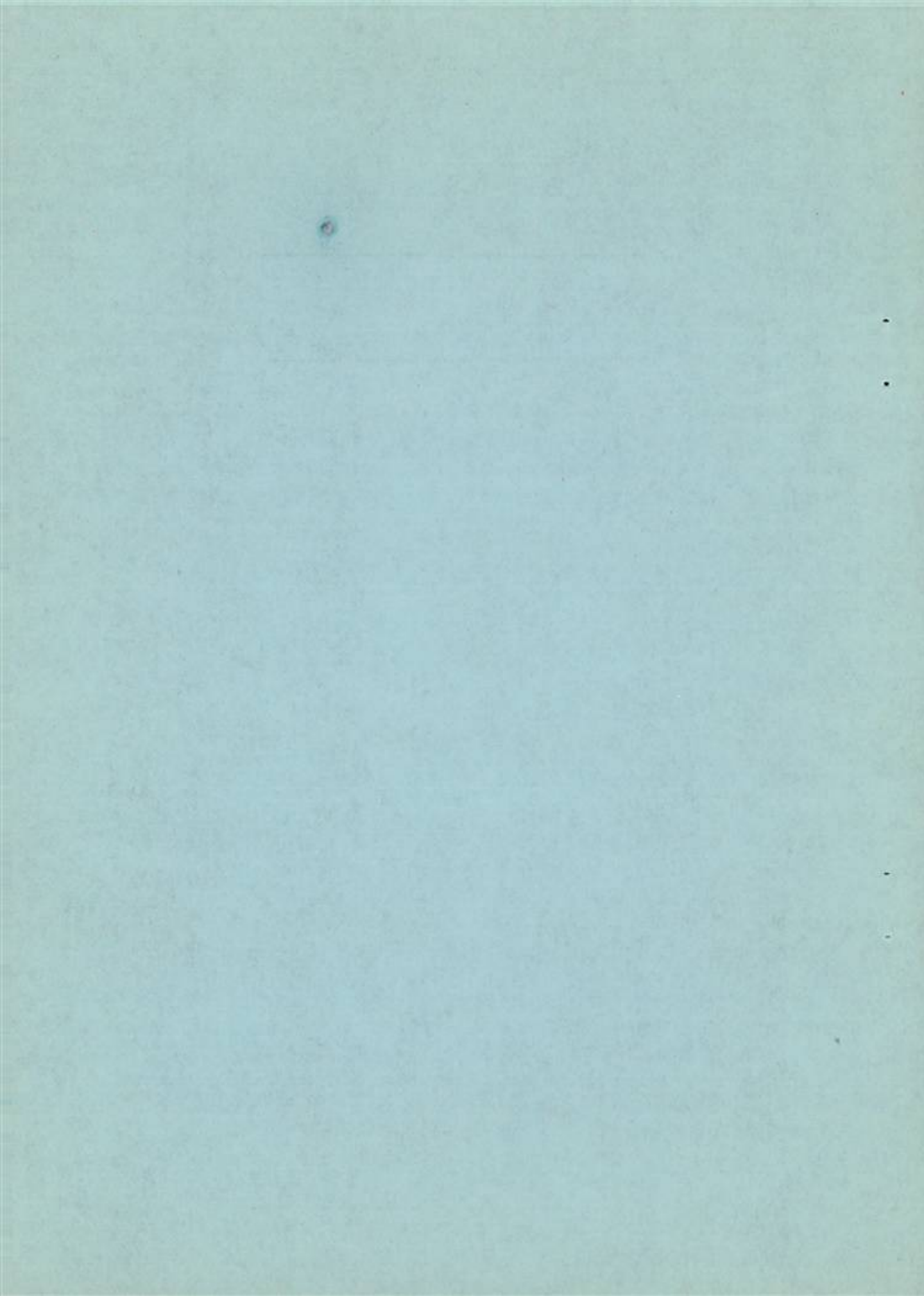
b. 그러나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 (행 17:26) 피부 색깔이나 거주 지역의 차이, 그리고 민족성의 특성은 한 창조주 안에서의 다양한 특징일 뿐 결코 상대적 우월성의 내용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어떠한 인종, 지역에 대하여 편견을 가지는 것을 죄악이다 (요 1:46). 따라서 이러한 장벽을 허는 유일한 길은 기독교인의 헌신적 사랑과 화평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엡 2:4).

c. 한반도와 한민족은 해방후 십리 가운데 이념적, 공간적으로 양분되었다. 한 언어, 한 혈통, 한 역사와 전통을 가졌고 양쪽 모두가 영구 분리를 원치않으므로 통일은 당연하고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이다. 그러나 십리를 믿는 우리는 이면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맡기는 신앙과 민족적 교회적 죄를 회개함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수단은 결코 폭력적, 무력적으로는 정당화 할 수 없고 성경 진리를 따라 평화적, 자유 민주적으로 진행 실현되어야한다. 이를 위하여 교회는 급진적으로 정치의 영역을 대신하지 않도록 자제하고 기도와 성경적 언사로 종교적 사명을 수행하여야한다 (마 26:52; 단 4:32, 21; 대하 7:14.)



주 제: 직 업

김 정우 교수



그리스도인의 직업관과 직업윤리
김정우

교육 목표: 하나님께서 주신 직업을 통하여

1. 자아를 실현하고
2. 이웃을 섬기면서
3.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한다.

교과과정 - - - - - > 수정건의

1. 성경적 직업관과 노동관
2. 직업선택 - - - - - > 2. 소명으로서의 직업
3. 직업 윤리: 노사관계의 성경적 조명
4. 가정생활과 직업 - - - - - > 4. 직업과 가정생활
5. 은사개발과 창조적 삶

참고도서

John Murray, *Principles of Conduct* (Grand Rapids: Eerdmans, 1957 [1984]): 82-107.

John Stott, *Involvement: Social and Sexual Relationships in the Modern World*, vol. 2 (Old Tappan, N.J.: Fleming H. Revell Company, 1985): 19-73.

1. 성경적 직업관과 노동관

1. 1. 서론

직업이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업과 무직, 노동과 휴식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가져야만 한다. 대부분의 일하는 사람들은 매일 여덟 시간 내지 열두 시간을 직장에서 보낸다. 또한 퇴직을 할때까지 인생의 절반을 일터에서 보냄으로 우리는 노동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결정하는 노동 철학을 가져야겠다. 한국 사회에서는 직업의 귀천 개념이 아직도 뿌리 깊어서 성경적 직업관이 더욱 시급하며, 특히 현대의 산업사회로 변하면서 각자의 몫을 추구함으로 노동쟁의가 더욱 심화되므로 노동과 보수, 기업가와 근로자의 관계 대한 성경적 시각을 확립해야한다.

1. 2. 노동에 대한 여러 불건전한 태도

1) . 노동 없이 놀고 먹고 살려는 무위 도식자의 인생이 건강한가?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직업에 대해 대단히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할수만 있으면 일을 안하고 사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는듯 하다.

옛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무위도식한다고 하였다. 일을 하지 않고 건강한 인생을 우리는 살수 없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과소비가 느는 것은 땀의 댓가 없이 돈을 벌어서 재물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재벌 이세들 중 타락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배경 속에서 나오게 된다.

2) . 노동은 단순히 인생을 즐기기 위한 수단인가?

또 어떤 사람들은 노동을 생계를 위해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타락의 결과로서 지리멸렬한 반복적인 일을 계속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노동 자체에는 의미가 없다. 그들은 신체적 노동이 타락의 결과로서 인간에게 부과된 저주로 생각한다. 그러나 노동의 명령은 타락으로 부터가 아니라 이미 창조때 부터 시작되었다. 이 견해는 노동을 그 자체에 있어서 무의미한 것으로 혹은 노동 이외의 목적 (여행이나 여가) 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한다.

3) . 노동은 숙명적인가?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왜 노동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생각않고 그냥 현실을 피할수 없는 숙명 처럼 받아 들이며 산다, "나는 암탉이 알을 품듯이 일하러 간다". 즉 일이란 인간 본성의 일부이다. 인간은 암탉 처럼 일에 대한 충동을 갖고산다. 그러나 이들은 노동을 통해 자신의 창의력을 표현 할수 있는 기쁨에 대해 느끼지 못하고 있다.

1. 3. 인간창조와 타락에 나타난 노동관

1. 3. 1. 노동과 저주

노동에 대한 기독교적인 관점을 갖기 위해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창조의 기사로 부터 시작해야한다. 많은 사람이 노동을 아담이 타락을 한 후 저주를 받은 결과로 (창 3 : 17 - 19) 잘못 생각하나 타락은 노동에 고통과 좌절을 더한 것이지 노동자체가 저주의 결과는 아니다. 노동은 타락이전 부터 있었다. 타락은 물론 인류로 하여금 노동을 더욱 고된 것으로 만들었다. 땅이 저주를 받고 수고와 땀을 흘려야 경작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타락을 한후에도 하나님은 노동의 열매를 보장해 주셔서 아담은 그의 수고의 댓가를 따라 먹을수가 있었다. 노동과 그 상급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1. 3. 2. 노동과 하나님의 형상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을 한다. 창세기 일장에는 하나님 자신이 일꾼으로 나타난다. 날이 갈수록 예술가 이시고 일꾼이신 하나님은 단계 단계 마다 새로운 창조의 계획을 펼쳐나간다. 그가 만든 것을 볼때 마다 "좋다" (아름답다) 고 선언하신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일에 대해 완전한 만족을 느끼고 계심을 표현하신다.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기 모양대로 만드시고 그에게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며 창조적인 재능으로 우주를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명하셨다 (창 1 : 26 - 28) . 따라서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로 구성된 인류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환경을 보존하고 발전시키도록 노동의 명령을 받았다.

두번째 창조 기사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에덴에 동산을 만드시고 인간으로 그것을 돌보게 하셨다 (창 2 : 8, 15) . 아담은 여기에서 농부처럼 기경하고 보전하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 하나님은 땅을 인간의 손에 맡기고 특히 아름다운 파라다이스인 에덴 동산을 그에게 일임하였다.

타락 이후에 아담의 후손들은 계속 새로운 일을 하였다. 아벨은 양치자가 되고 가인은 땅을 기경하는자가 되었다 (창 4 : 2) . 가인의 후손들 중에는 집을 짓고 옥축을 돌보며 음악 기구를 만들고 연주하며 철과 동의 기구들을 잘 만드는 자들이 나왔다. 물론 타락으로 말미암아 노동이 더 힘들어졌다 (창 5 : 29) .

족장들의 기사를 읽을 때 우리는 아브라함의 부와 이삭이 우물을 파는 것과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수고하는 것과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대신으로 일하는 것을 본다. 믿음의 선진들은 다 훌륭한 일꾼들이었다.

1. 4. 십계명에 나타난 노동과 휴식: 제 사계명 (출 20 : 9)

이 계명은 노동과 안식의 계명이다. 엿새동안 힘써 일하고 제 이레에 쉬는 것이다. 안식일 (휴식일) 은 노동이 없이는 무의미한 것이다. 이날은 휴식은 일과 관계 속에 존재한다. 교회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에 많은 강조를 해왔으나 육일간의 노동과 함께 강조 되어야한다. 엿새 동안 힘써 일했을때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된다. 엿새 동안 일한다는 것은 단순히 아무일이나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일관성 있게 꾸준히 일하는 것을 의미한다. 엿새 동안 일하는 것도 거룩한 일이다. 이것을 잊고 안일하고 나태해질때 경제적 어려움이 닥친다. 노동은 단순히 의무가 아니라 축복이다.

1. 5. 신약에 나타난 노동관

크리스찬들은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수라서 손일의 존엄성을 보여주셨음을 기억하게 된다. 사도 바울도 열심히 텐트를 기어면서 생활비를 벌고 선교일에서도 애쓴것을 본다. 바울은 특히 데살로니카

교인들 중 "규모없이 행하고 사도들의 유전을 따르지 않는자"들이 있다 (살후3:6) 고 할때 우리는 거짓된 교리나 (요한2서 10, 11) 도덕적 범죄 (고전5:11)을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전혀 일을 하지 않는 두드러지게 게으른자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바울은 이런 자들에 대해,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하라"고 명한다 (3:10). 신약성경에 나타난 노동의 윤리는 "종용히 일하면서 자기 양식을 먹는 것"이다 (3:12). 우리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일하지 않고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 보다 더 악한 자니라" (딤후5:8) 고 호된 책망을 한다. 젊은 신자들은 "먼저 자기 집에서 호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워야 한다" (딤후 5:4). 우리가 땀을 흘려 번것으로 부모님을 모실때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2. 소명으로서의 직업

우리의 직업은 단순히 경제적 수단으로나 입신출세로만 생각하는 것은 비성경적이다. 우리가 월급날 만을 기다리면서 산다거나 승진만을 바라보고 일한다면 우리의 일터가 얼마나 무미건조해질것인가. 우리가 직업을 선택하는 배후에는 우리 자신이 그 일을 하고 싶은 열망이 있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그 일이 우리를 부르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 개신교의 개혁자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부름" 혹은 "소명"이라고 말했다. 성직에 종사하는 것 만이 소명이 아니고 세상에 필요한 일을 위해 우리를 헌신하는 것도 소명이다. 칼빈은, "우리 각자가 인생의 모든 활동에 있어서 그의 소명을 귀중히 여기라고 주님께서 명하신다"고 말했다. 우리는 자주 근심과 불안 속에서 정신이 산란해지고 번득스럽게 이리갔다 저리갔다 하며 방황하고 두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야심이 가득차 있으므로 우리가 우리의 어리석음을 벗어나고 혼란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소명을 생각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명을 쉽게 떠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리 각자의 인생은 주님께서 세워두신 지주이므로 쉽게 뽑아서 다른 곳에 박으려고 해서는 안된다. 자신의 소명을 잃어버린 자는 그에게 주신 일터에서 감당해야할 자신의 의무를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된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과 일의 터전에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충실하도록 힘써야한다. 소명으로서의 직장 생활에서 우리의 중심을 붙들어 주는 세가지의 원리를 성경적으로 세워보면 다음과 같다: 자아 실현, 이웃에의 봉사, 하나님께 영광이다.

2. 1. 자아 성취 (만족감)

직업이란 끝없이 다람쥐 쳄바퀴 도는 지루한 일의 연속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일차적으로 일하는 사람의 성취감을 위해 의도된 것임을 알아야한다. 인간으로서 우리의 자기 성취감은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우리의 일 속에서 발견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준 첫 권면은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었다 (창 1:28).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므로 창조적인 활동을 끊임없이 추구한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창조주께서 우리를 창조적인 창조물로 만드셨다. 인간이 다른 피조물로 부터 구별된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우리가 일을 한다는데 있다. 동물들의 활동을 노동이라고 할수는 없다. 우리는 창세기의 초두에서 부터 일이라는 것이 이 땅에서의 인간존재에 필수불가결한 차원임을 확신하게 된다. "인간의 노동은 모든 사회적 문제에 열쇠 혹은 본질적 열쇠이다" (바오로 2세). 따라서 일이란 인간에게 유익한 것이다. 일을 통해 자연을 우리의 필요에 맞도록 변화시키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 우리는 인간 존재로서 성취감을 맛보고 더욱 인간적 존재가 된다.

일이란 우리 인간 존재에 불가결한 요소이다. 우리가 만약 부지런하여 활동적이지 않고 게으르거나 생산적이기 보다는 파괴적이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간성의 기본 요소를 부인하며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거스리게 된다. 전도자 역시 비관주의적 인생론을 펼치면서도 "사람이 먹고 마시며 자기 일에 만족을 얻는 것 보다 나은 것이 없다" (전 2:24),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 보다 나은 것이 없다" (3:22).

그러나 현대 산업 사회를 접어들면서 일을 통해 자신을 실현하는 기쁨을 맛보는 것은 너무나 낭만적이 개념이 되어버렸는지 모른다. 직업 자체를 갖기 어려운 시대이기도 하다. 청소부 같은 직업은 더러움과 악취와 위험 속에서 살게한다. 공장의 단조로운 작업은 너무나 기계적이고 지루하고 인위적이어서 어떤 도전이나 창의서이나 완성감을 느끼지 못한다. 전혀 진선미를 우리의 일속에서 발견하지 못한다. 인간이 점점 로봇 처럼 되는 생산공장의 현장에서 우리의 영혼과 정신은 피폐해지지 않겠는가. 크리스찬으로서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의 창의성을 누구 보다도 잘 아는 우리들은 우리의 작업 환경을 더 인간화하는 대책을 계속 추구해 가야 할것이다.

2. 2. 이웃을 섬기는 봉사

일이란 일하는자의 자기 성취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공동체의 (사회)의 유익을 위해 의도된 것이다. 아담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만 에덴 동산을 경작하지 않았고 그의 식구들을 먹이고 입히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성경은 땅의 소산이 사회의 필요와 연관되었음을 계속 말하고 있다.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었고 추수를 가난한자, 나그네, 과부와 고아와 나누라고 명하셨다. 신약에서도 회개한 도적이 더 이상 도적질 말고 자기 손으로 일해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게하라" (엡 4:28)고 말씀한다.

우리의 일이 이웃에게 유익하고 인정된다는 생각은 우리의 일에대한 만족감을 더해준다. "만약 노동자의 수고가 다른 사람들에게 중요하고 의미있는것으로 여겨진다는 것을 안다면 빛이 달빛 처럼 어두워져도 열심히 일할것이다" (호손). 성경은 분명히 일을 공동체가 공동체를 위해 일하는 공동체의 프로젝트로 여긴다. 모든 일들이 어떤 점에서는 공익을 위한 일이다. 따라서 우리의 성공적인 사업이란 이윤을 남기는 것이기도하나 나아가 적절한 임금과 좋은 전망과 쾌적한 작업환경을 제공하고 연구와 발전에 투자하며 이윤을 투자가들과 나누고 정부에 세금을 내고 공중을 섬기는 것이 되어야한다. 많은 사람들은 이윤추구를 지상목표로 세우고 있다. 그렇지않으면 회사가 망한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물론 이윤은 효율성의 지수로서 그리고 생존을 위한 조건으로 필수불가결하나 크리스찬은 이윤에 지상목표를 두는 것에 대해 불편을 느끼지 않을수 없다. 그렇게되면 회사의 궁극적 목표가 자기를 섬기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들은 회사가 공중에게 어떤 좋은 상품과 봉사를 제공할 것인가에 앞서 "섬김"에 우선을 두어야할것이다.

2. 3.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직업

우리의 직업이 자기 성취와 공동체에 대한 봉사의 수평적 차원을 가짐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고전 10:31) 수직적 차원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자가 되지 않고 주를 기쁘게 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 (골 3:22; 엡 6:5-8).

3. 그리스도인의 직업 윤리: 노사 관계

일을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일에 대한 바른 태도가 필수적이다. 아무리 경영자가 자신의 사업에 대해 높은 동기를 가진다 하더라도 고용인들과 싸우면 깊은 절망감에 빠지게 된다. 현대의 한국의 산업 현장에는 일반적으로 노사간에 깊은 불신이 깔려 있다. 제조업을 국내에서

피하고 동남 아시아로 가서 더 값싼 노동력에 노동쟁의 없는 곳에서 일하려고 한다. 그러나 여기에도 많은 시행오차가 따를 수 밖에 없다. 현재의 상황은 마치 옛날 구라파가 산업혁명을 거쳐가면서 겪었던 "산업계의 시민전쟁" 같다. 여기에는 상호간의 미움과 쓴마음이 깊이 깔리고 생산력은 저하되고 노동자들은 근본적인 생계비까지 위협을 받게 된다. 그러나 한번 시작된 싸움은 쉽게 화해와 공존으로 승화 되지 못하고 서로가 무너질때까지 싸우는 것을 자주 보게 된다.

이런 시대적 분위기에서도 크리스찬은 산업-사업관계에도 바른 관계를 추구해야한다. 화해는 기독교의 가장 큰 주제이다. 복음의 심장이다. 성경은 죄가 얼마나 깊게 인간 상호관계를 파괴시키는지 명료하게 보여준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은 인간 상호간의 부서진 관계를 회복시킨다. 예수님은 화해를 위해 오셨고 그 자신이 화평케 하는자로서 우리로 화평케 하는자가 되도록 부르신다. 사도 바울은 상전과 종의 관계를 양면으로 바 조명하고 각자가 빠질 수 있는 악을 지적하며 종에게는 "논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 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엡6:6-7) 고 명하고 상전에게는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앎이니라" (6:9) 고 명한다. 바울은 노동자와 고용자의 지평선을 넘어 하나님께서 계심을 상기시키며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서 그대로 받을 줄 안다" (6:8) 고 말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윤리를 가지고 살도록 권한다. 우리는 성경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네가지의 원리를 살피도록 하자.

3. 1. 상호성의 원리

상호 봉사의 원리. "당신이 그들을 섬기면 그들이 당신을 섬길것이라" (왕상12:7). "누구든지 크고자하면 종이되라" (예수 그리스도).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남의 이익도 돌보라" (사도 바울).

상호 존경의 원리

상대방도 인권을 지닌 인간이므로 우리는 공의를 따라 일해야한다. 단순한 효율성과 편의주의가 아니다. 너가 그들을 잘 돌보니 그들이 너에게 충성을 다하리라는 생각은 성경적이 아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것 처럼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자로 알고 존엄성과 함께 대해야한다. 가난한자를 멸시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이를 멸시하는 것이며 그들을 돌보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다.

구약성경에는 삼군에게 매일 급료지불하고, 귀머거리와 노먼자,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추수 일부를 남겨 나그네와 객이 먹도록 배려하였다. 신약에도 주인과 종이 상호 존중의 원리에서 일하도록 권면한다. 한국에서는 장관과 아래있는 사람이 대화할 때 아예 말투가 달라진다.

노동쟁의에서는 상대방을 이기주의자로 본다. 각각 남의 이익보다 자기 이익 추구하기 위해 대결하고 싸운다. 직업에 사회적 책임을 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 결과로 많은 사람이 소외감과 열등감을 느끼고 산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아니다. 상호 의심을 상호 신뢰로, 경쟁을 협조로 바꾸어 나아가야 한다. 무엇 보다 인간이 귀중하다는 인식을 깊이 가져야 한다. 기계 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 더 나은 생산, 질, 관계를 위해 대결이 아니라 협조가 원리를 세워야 할 것이다. 직원들의 이름을 알고 그들의 일과 가정을 알고, 아플때 방문하며 인간 처럼 대우하는 것이 아름답다. 나는 너를 위하에 있다는 사랑의 자세와 사람이 중요하다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인식과 비판 보다 감사하고 인정하며 존경하는 삶은 우리의 공동체를 더욱 아름답게 할 것이다.

3.2. 차별금지의 원리 : 차별을 철폐함.

노동자는 시간제와 주급으로 받고 높은 상관은 연봉으로 측정하는 것이 정당한가? 이 차별의 배후에 사회적 불의가 있다. 높은 임금 급료와 저소득의 격차가 깊어질때 건강한 사회나 기업이 될수 없다. 특권을 불공평하게 나누는 것은 금지해야. 급료의 차이가 불안과 갈등의 근본 요인이 된다.

각자의 연륜, 숙련, 정신적 신체적 일, 위험도와 책임등에 의해 차등 등급이 있어야하나 균형이 깨어지도록 해서는 안된다. 급료, 조건, 승진에 있어서 사회적 공의 실현되는 이상을 가지고 일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지방이나 출신이나 성, 인종에 근거하여 차별을 하는 것이 비성서적임을 깊이 인식하고 공평한 사회를 추구해나가야 한다.

3.3. 참여의 원리 : 참여의 확대.

어떤 종류의 일을 하든지 우리 직업과 사업의 성공은 결정과 이윤을 정당하게 나누는데 있다. 이것은 자연적 정의의 원리와 일치한다. 이 원리 위에서 회사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경영에 참여 시키고 결정에 같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선택과 결심을 통해 도덕적으로 책임있는 인간이 되고 싶어한다. 동물은 본능으로 사나 인간은 자유로운 선택으로 산다. 아담은 동산안에

· 있는 모든 실과를 먹을 수 있는 폭넓은 자유를 가졌으나 먹어서는 안되는 금지사항도 받았다. 그의 선택에 따라 책임을 지도록 하나님이 정하셨다.

즉 인간의 도덕적 자유와 선택은 인간의 존엄성에 본질적인 요소이다. 우리는 선택으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간다. 따라서 사회도 의도적인 선택을 할수 있는 최대한의 기회를 주어야한다. 즉 개인적 책임을 극대화 시켜야한다. 인격적인 존재로 자신을 올바르게 표현할수 있도록 할때 성숙한 판단력을 가지고 일터를 세워나갈수 있다.

공동체와 기관의 차이는 전자는 선택권을 주나 후자는 빼앗는다. 정신병동과 감옥은 타율에 의해 움직이나 가정과 직장은 자율을 따라 움직여야 한다. 우리는 진정한 공동체를 원한다. 비인간화를 벗어나야한다. 교육과 세뇌는 다른 것이다. 후자는 선생이 자기의 견해를 주입시키는 것이나 참교육은 학생이 관찰과 추리로 배워가는 능력을 키워가도록 선생은 촉매제가 되는 것이다. 스스로 배워가게 해야한다.

노동의 현장도 민주화를 요청한다. 노동자들이 더 크게 참여할수 있도록 직장과 사회를 인간화 하여야한다. 어느 나라나 정치적 민주주의를 위해 큰 희생이 따랐다. 우리가 알아야 할것은 정치적 자유가 경제적 자유와 같이 간다는 사실이다. 인간이 단순히 살아있는 기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노동자들이 참여를 원한다. 결정에서도 폭을 확대해야 하고 누가 왜 법을 만드느냐가 중요하므로 상호 의논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산이란 팀이 만드느것이므로 노동자의 기여는 필수불가결이다. 경영자는 이윤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회사의 생존에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정당하며 노동자는 개인의 생존을 위해 급료에 관심을 가지므로 이것도 정당하므로 서로가 적극적인, 긍정적인 관계유지하는 것이 회사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다.

노동의 댓가가 적절해야 한다 (딤후 5 : 18) . 따라서 노동과 봉급 사이에는 올바른 상호관계가 있어야 한다. 회사가 잘되면 책임을 나누며 또한 이익도 같이 나누게 될것이다. 더 좋은 보너스와 상여금과 펜션도 제도로 개발해야 한다.

우리는 산업의 평화를 이루어 생산력 증대할뿐 아니라 책임과 이윤을 나눔으로 공의를 세우도록 힘써야 할것이다.

3. 4. 상호 협조의 원리

상호협조. 우리는 상호 존경과 상호 봉사의 정신으로 일해야 한다. 노동조합의 원래의 목적은 노동자를 착취적인 보스로 부터 보호하는 것이었고 이 운동을 통해 임금과 환경 개선에 많은 진보를 이루어 왔다.

그러나 때때로 이 원래의 목적을 상실하고 산업문제를 해결하기 보다 보다는 정치적이 되어 터무니 없는 요구와 부당한 스트라이크를 하고 폭력까지 동원하면 공중으로 부터 공감대 형성을 못하게 된다. 노동자의 일차적 충성은 회사에가야 하나 때로는 조합에 가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되때 기업가와 노동자는 구조적인 대결을 하게된다. 상호간의 나쁜 관계가 결국 기업에 중병을 일으키고 자신도 직장을 잃게 된다.

우리는 회사의 목적을 주지하고 또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서로 협조해서 저질 상품을 만들지 않고 결근도 하지 않고 성실하게 좋은 상품을 만들어야 한다.

4. 직업과 가정생활

4. 1. 아버지의 도리와 직장생활

4. 2. 주부와 직장생활

*참조: 가정 (6과) 에 대한 글이 나오면 직업과 연관하여 정리하려함

매마른 현대 산업사회의 경쟁 속에서 부모가 다 직장을 가지고 일할때 아이들이 양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 어려움이 많이 생기게 된다. 우리는 우리의 직장에 충실해야 할뿐 아니라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딤후 3:4, 12). 잠언 31장의 이상적인 여인은 (현숙한 여인) 가정일을 열심히 돌보며 가정을 세우고 남편을 도우며 자녀들을 올바르게 교육하고 있다. 이 여인의 삶이 우리에게 좋은 모델이 될수 있다.

우리 자신의 커리어를 세우기 위해 가정을 희생 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든든한 가정의 배경이 없이는 우리 개인의 성공도 물거품이 될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좋은 모든 것을 가족과 함께 나누어야 한다. 식구들이 나의 성공을 위해 다 희생되어도 좋다는 생각을 버리고, 가족 구성원들의 심리적, 신체적, 영적 필요를 채우기 위해 힘쓰야한다.

특히 자녀들이 올바른 신자로 자라 갈수 있도록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치며 격려하여야 한다. 함께 휴가도 가고, 자녀들과 대화하는 시간도 가져 가족 공동체를 이루고, 직장에서 생긴 스트레스를 원만한 가정생활을 통해 풀며 새힘을 얻는 곳이 되어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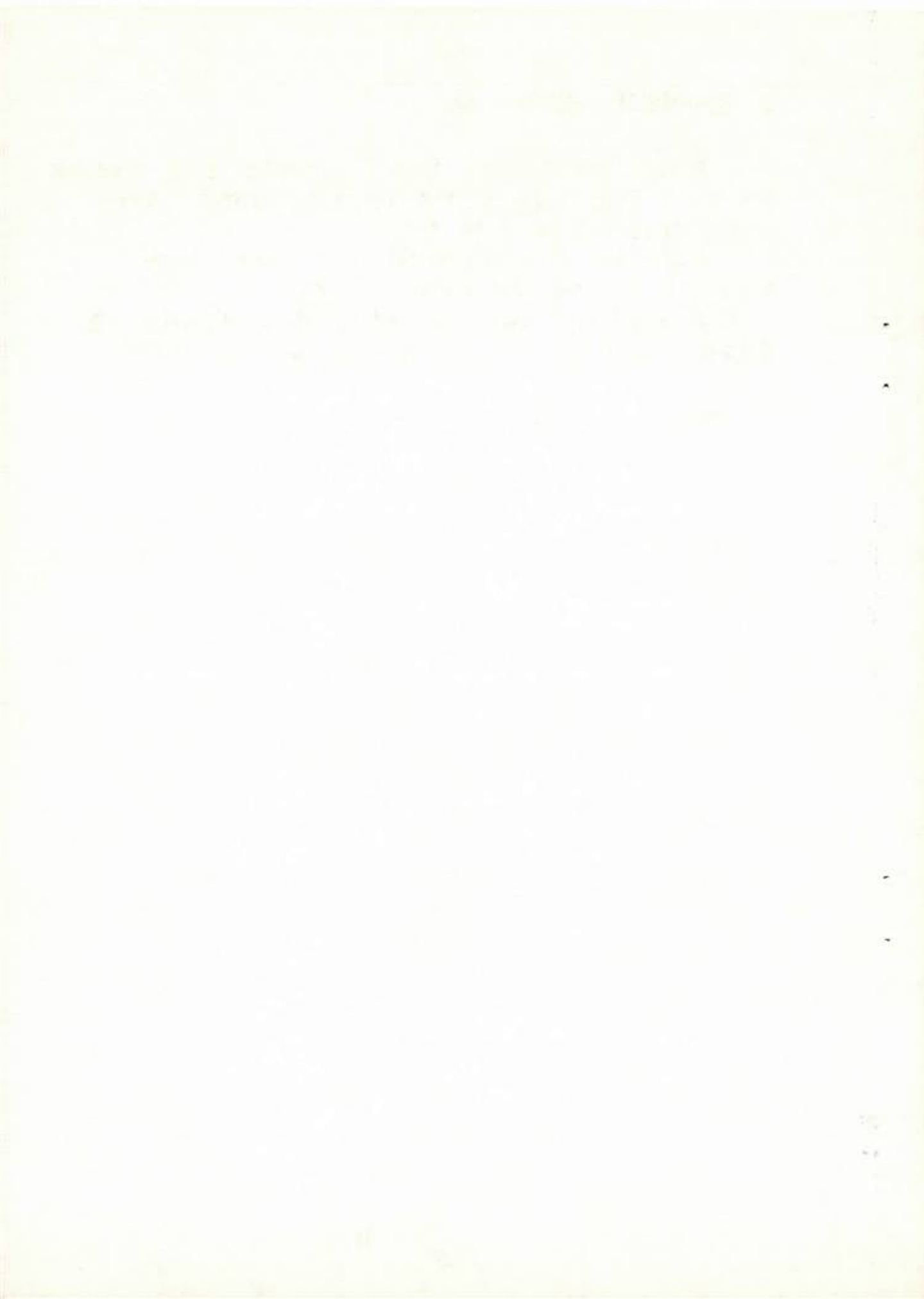
주부가 맞벌이를 하며 일을 할때는 가정일을 남편이 같이 돌보아 서로의 짐을 나누어야 한다. 자녀들의 교육과 가사 전반 (예, 집안 청소, 설거지, 장보기등) 을 같이 돌보아야 할것이다.

5. 은사개발과 창조적 삶.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우리들은 각자 독특한 은사를 천부적으로 부여 받았고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여 우리 인생을 실현하고 사회에 기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몸과 마음과 정신을 갈고 닦으며 시간을 절약해서 우리가 이루고자하는 것을 힘을 다해 실현해 나가야 한다.

하나님께서 내가 개발한 나의 자연적인 재능을 사용하시고 그를 섬기도록 인도하실 것을 믿고 성실하게 자신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주 제: 재 물

박 영희 교수

재 물

박영희

1. 청지기 관념

재물은 인간 생활에 필요한 것이며 사람들은 이 재물을 얻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또 이렇게 수고하여 얻은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말한다. 즉 일반적으로 사회에서는 개인이 재물을 소유한다고 말하고 재물의 독립적 소유권을 당연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재물의 소유주는 하나님이며 인간은 그것을 관리하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것이다.

창세기 1 : 1, 시편 24 : 1, 학개 2 : 8 이 세곳의 성경을 읽게되면 내 것이라는 것이 내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알게된다. 창세기 1장-3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인간은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명하셨는데 이것은 곧 인간은 세상과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는 청지기 임을 의미한다.

청지기는 주의 것을 위탁받은 자이며(창 1 : 27-28) 주의 뜻대로 관이고 사용하는 자이며(마 25 : 14-46) 청지기는 반드시 결산해야 한다.

2. 지혜있는 관리

재물 자체가 악하거나 나쁜 것이 아니고 인간의 욕심에 따라 여러가지 문제들이 발생한다. 주인의 재물을 맡아 주인의 뜻을 따라 잘쓰는 지혜로운 관리 즉 자기의 지혜와 시간 능력을 활용하여 주인에게 유익하도록 하는 지혜로운 관리자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에 게만 유익하게 관리하는 진실치 못한 사람과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는 관리자도 있다. 지혜있는 청지기는 칭찬과 보상을 받지만 진실하지 않은 청지기는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교훈이다. (눅 12 : 42-48, 16 : 1-13, 뱀전 4 : 10, 마 25 : 14-30, 잠 10 : 4, 11 : 16)

3. 신암적으로 바르게 사용함

그리스도인의 경제윤리는 옳게 말고 바르게 서야한다. 성경은 인간이 유용하고

책임성 있게 재물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 즉 달란트 비유에서 돈을 땅에 묻은 사람은 책망을 받았으며(마 25:18)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불쌍한 나사로에 대하여 조그마한 책임감도 갖지 않고 돈을 무책임하게 사용한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을 받게 되었다.(눅 16:19-31)

그리스도인의 경제생활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바르게 사용해야 한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고(마 6:19-20) 십일조를 드리고(말 3:9-12) 재물로 여호와를 공경하고(잠 3:9-10) 가난한 자를 도와 주며(잠 19:17)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사업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4. 습관적인 구제활동

구제는 그리스도의 산상보훈에 잘 나타나 있다.(마 6:1-4, 6:20)

예수님께서서는 구제할 때 니그라이 하라고 하셨고(마 5:42, 눅 6:38), 원손이 하는 것을 오른 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셨으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하는 것이 주님께 행하는 것과 같다고 하셨으며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에 따르는 사랑의 행위이며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기독교의 경건한 삶이다.(약 1:27, 행 20:35, 잠 11:24-25)

5. 탐심

바울이 담욕을 우상이라 했으며(골 3:5) 탐 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 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에 대하여는 인색하면서도 자기를 위하여는 재물을 끌어모으는 인간의 속성을 경고하셨으며(눅 12:13-21) 인간은 적절한 재물의 소유에 만족하지 않고 결국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는 상대에 이르는 존재임을 말씀하셨다.(약 1:14-15) 예수님께서서는 모든 탐심을 물리칠 것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님을 강조 하셨다.(눅 12:13-15).

6. 기본 생계에 필요한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전서와 그 밖의 여러 서신 가운데서 돈에 대한 그릇된 태도로도 영적생활의 위험성을 그리스도인에게 경고하고 있으며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것으로 죽한 줄 알고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것을 후히 주사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고 했다. (딤후6:9-10, 17, 히13:5, 전5:10-13)

마6:24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했다. 예수님께서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치 말라 하셨고 천부께서 우리의 있어야 할것을 아신다고 했으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 (마6:31-33, 잠30:8-9, 전5:10-13).

7.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아야 한다.

십일조는 성경에서 말하는 준수사항 이다. 십일조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시킨 것이며 자기의 백성에게 십일조 할것을 명령하셨다. (레27:30, 신14:22, 출13:2, 말3:9-10, 잠3:9-10)

십일조에 대한 규례를 강조한 말라기 선지자는 십일조 드리기를 게을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셨다. (말3:7-12) 하나님의 십일조를 도둑질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며 (7-9) 온 전한 십일조를 드려 하나님의 축복을 시험해보라 했으며 (3:10) 십일조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11)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열방이 복되다고 칭찬하게 될것이라고 하였다 (3:12) 그러므로 십일조는 하나님의 대한 바른 신앙의 태도이며 축복받는 비결임을 알수 있다.

예수님께서도 십일조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한 번은 십일조 생활에 대해서 칭찬하셨고 또 한 번은 부족한 점을 꾸짖으셨다. (마23:23, 눅11:42). 또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말씀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태도를 말씀하심을 알수있다. (마6:20, 24)

십일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위함과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드린다는 생각으로 드리는 것이며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해야 할일을 한것 뿐이라" (눅17:10)는 심령으로 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십일조 사용에 관하여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선용해야 한다. (고전10:31) 십일조는 여호와와 십일조로 레위 자손에게 기업을 다 주셨고 (레27:30-33, 민18:21-24), 또 십일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사용했

으며(신14:22-23), 사랑이 십일조로 기업이나 분깃이 없는 태위인과 가난한 자를 돕도록 했다(신14:28, 29).

8. 바르게 벌지 않은 재물은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의 대상이 된다.

모든 재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인간이 열심히 일해서 얻게 된다. 즉 성경에 합당한 직업을 선택해서 부지런히 일해야 한다. 잠언6:6-11에 태만한 인간을 꾸짖으면서 개미가 일하는 모습을 슬기를 배우라고 했고 잠10:4, 13:4에서도 인간의 손을 재울리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므로 필요한 재물을 얻도록 노력하고 수고해야 한다. 그러나 불의한 것을 모아서는 안된다 약5:1-4에 보면 앓한 자를 착취하면서 까지 욕심을 채우는 인간을 규탄하셨다(아모스2:7-8, 4:1-3, 5:11, 8:4-10)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숫군의 경성함이 허사"라고 노래하고 있다. (시127:1) 이것은 여호와와의 도움없이 재물을 모으는 것이 무의미 하며(잠10:22, 23:5), 인간은 여호와를 신뢰하고 순종하려는 각오가 없는 재물과 부는 허무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바르게 벌지 않는 재물로 인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고전6:10)

9. 과소비와 사치

합리적인 소비 생활은 공, 사경제를 발전시키는데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지나친 소비는 가정과 사회에 해가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바울처럼 자족하기를 알고 배워야 한다. (빌4:10-13)

주제 재물에 대한 부서별 교과과정

영. 유치부, 유년부

1.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지으셨다. (항목1)
2.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은 모든것을 주셨다. (1)
3. 우리는 주신 모든것을 잘 가꾸며 돌본다. (2)
4. 우리는 주신것을 험하게 다루거나 부서뜨리지 않는다. (3)
5. 나의 가진것을 이웃 친구에게 나누어 주기도 하고 같이 사용한다 (4)
6. 우리는 지나치게 많이 가지려고 싸우지않고 또 이웃 친구의 것을 빼앗지 아니한다. (5. 8)
7. 나의 가진것으로 즐겁게 사용한다. (6. 9)
8. 나의 가진것 중에서 제일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선물한다. (7)

초등부, 중등부

1. 하나님은 모든 재물의 주인이시다. (항목1)
2. 나의 가진 재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1)
3. 인간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는 청지기이다. (1, 2)
4. 재물을 진실하게 참되게 사용해야 한다. (2, 3)
5. 재물을 남용하거나 오용할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2, 3, 9)
6.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고 이웃의 필요에 의해 구제한다. (4)
7. 이웃의 것을 강제로 빼앗지 않으며 욕심은 죄를 짓게한다. (5)
8. 가진 것으로 만족하고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 (6)
9. 십일조 헌금 (7)

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장년부, 노년부, 새가정부

- ## 2. 지혜있는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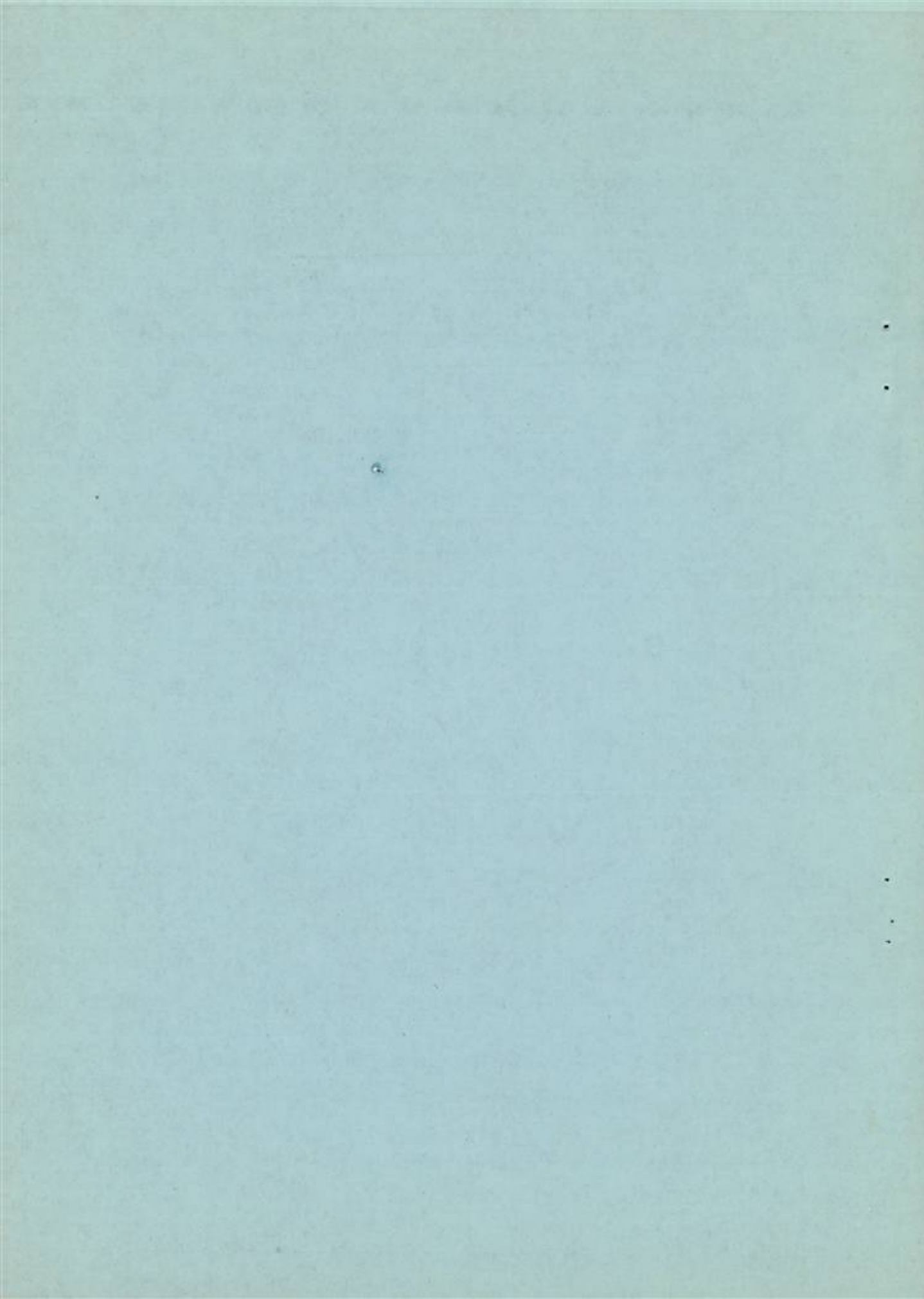
- #### 4. 습관적인 규제활동

6. 기본생계에 필요한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8. 바르게 벌지 않는 재물은 하나님께 저주와 형벌의 대상이 된다.

주 제: 삼

황 창기 교수



성도의 삶은 모든 도덕성 및 윤리성을 포함하되, 그 연원은 성도가 죄에서부터, 사망에서부터, 사탄의 능력에서부터 구원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천 백성이 된 데서 그 뿌리를 가진다. 그러므로 일반 윤리, 도덕을 포함하면서, 훨씬 심오한 근거를 가진다. 즉 기독교인의 삶은 기독교의 구원의 도리 [Indicative]에 근거한 기독교의 윤리 [Imperative]로 요약된다. 이것은 바울 서신의 구조가 대개 기독교 구속의 도리 [Indicative]와 윤리 [Imperative]로 짜여진 점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바울 서신은 이 두 요소를 “그러므로”란 말로 연결한다. 이편 의미에서 기독교의 삶은 “그러므로의 삶”이라고도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인의 삶의 동기, 방법, 태도 및 목표는 자기가 엄청난 구속의 은혜를 받았다는 데서 출발한다. 그러므로 교사들은 “삶”을 다룰 때 일반 윤리와 도덕적 차원에서 다루는 오류를 범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것이다.

1. 믿음의 삶~~~~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대상5:20; 대하20:20; 시118:8, 9; 사26:3, 4; 43:10; 단3:17, 18; 6:23마6:25-34; 눅1:38-55; 행27:25; 히6:1; 벧전1:21; 4:19; 요일3:21], 그리스도이며 [요1:12; 3:14-18; 6:29, 40; 7:38; 8:12, 21-32; 9:35-38; 10:25-28; 12:36, 46; 14:1; 20:31; 행2:36-41; 10:43; 13:38-39; 14:22; 15:11; 16:29-34; 18:8; 19:4-5; 20:21; 26:18; 롬1:16-17; 3:21-26; 5:1-2; 10:1-10; 고전1:21-24; 3:10-11; 갈2:20; 3:22; 엡1:12-14; 2:19-22; 3:11-12; 빌1:27-29; 3:9-11; 골2:12; 딤후1:13-14; 딤후1:12; 몬5; 요일5:1, 10, 13; 히12:1, 2; 약2:1],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32:1-3; 시119:15-16, 24, 35, 40, 97-99, 105, 111] 복음이다. [마13:18-23; 막4:14; 16:15-16; 눅8:11-15; 요8:31-32; 20:31; 롬1:16-17; 살후2:12; 딤후3:15; 히4:2; 벧전1:22-23.

이러한 믿음은 추상적인 설명보다 구체적인 믿음의 실례를 성경 인물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아브라함의 믿음~~창12:1-7; 15:4-18; 22:1-10; 롬4:18-21; 히11:8-19@@@@다니엘의 믿음~~단6:4-23@@@@다윗의 믿음~~삼상17:45-49; 30:6; 대상27:23; 행2:25-31; 히11:32@@@@엘리아의 믿음~~왕상17:13-16; 18:21-39@@@@기드온의 믿음~~삿6:14-18, 36-40@@@@요의 믿음~~요1:21-22; 2:9-10; 5:6-27; 13:15-16; 14:14-15; 16:1

9 : 19 : 25-27 ; 23 : 6@@@어호수아의 믿음~~민 14 : 6-9 ; 수 1 : 11-15@@@미가의 믿음~~미 7 : 7-9, 18-20. @@@@모세의 믿음~~출 14 : 1-31 ; 15 : 1-19 ; 17 : 15신 1 : 20-21, 29-31 ; 7 : 1-24 ; 히 11 : 24-29@@@@노아의 믿음~~창 6 : 14-22 ; 7 : 1-24 ; 히 11 : 7@@@@소경의 믿음~~마 9 : 27-31 ; 20 : 30-33 ; 막 10 : 46-52눅 18 : 35-42 ; 요 9 : 1-38@@@@가나안 여인의 믿음~~마 15 : 21-28@@@@에디오피아 내시의 믿음~~행 8 : 26-39@@@@바울의 믿음~~행 9 : 29 ; 27 : 23-25 ; 딤후 4 : 7 등등

2. 공의의 삶~~~공의는 하나님의 속성이다. 모든 진정한 공의는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나온다. 이는 어호와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사 30 : 18 ; 신 1 : 17 ; 창 18 : 25] . 또 예수 그리스도의 독특한 본성이다 [사 9 : 7 ; 눅 9 : 9 ; 마 27 : 19 ; 행 3 : 14] . 그래서 이 공의는 하나님의 법도, 규례, 율례 등의 근간이 되어 있다 [4세 영의 훈격에서는 대부분 judgement로 번역되어 있지만, '판단하다' (οἰνω)라는 동사의 명사형 (οἰνω)이 구약 422 번 사용됨~~465번; 겹43번, 442번; 신37번; 행32번; 롭23번; 겹20번; 겹19번; 왕818번; 대14번; 대히13번; 출11번; 왕히11번-Liedke, 1976:1000] . 하나님의 공의에 기초한 법도와 율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음을 면하고 사는 길이있다 [레 18 : 5 ; 겹 20 : 11, 13, 21 ; 참조 겹 18 : 9] . 따라서 하나님의 본성에 근거한 공의는 모든 사람의 속성이 되고 모든 사법적 절차에 속성이 되어야 한다 [시 72 : 1, 2 ; 106 : 3참조] .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기를 인간에게 요구하신다 [미 6 : 8] .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모든 사람은 그의 공의를 시행할 의무를 가진다. 또 공의는 하나님의 보상과 [삼하 23 : 3-4 ; 시 112 : 1, 3, 9 ; 37 : 6 ; 사 33 : 14-16 ; 겹 18 : 5-9 ; 히 12 : 22-23] 재앙과 관련된다 [출 6 : 6 ; 7 : 4 ; 12 : 12 ; 겹 14 : 21] . 우리는 모든 통치 행정의 법적인 토대가 그 궁극적인 권위와 권리를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함을 알아야 한다. 교사들은 인간의 최종적인 권위와 권리를 헌법과 인간 본성에서 찾는 자연인의 오류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3. 정직한 삶~~~거짓과 속임이 없는 진실과 솔직한 삶이다. 제 8계명은 도적질을 금한다 [출 20 : 15 ; 22 : 2] . 구약에서 상업 거래 상 도량형을 속이고 공평하지 못한 행위를 지주하였다 [레 19 : 35-36 ; 신 25 : 13-16 ; 암 8 : 4-5 ; 미 6 : 11 ; 참조 호 12 : 7 ; 겹 45 : 10이하 ; 시 24 : 3이하] . 신약에서 도적과 거짓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도성에서 제외되었다 [고전 6 : 9-10 ; 계 21 : 8, 27 ; 참조 뱀전 4 : 15] . 성령을 속이고 자기의 땅값 일마를 감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사하였다 [행 5 : 1-11] .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연보를 전할 때 각 교회의 대표와 함께 여행하면서 정직하게 수행하고 비방을 받지 않으려 각별한 주의를 하였다 [행 20 : 4-5 ; 롬 12 : 17 ; 고후 8 : 18-21] . 개인적인 결백에

관하여 예수님은 “너희는 다만 ‘예’ 할 것은 ‘예’ 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라고 만 하라. 여기서 지나친 것은 악에서 오는 것이다” [마 5 : 37, 새번역] 고 하셨으며, 또 외식해서는 안된다고 여러 번 강조하신 점에서 잘 알 수 있다. 사실 주는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신다 [시 5 : 5-6]. 시편 및 지혜서에서는 거짓을 줄곧 정죄하고 있다. 바울은 거짓이 이방인의 특징으로 말하였고 [롬 1 : 29 ; 참조 3 : 13], 요한에게는 “진리 안에 행하는 것”을 빛이신 하나님께서, 진리이신 그리스도께서 받으신다고 한다 [요 8 : 12, 1요 1 : 6, 8 ; 2 : 4 ; 2요 1-2 ; 3요 3]. 성도가 정직하게 살아야 할 가장 큰 동기는 “중심에 진실함을 원하시는 하나님” [시 51 : 6] 을 공경하고, 온전히 진실하시며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데 있다. 그리고 현재 한국교회가 지닌 각가지 부조리와 문제점이 진실하지 못한 “거짓”과 관련되어 있음을 교사들은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4. 겸손하고 섬기는 삶~~~~불신 이방인의 도덕에는 겸손이란 거의 없다. 기독교의 겸손과 섬김은 예수 그리스께서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기까지 낮아지심 [빌 2 : 8 ; 고후 8 : 9] 과 그의 사심없는 섬김 [요 13 : 1-17 ; 눅 22 : 24-27] 에서 그 근거를 찾아야 할 것이다. 겸손은 구원받은 신자의 특징이요 [벧전 5 : 3-6 ; 고전 15 : 10 ; 골 3 : 12 ; 약 4 : 6] 제자도의 본질이다 [마 18 : 3, 4]. 따라서 신자는 섬기는 삶으로 겸손을 나타내어야 한다. 겸손은 하나님 보시기에 자신은 아무 것도 선한 것이 없는 줄을 깊이 깨닫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아니하고 [롬 12 : 3],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빌 2 : 3], 형제를 서로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롬 12 : 10] 자기 일을 다 한 후 무익한 종이라하는 것 [눅 17 : 10] 이다.

그러나 이 겸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즉 쓸데없이 자기를 비하한다든가, 자기 자신의 견해를 경우에 합당하게 표현하기를 고의로 피한다든가 여러 사람 앞에서 자신감이 없이 주저하는 경우는 겸손이 아니다. 특히 우리의 특유한 사고 방식에 의하여 점잖고 말없으며 조용한 성품 자체를 겸손과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5. 거룩한 삶~~~~신자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성도이며 [롬 1 : 7 ; 고전 1 : 2 ; 엡 1 : 1 등등], 거룩한 나라 [벧전 2 : 9] 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성도라 불리울 만큼 거룩함은 신자가 “하나님께서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서 나와서 우리에게 . . . 거룩함”이 되셨기 [고전 1 : 30] 때문이다 [히 2 : 11]. 즉 하나님이 친히 우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심으로 [살전 5 : 23] 거룩함에 이르는 일매를 얻었다 [롬 6 : 22]

이러한 신분 때문에 성도는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벧전 1 : 16 ; 례 11 : 44] 란 말씀에서 거룩이란 속성은 하나님의 것이며, 신자의 거룩한 삶은 하나님의 뜻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삶은 성령의 전으로서 신자의 삶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것이다 [벧전 2 : 24] . 그리스도는 죄와 상관없으므로 [히 4 : 15] 신자도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벧전 1 : 16 절 말씀 앞 뒤 문맥에서도 성도가 죄와 작하여 살아가는 안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함을 보여 주고 있다 [벧전 1 : 14, 17이하] . 그러나 '거룩'은 본래 분리됨의 의미 한다고 하여, 고립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즉 거룩은 세속 중에서 도덕적 순결을 뜻하는 역동적 개념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신자는 일상 생활을 떠난 금욕적 수도원적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삶의 과정에서 '모든 행실에' [벧전 1 : 15]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경 말씀을 따라 악으로부터 자신을 지키 구별되게 사는 것이다. 베드로는 벧전 1 장에서 이렇게 말한 후 2 장에서도 '이방인 중에서' [벧 2 : 10]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신자는 죄를 대적하여 멀리하고 [고후 7 : 1 ; 1요 1 : 7 ; 3 : 6-9]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히 12 : 10] .

6. 근면한 삶~~~~성도가 근면하게 살아야 함은 그의 소망이 이 세상의 것이 아니고, 영원한 안식에 있는 교상함 때문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성도는 부절이 힘써야 할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 즉 우리는 지 안식에 들어가기로 힘쓰며 [히 4 : 11] , 또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써야 한다 [벧후 3 : 14] 그러므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벧후 3 : 12] 가운데, 모든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종성함에 이르러야 [히 6 : 11] 한다. 이는 또한 누구든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고 [히 4 : 11] 실족하지 아니하는 [벧후 1 : 10] 방편이기도 하다. 이를 위하여 성도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지야 하고 [골 12 : 11]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엡 4 : 3]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군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야 한다 [딤후 2 : 15] . 이 점에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신자 각 자의 가정이나 직장에 충실한 것을 세속적인 것으로 등한히 하는 이원론적 오류에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이다.

7. 감사하는 삶~~~~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베푸신 은혜를 고마와 하는 삶으로 이는 신자의 의무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알고 그에게 예배하는 기본 행위 중의 하나이다. 감사하지 아니하는 것이 말세에 처한 사람들의 악한 특징 중의 하나이다 [골 1 : 21] . 신자는 감사를 드리는 자이기에 [3 : 17] 감사는 신자의 생활의 핵심적 본질이다. 또

그는 감사함에 넘쳐야 하는데 [골 2 : 7] 그 이유는 그가 받은 은혜가 지극히 중성하기 때문이다 [고후 9 : 14, 딤후 1 : 14 ; 엡 2 : 7 ; 고후 12 : 7] .

우리는 뭇사에 하나님께 감사하여야 하면서 [살전 5 : 18 ; 엡 5 : 20 ; 골 3 : 17] 특히 하나님의 구원과 성화의 사역에 감사하여야 한다 [롬 7 : 25, 골 1 : 3-5 ; 살전 1 : 2-7, 2 : 13] 또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오는 축복을 감사하여야 하고 [고전 15 : 57 ; 고후 2 : 14 ; 9 : 15] ,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대하여 감사하여야 한다 [고전 1 : 4 ; 엡 1 : 16 ; 빌 1 : 3 ; 골 1 : 3 ; 살전 1 : 2 ; 2 : 3 ; 몬 4] .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것을 감사하여야 하는데 [빌 4 : 6] 언제나 우리를 위하여 그의 온전한 뜻대로 우리 기도를 응답하신 것을 믿어야 한다 [롬 8 : 28-29] . 그 뿐 만 아니라 신자로서 일상 대화도 비투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해야 한다 [엡 5 : 4]

8. 소망을 갖는 삶 ~~~~ 신자에게는 그 마음 속에 소망이 있으나 [벧전 3 : 15 ; 1 요 3 : 3] , 불신자에게는 소망이 없다 [엡 2 : 12 ; 살전 4 : 13] . 신자의 이 소망은 하나님께서 장차 행하실 사역을 기대하며 바라보는 것인데 그 근거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보여 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과거 사역에 있다.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활과 그의 나라의 도래를 확고히 바라본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그 나라를 시작하였고 사망가운데서 부활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신자는 성령으로 종말론적 왕국을 이미 맛본 자이다 [고후 1 : 22] . 그는 종국에는 그리스도와 같이 되기를 바라기에 그는 지금 그리스도와 같기를 바란다 [1 요 3 : 2-3] . 그는 더 나은 본향을 소원하기에 [히 11 : 13-16] 지금은 나그네의 태도를 취한다 [히 11 : 13] . 그가 그 나라의 온전함 중에 보다는 바라보는 소망 중에 사는 한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않는다 [고후 5 : 7] . 그래서 그의 삶은 승리보다 고난이 그 특징이 된다 [고전 4 : 8-13 ; 고후 4 : 7-18] . 그러나 이 소망을 가진자는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굳게 믿으며 [롬 8 : 28] , 환란중에도 부끄럽지 않는 인내를 가진다 [롬 5 : 3]

신자의 모든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롬 15 : 13] 특히 그의 부르심에서 [엡 1 : 18 ; 4 : 4] , 그의 은혜에서 [살후 2 : 16] , 그의 말씀에서 [롬 15 : 4] , 그의 복음에서 [골 1 : 23] 온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모두 하나님을 지향하고 [행 24 : 15 ; 벧전 1 : 21] 그리스도를 지향한다 [살전 1 : 3 ; 딤후 1 : 1] . 그리고 소망의 대상은 영생 [딤후 1 : 2 ; 3 : 7 ; 행 2 : 26] , 구원 [살전 5 : 8] , 의 [골 5 : 5] , 하나님의 영광 [롬 5 : 2 ; 골 1 : 27] ,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딤후 2 : 13] , 죽은 자의 부활 [행 23 : 6 ; 26 : 6-7] 이다.

9. 세상을 이기는 삶~~~~성도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었다고 선언하신 것 [요 16 : 33] 에 그 근거를 둔다. 여기서 세상이란 하나님의 뜻을 대항하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대항 세력에 게터 강한 자가 와서 그 무장을 빼앗았다 [눅 11 : 22] . 그러므로 신자는 이런 세력을 두려워 할 필요가 없어 졌다.

신자는 적 그리스도의 영과 짝하는 악한 자를 이기었고 [1 요 2 : 13-14] , 세상을 이기었다 [1 요 5 : 4] . 이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다 [1 요 5 : 5] . 이 삶은 올바른 신앙을 소유한 자가 가지는 적극적 윤리로서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다 . 신자는 악을 이기기 위하여 악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선을 사용한다 [롬 12 : 21] . 그것도 신자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것이다 [롬 8 : 37] . 계시록에서는 쟁박을 견디고 거짓 선생을 물리친 자를 이기는 자라고 하는데 [2 : 7, 11, 17, 26 ; 3 : 5, 12, 21] 이들만이 장래의 약속을 얻는다 [21 : 7] . 따라서 신자는 이를 위하여 최선을 다 하여 믿음으로 승리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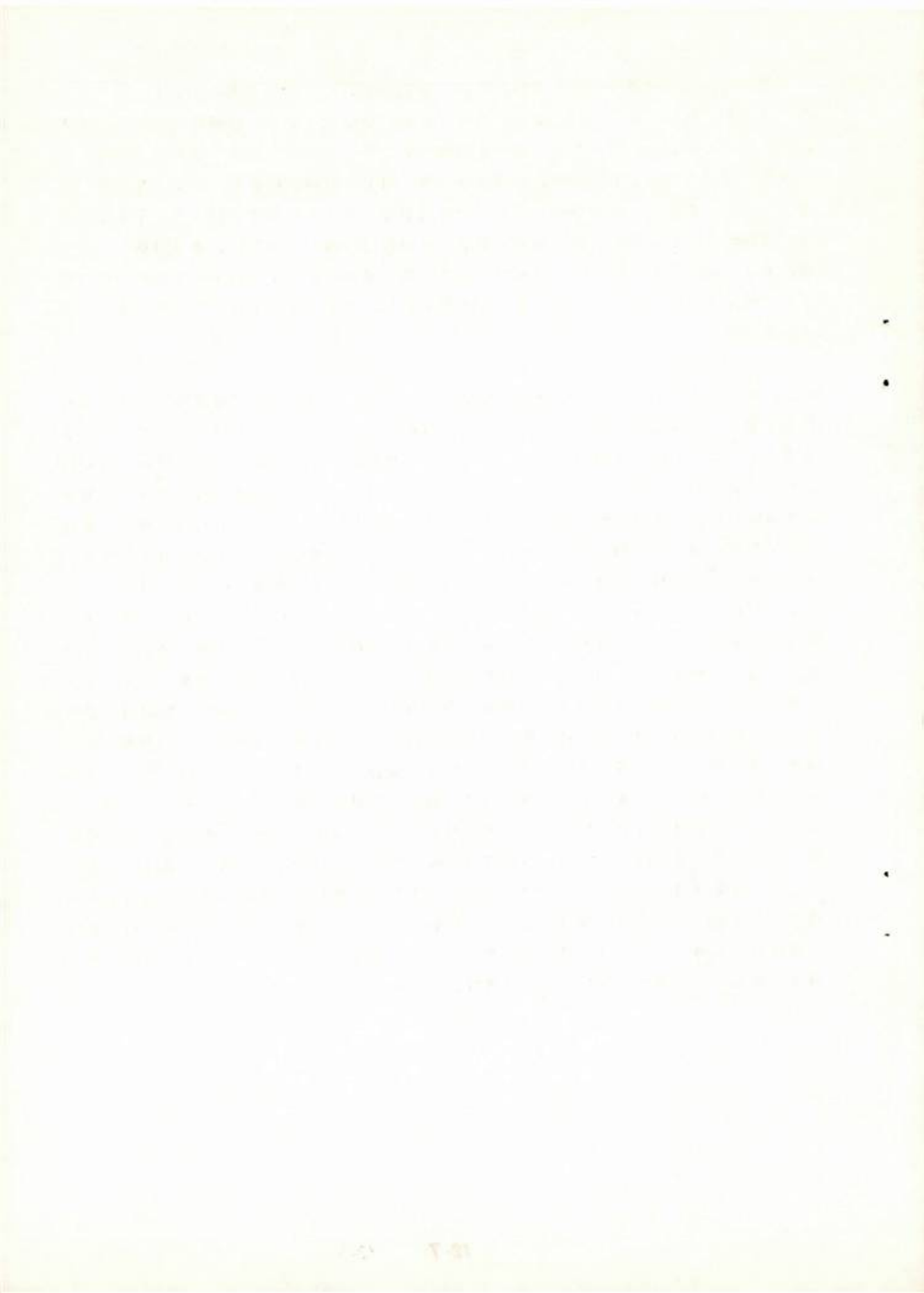
10. 자비를 행하는 삶~~~~하나님은 자비로우신 아버지로 [고후 1 : 3 ; 출 34 : 6 ; 느 9 : 17 ; 시 86 : 15 ; 103 : 8-14 ; 욥 2 : 13 ; 롬 4 : 2]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신다 [시 145 : 9] . 이 하나님의 자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있는 언약 자체에서 볼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조건없이 거저 베푸시었다 [사 63 : 7 ; 시 79 : 8-9] 또 이스라엘이 이 언약에 신실하지 못하고 어기도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약속과 긍휼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언약의 축복을 계속 허락하시었다. 새 언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서 자비를 보여 주고 있다. 그의 대속죄 희생 자체가 자비를 베푸는 행위였다. 우리가 구원 받은 것은 바로 그의 자비 때문이다 [엡 2 : 4 ; 딤후 3 : 5] . 예수님은 무리를 "민방히 여기시기도" 하고 [마 9 : 36] , 제자들에게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눅 6 : 36 ; 마 18 : 21 이하] 고 말씀하시었다. 여기서 모든 신자가 자비를 베풀어야 할 의무가 생긴다. 신자는 이 엄청난 자비를 받았기 때문이다. 신자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로" 옷입어야 한다. 성경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도 약속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마 5 : 7 ; 참조 약 2 : 13]

11. 협동하는 삶~~~~한국교회가 여러가지 현세대의 나쁜 영향을 받고 있는데, 각 개인의 신앙 차원에서는 한국인의 개인주의가 깊숙히 자리 잡고 있는 점이다. 여기서 협동의 중요성을 찾아 볼 수 있다. 예수님은 열 두 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둘 짝 둘 짝 보내었고 [막 6 : 7] , 사도 바울은 수많은 동역자를 곳곳에 두고 일하였다 [롬 16 : 3, 9, 21 ; 고전 3 : 9 ; 16 : 16

；코전 1：24；고후 1：11；8：23；빌 2：25；4：3；골 4：11；몬 1，2
4，3요 1：8] . 또 그는 집을 서로 지고 담당할 것을 명한다 [롬 15：1-
2；갈 6：1-2] . 전도서 4：9-12에서는 두 사람이 함께 일하는 것이 한
사람 보다 낫고, 안전하며, 유리함을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서로 도우며 합
께 일하는 경우는 요나단과 다윗 사이 [삼상 18：1-4；19：1-7；20：
4，35-42]，사도들을 함께 삼긴 이자들 [눅 8：1-3]，예루살렘 교회 [행 2：44，45]，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 [행 11：27-30]，헬라인
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운 일 [롬 15：25-27；고전 16：1-3] 에서 찾
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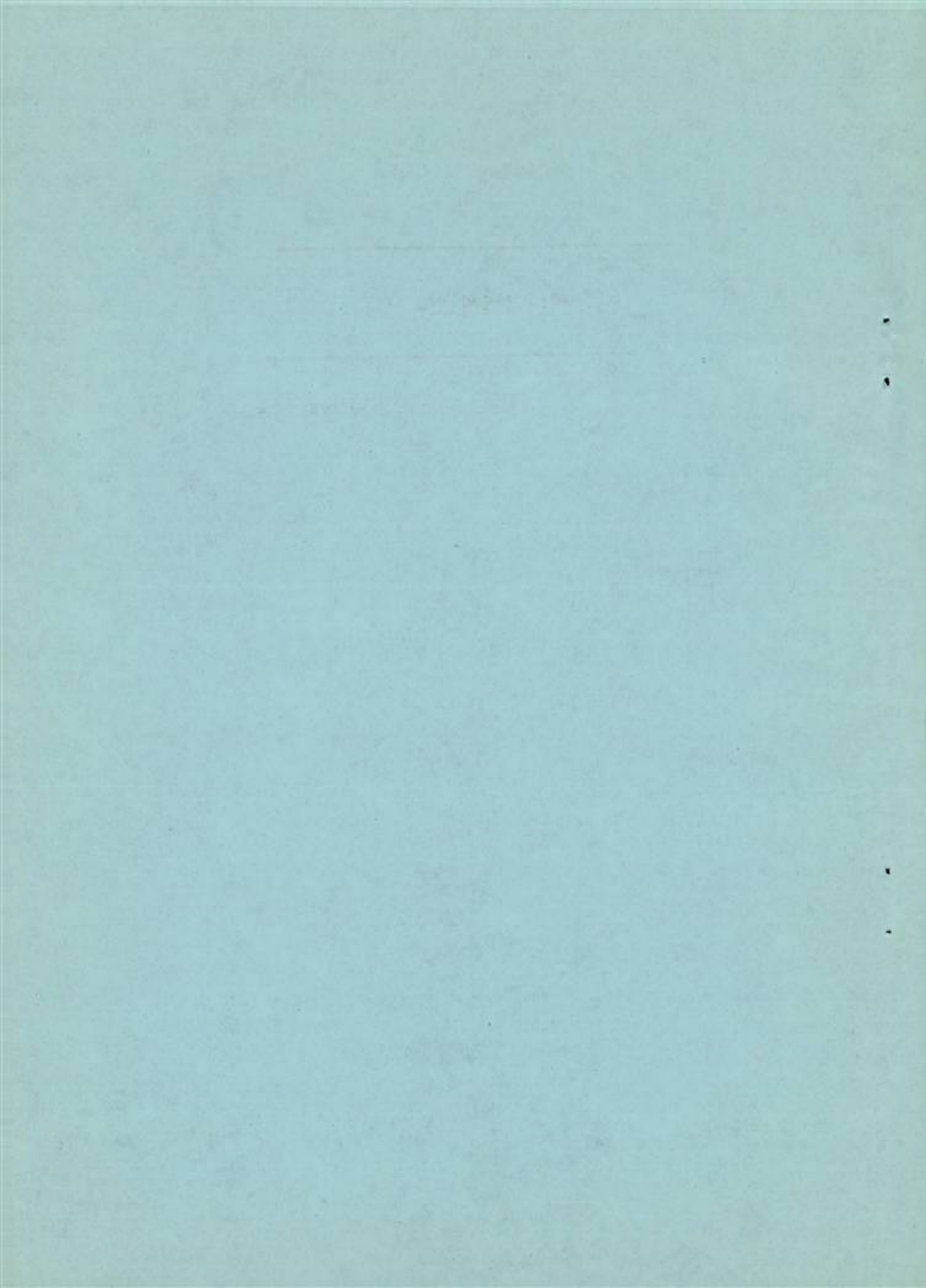
12. 소금과 빛의 삶~~~~예수님은 신약 교회 성도들을 “세상의 소금” [마
5：13]， “세상의 빛” [마 5：14] 이라 말씀하심으로 신자들의 임무를 규
정하시고, 명명하신 셈이다. 소금의 역할은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내는 것이다
． 이런 성질을 가진 소금을 구약에서 하나님의 언약과 연관시켜 소금 언약을
세우시어 [레 2：13；민 18：19；대하 13：5]，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으로서
성도들이 그 언약의 영속성과 신실성을 존중할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빛도 드러나 눈에 보이고 [숨기지 못하고]， 또 밝게 비추는 기능을 가
지고 있다. 이를 숨기우지 못할 '산 위의 등리'로 설명함으로, 제자들이 하나
님의 도성인 시온성 [예루살렘] 같이, 메시아 시대에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세상
을 향하여 뻗어나갈 터전임을 암시함으로 언약적 진리를 분명하게 보이 주고
있다. 즉 성도가 '세상의 빛'임을 길 가의 가로등에 비유하여 말하지 않았
다는 점이다. 그 뿐 아니라 빛의 둘째 기능을 사람에게 비추는 등불과 연결
시켜 성도의 착한 행실을 보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명한다 [마 5：15
-16] . 빛 가운데 걷는다는 것은 옳은 행실을 행한다는 것이다. 사실 신
실한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을 인도하는 것은 주의 빛이다 [시 43：3；욥 2
9：3；사 2：5；미 7：8] . 나아가서 이 등불은 썩뿌리는 비유 뒤에 나오는
등불 비유에서 [막 4：21-25；눅 8：16-18] 보여주는 대로 하나님 나
라의 화장에 신자들이 착한 행실을 보임으로 앞장 선 것을 강하게 나타낸다
． 따라서 현재 우리 사회의 여러가지 현안 문제를 여기서 기독교 개인 및
사회 윤리 차원에서 다룰 수 있겠다.



주 제: 전도와 선교

전 호진 교수



1. 하나님의 구원계획

성경은 범죄한 인간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려는 구원사의 기록이다. 하나님은 그의 영광을 위하여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으로 만물을 다스리도록 특권을 주셨으나 범죄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미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작정하시고 예정하셨으며 (엡 3:11), 또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렐 18:23, 32, 33:11; 벧후 3:9; 딤후 2:4, 4:10; 딤후 2:11). 구원의 실제적 결과는 택한자에게 한정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얻도록 여인의 후손으로 태어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도록 하였고 예수를 통하여 구원얻는 진리를 전파하기 위하여 일찍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다음은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세우셨으며 신약에서는 택한 백성들로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도록 하셨다. 이 세상은 보수와 갈등과 분열과 대립을 많은 죄인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이 구원얻기를 기다리신다 (참고성경: 창 3:15, 12:1-3, 45:4-8, 52:13-53:12; 갈 4:4, 마 28:19, 20등). 특히 눅 24:46-47에는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일찍부터 온 이방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을 구약성경 처음부터 강조한다. 구약에 나타난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암시는 함 12:3: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것이니라" 여기에 대한 구약성경은 창 22:16-18, 26:5, 출 12:38에 증대한 팔족이 이스라엘에 가입한 것과 12:48에 이방인에게 할례를 준 것은 이방인의 구원을 암시한다. 이외에도 왕상 8:41-43의 솔로몬의 성전봉헌기도, 시 67:2, 96:2, 47:7, 사 2:2, 55:5, 56:7, 66:18-21, 숙 8:22, 학 2:7등 (여기에 대하여는 전호진 저 선교학 49쪽 이하참고할것).

2. 교회의 선교적 사명 (신구약중심으로)

현대 선교신학은 교회의 선교사명에 대해 양극으로 분열되었다. WCC에류메니칼운동은 교회의 모든 활동인 예배, 교육, 진도, 봉사, 친교등을 선교로 해석하고 교회는 선교라는 공식을 주장하고 반면 복음주의는 선교는 교회의 여러 사명중의 하나로 해석한다. 교회는 예배, 봉사, 친교, 교육, 진도등 여러 사명중 중요한 사명이다. 교회와 선교에 관한 한 신학자의 말을 인용하면 The Church is not an settlement but a pilgrimage, not an estate but an embassy, not a mansion but a mission이라고 하였다. 교회는 (신자 개인이 아님) 복음을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cross-cultural evangelism) 사명을 가지고 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약의 교회임: 행 7:38에서 광야40년의 이스라엘을 광야교회로 묘사) 을 택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함이다 (시 9:1-10, 67:3-5, 96:4-5, 출 19:5-6, *제사장 나라는 선교와 관련된, 사 42:1-9, 43:1-

13, 49:6 *증인의 나락과 이방의 빛은 선교사상 참고 행13:47; 사66:18
점 이하).

신약에서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가르치는 성경은 구체적으로 많이
나타난다. 예수님께서서는 부활 후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
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마28:19)라는 말씀 외에도 4복음서에는
선교의 명령이 있다(막16:15-18, 눅24:47-49, 요20:21, 행1:8등).안디옥
교회가 선교자를 파송한 것은 파문화권으로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한 대
표적 실례이며 사도바울은 로마교회에도 자신을 서약자로 보내달라고
요구한 역시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말하며(롬15:24), 말씀을 전파하라는
명령(딤후4:2)은 전도의 명령이거니와 선교의 명령이다. 그러나 교회의
선교적 사명에 있어서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은 교회 밖의 선교단체가
선교를 해야한다는 주장이 있으며 현실적으로 세계교회는 교회보다는
선교단체가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였다. 교회는 선교회와 갈등과 대립의
관계가 아니라 상호 협력과 보완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

3. 선교사의 소명과 선발 및 자격

선교사란 명칭은 성경에는 없고 유사한 명칭은 사도이다. 사도란
파송을 받은 자란 뜻이다. 선교사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
작한 것은 13세기 부커인데 천주교 수도원에서 수도를 닦고 사회에
나가 전도나 목사 및 교육활동에 종사하는 자들을 의미한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나락과 문화와 종교가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파
하여 사람을 구원하며 그들을 제자로 삼고 또 그리스도의 명령과 사
도의 모범을 따라 교회를 세우는 자이다. 그러나 교회를 세우지 않아
도 다른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는 각종 일에 종사하는 자들을 선교
사라고 부른다.

선교사의 소명: 기독교는 소명의 종교이다. 모든 신자들도 다 하
나님으로 부터 소명을 받았지만 선교사는 다른 문화에서 일 할 수 있
는 은사와 특별한 소명이 요구된다. 사도바울은 선교사로서의 특별한
소명을 강조한다(행9:15, 갈1:15-17, 2:9). 과거 한국을 위시하여 다른
나락에 간 서양의 선교사들은 선교사로서의 소명을 강하게 느꼈다. 그
러나 이 소명은 주관적 소명이며 교회나 선교회로 부터 정식 소명을
받아야 한다. 바울은 대기상태로 있을 때 안디옥교회로 부터 소명을
받았다(행13:1-3). 선교사는 지원하는 자를 파송할 수 있으나 더 성경
적인 것은 국내에서 복되나 전도활동에 종사하는 자를 지명하여(청빙)
파송하는 것이다. 선교사의 자격은 영적, 인격적, 학문적훈련과 아울러
문화적응과 어학능력을 갖춘 자라야 한다(전호진, 선교학개론 페이지134-138
참조할 것).

4. 선교의 방법과 전략

선교는 궁극적으로 성령의 역사이지만 방법과 전략을 무시할 수 없다. 사도행전과 서신서에 선교방법과 전략이 나타난다. 먼저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한 것은 요나의 설교가 있지만 신자들의 현존(presence)이 선교전략이었다. WCC는 말의 전도보다 말없는 신자의 현존을 강조하지만 신약에서는 선포가 선교의 중요한 방법이었고 전략은 침전도이며 문화에 적응하며(고전9:18-23), 그룹전도(대상)를 힘 썼고 대도시 등 전략적 요지에서 시작하였으며(전호진 선교학, 페이지73-75및 209-210 등), 봉사도 병행하였다(롬15:18).

5. 신자와 전도

선교는 교회의 전체적 활동으로 온 교회가 특정한 사람을 파송하는 것이지만 전도는 모든 신자 개인이 이웃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성경에 전도한다는 헬마어는 54회 나오며 전도자란 8어는 3회 등장한다. 예수님도 전도를 하셨거니와(마4:23) 제자들을 이웃에게 전도하였고(마10:7, 요2:46 등), 초대교회는 신자들의 자발적 전도로 교회가 성장하였다(행8:1-7, 11:19-21). "초대교회가 성장하게 된 원동력은 권면도 받지 않으며, 조직도 없고 평신도들의 전도 덕분이다."

우리 신자는 자신이 구원을 체험하면 전도를 하게 된다. 이것은 마치 보물을 간직한다거나 좋은 물건을 산 자가 자랑하고 싶은 본능과 같은 것이다. 증생한 신자는 감사와 더불어 믿지 않는 사람들의 궁극적 운명을 염려했면서 전도하지 않으면 화가 임한다고 위기감과 부채감을 가진다(고전9:16. 딤후4:1-5, 참고 딤후2:1-2, 전도의 방법을 본과에서 다루실 것).

6. 전도와 선교의 메시지

전도와 선교에서 가장 필수적인 것은 전하는 메시지의 내용이다. 현대 선교의 문제점은 복음주의는 좋은 전략이 사람을 설득시킨다고 믿고 전략개발에 힘쓰는 반면 자유주의는 말씀의 구습적 선포(verbal proclamation)보다는 삶과 행위로서 선교해야 된다고 하면서 신자의 현존을 강조한다. 따라서 우리가 믿는 메시지의 내용은 소홀히 한다. 사도바울은 전도의 궁극적 설득자는 성령임을 확신하였으나 자신이 믿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전파하였다.

- 1) 유일신이시며 창조주이신 하나님(살전1:9).
- 2) 인간은 죄인이다(롬3:10 참조) - 위기
- 3)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그리스도는 주되심(고전2:2).
- 4) 신앙과 회개의 요청(행17:21-31) - 전인(全人)
- 5)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7. 한국교회의 선교적 사명

2,000교회사에서 선교활동은 특정 국가나 지역의 교회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초대교회는 안디옥교회가, 2세기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8세기는 영국의 켈트교회가 6,7세기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로마 천주교 선교를, 19세기는 영국교회가 20세기는 미국교회가 세계선교의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21세기는 이제 세계선교의 주도권이 서구에서 비서구로 이전된다. 한국교회는 21세기 세계기독교에서 장자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현 시대와 미래는 기독교 선교에 대한 도전이 많으나 선교의 요청과 기회가 주어져 있다. 도전은 이데올로기(공산주의와 사회주의), 회교, 천주교, 유대교 등 고등종교와 세속주의이다. 그러나 미래는 이방인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나아온다(사54:2, 56:7, 60:3, 속8:22, 렘3:17등). 바울은 마게도니아 사택으로 부터 선교요청을 받았는데 지금 아세아는 한국교회에 선교를 호소한다. 한국교회는 사도바울과 같은 비전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선교의 책임감이 요망된다(행19:21).

* 성경에 나타난 선교의 도전: 타종교로부터(행4:1-12, 5:24-32).

다른 문화의 도전(행6:14, 행16:20-21등).

이단의 도전(갈1:7등).

8. 선교사 지원

교회가 해외에 선교사를 파송하면 교회는 전적으로 지원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먼저 교회는 선교사를 위하여

1) 기도하며(엡6:18-20, 갈4:2-4, 살전5:25, 살후3:1-3, 몬22, 빌1:19)

2) 물질지원(고전9:1-12, 롬15:24-27, 빌1:5-11등)

3) 다른 나막교회 지원(선교사를 통하여)(행24:17, 고전16:1-9)
(선약의 현금은 극제적이요 봉사적이다).

4) 교회가 선교사를 명령하지 않는다. 바울은 선교 보고는 파송교회인 안디옥이 아닌 예루살렘교회(총회)에 하였다. 선교사의 선교활동의 책임은 파송교회보다 하나님에게, 구체적으로는 총회에 전다.

5) 선교사의 교회에 대한 의무: 감사와 보고(전보전, 선교학, 페이지06-107)

